



3

1984

문학예술출판사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

1984. 3호

(루게 437)



◆◆◆◆◆◆◆◆◆◆ 차 례 ◆◆◆◆◆◆◆◆◆◆

조 선	4
지하 평양을 걸으며	5
친애하는 김정일 지도자에게 경의를	6
주체위업의 계승자	6
주체위업 빛내여 가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	7
다시 쓴 논문	8
철을 위해 사는 사람들	16
높이 오르자 연공의 나래	18
불안개 흐르리라	19
축 배	25
축로공의 기쁨	26
호각소리	27
시련을 뚫고	28
우리가 걷는 길	38
어로공의 새 모습	39
봄 밤	39
조선시가의 3대률동형식에 대하여	40
내가 만난 소조원처녀	46

렬차우에서	48
충심으로부터	48
푸른 신호등을 따라	49
매 덕 령	50
신 념 (외 1 편).....	51
남녘의 투사를 생각하며	51
영원히 당을 바르는 마음	52
조선아 만세를 부르자	52
뜨거운 겨울	53
열아홉 꽃나이에	59
5 개 지구전선에 잇닿은 마음.....	60
력사주제와 형상적요구	62
연풍호우에서	66
로장의 마음	67
봄우뢰	69
군민일치의 아름다운 노래.....	78
잊지 않으리 고향이여 (외 1 편).....	79
앵 두.....	80

조 선

문 동 식

조선
이 땅이 생기여 그 언제
이처럼 위대한 사랑
받아안은적 있었던가

-조선을 위하여 배우자!

학창의 그날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
금수강산 내조국을 한품에 안으시고
높이 추켜드신 애국의 뜻이여

세기를 두고
이 땅에 꽃피난 자랑을 안으시고
세월을 두고 바라던
이 땅의 갈망을 안으시고
배움의 강실에 올리신 말씀

-조선은 위하여 배우자!

아, 조선
빛나는 력사
슬기로운 인민,
책갈피를 번지며
그 이를 부르면

어리어있어라
이 땅의 작은 들길 하나에도
박꽃 하얀 오בות한 초가집뜨락에도
길쌈하며 밭을 갈며 의중계 살아가던
민족의 숨결, 겨레의 풍속이

이 땅의 한그루 나무 하나의 바위에도
바다건너 밀려드는 왜적을 무찔러
칼을 번쩍이고 활촉을 날리던
산악처럼 치솟은 민족의 용맹이

력사의 갈피갈피
찬란한 문화와 전승의 무훈
꿈과 념원을 새겨 안은
이 땅의 봉우리들

조선

너를 한품에 안으시고
민족의 태양 위대한 수령님
혁명의 폭풍속을 헤쳐 오셨나니

수령님
불비와 눈비를 헤치시여
겨레의 숙망을 꽃피주신 방
한없이 은혜로운 손길로
세월의 가난을 가셔주신 이 땅

아, 조선
수령님 찾아주신 이 땅은
자주화의 봄빛넘친 금수강산
대대로 지키고 주옥처럼 가꾸어
세계에 빛내일 인민의 락원

해빛속에
웃음속에
만발하는 이 산천
즐기즐기 쓰다듬고 안아주시며
잠드실줄 모르시던 지도자동지

그 품
그 사랑속에
위대한 태양의 조선은
위대한 항도성의 나라로
세계의 창공높이 솟아올랐나니

아, 조선
풍요한 들과 기계의 바다
기름이 철철 넘치는 이 강산
내 드높은 존엄을 안고 바라보는
나의 조국 자주의 강국이여,

-조선을 위하여 배우자!

조선을 영원히
우리의것으로 일떠세우는
주체교육의 불멸의 리념속에
아, 조선은 빛나고있어라
해와 별 빛나는 락원의 나라로
인류의 머리우에 미래의 언덕에

지하 평양을 걸으며

전 병 선

내 날마다 걷는 길이건만
불빛 환한
지하철도 승강기에 서니
다시 또
가슴뜨거이 안겨오는 생각

여기였구나
내 젊은 날
건설의 착암기 잡고
암벽을 밀어 갈 때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오셨던
그곳이

잊을수 없어라
암반이 낮게 드리운 갯도 길로
그이께서 물 흐르는 벽 손수 짚으시며
허리 굽히시고 걸으실때

어디선가
단층 무너지는 소리
자꾸 들리는것만 같아
어서 떠나시기를
간절히 말씀올리는 눈시울들에서
불같은 뜨거운것이
숫구쳐 내리던것을

아, 햇빛 밝은
포도우에 오셨더라면
오래오래 모시고싶었으리
물 좋은 산촌에 오신 그이시라면
하루밤 쉬고 가시기를
간절히 말씀드렸을수도 있었으리

허나
그날의 안타깝던 내 마음
이제는 한가닥 추억으로 남고

행복만이
기쁨만이 물결쳐 설레는
지하 락원이여

사랑의 층계우에 받들려
선녀처럼 훨훨
날아오르고 날아내리는
저 사람들이야
어이 다 알리

아, 내 아무나 잡고
말하고싶구나
그날에 벌써
우리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인민이 맞을 석수 다 맞으시고
우리 걸을 험한 길
다 걸으셨다는것을

그렇게 걸으시여
지심천길 이 땅속에까지
행복의 락원 이어주셨다는것을

세월은 흘렀어도
그날의 그 사연 못잊는 내 마음
락원의 좋은 길 넓은 길은
우리에게 다 주시고
오늘도 그날처럼
험한 길만 찾아 걸으시는 그이시기에

간절해라
이 좋은 층계
이 좋은 대리석포도우에
오래오래 그이를 모시고
그이의 밝은 미소속에
그날의 안타깝던 내 마음
다 풀고싶어라

친애하는 김정일지도자에게 경의를

부바까르 까마라

김정일 그 이름은

온 조선에 울리는

영광의 메아리

김정일 그 이름은

무한한 헌신성과 희생성

무비의 영웅성과 애국주의의 상징

김정일 당신은

주체조선의 자랑

조선인민의 영명한 향도자

자주 독립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의 기수

오, 당신은 수령님의 혁명위업의 빛나는 계승자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탁월한 군사적지략을 체현하시고

수령님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구상을 꽃피우
시는분

당신은 불패의 조선을 이끄시는분

당신의 손길따라 조선은

가장 민주주의적인 국가로

가장 현대적인 국가로

가장 발전된 나라들의 대렬에

당당히 들어섰어라

주체에 깊이 뿌리내리고 활짝 꽃피난

당신의 용감성과 현명성

조직성과 령도력은

당신의 영특하신 예지와 더불어

세계를 경탄시키고있어라

위대한 수령님의 사랑속에 성장하시어

그이의 거창한 위업을 완성해나아가시는

당신의 림름하신 모습에서

사람들은 탁월한 수령님의 고매한 덕성을

위대한 수령님의 비범한 정열을

그대로 찾아보노라

모든 조선인민에게

행복을 안겨주시려고

당신의 현명한 사색과

당신의 결단성있는 활동은

끝없이 이어지나니

당신을 우러르는

그들의 높은 존경 다함없어라

당신께서는

영광스러운 승리의 길을 걸어온 나라

조선의 역사를 찬란히 수놓아 가시여라

당신의 손길따라 나아가는

조선의 근로대중은

당신의 불면불휴의 정열적인 활동앞에서

충성을 맹세하며

당신의 높이신 뜻 꽃피워가고있어라

아 친애하는 **김정일**지도자

당신의 탄생일에 즈음하여

당신의 행복을 축원하노라

당신의 만년장수를 축원하노라

(필자 세네갈 시인)

주체위업의 계승자

까라무까 베네랑

결출한 지도자 **김정일**동지를 낳은

조선은 행복하여라

그이는 우리 시대와 공산주의미래를 대표

하는

김일성주의자의 전형

그이는 **김일성**주의위업의 계승자

그이의 향도의 해발아래

찬란한 공산주의사회를 남먼저 건설할

조선의 앞날은 창창하여라

김일성주의위업을 빛나게 계승하시어

공산주의에로 조선을 곧바로 이끌어 가시는

그이

김정일 동지에 영광의 노래 칭송의 노래 드리
노라
성실한 마음들에 기쁨을 주시고
범죄자들에게 철추들 내리시는
김일성 주의위업의 진정한 계승자

그이께 인사를 드리노라
그이께서 만수무강하시기를 축원하노라
(필자는 아프리카에 있는 르완다사람들의 김일성
동지주체사상연구소조 책임자)

주체위업 빛내여 가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

싸무엘 베이가

4 월의 봄날 만경대에 태양 솟아
온 누리에 찬연한 빛을 뿌리더니
2 월의 아침 백두령봉에 향도의 별 솟아
김일성 주의 새시대가 열리어오라

전설 같은 천리마 네굽을 안고 창공을 날으며
철의 바다 황금물결 설레이는 자주의 나라
주체조선은 공산주의에로 줄달음치여라

잠을 깨라 우간다 아프리카여
주체시대 자주의 새시대가 왔노라
온갖 예측과 부정의를 자주의 화불로 불사르고
주체의 길로 자주의 한길로 나아가자

너무도 뒤늦게 깨달았지만
너무도 그것이 소중한여
내 기어이 놓지 않으리니
오 위대한 주체의 진리여

김정일 동지 그이는
김일성 주석의 불멸의 주체사상 빛내여 가시며
주석의 혁명위업 빛내여 가시며
세계인민들을 공산주의에로 이끌어 가시거니

아 김정일 동지 계시여 현시대의 지도사상은
위대한 김일성 주의로 그 이름 떨치여라
우리는 높이 들었노라 자주의 봉화를
위대한 김일성 주의기치를

뜻깊은 2 월의 명절 맞는 이 아침
우리는 맹세하노라
주체사상의 승리 위해 끝까지 싸울것을
우리는 축원하노라
친애하는 그이께서 만수무강하시기를
(필자 우간다 안전일군양성소 교원)

다시 쓴 논문

리 대 삼

1

밤, 새날에 접어들어 벽시계는 방금 석점을 쳤다.
어디선가 질어가는 가을의 운치를 돈구는듯 귀퉁
귀퉁 하고 귀뚜라미가 단조롭게 울어댔다.

침실 한옆에 놓인 책상을 마주하시고 판지로 등불
을 가리신채 군사교원 정창훈이 집필한 논문의 마지
막장을 다 보신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의 심중
은 대단히 기쁘시었다.

논문은 제목자체가 일반적이고 대응서술에서도
아직 손댈 여지는 많지만 정창훈이 직접 불사른 전
번 원고에 비하여 비약한것이 험등하게 알렸다. 모
든 논점들이 주체전법에 기초하여 론증하려 애쓴 흔
적과 고심어린 탐구가 자자구구에 맥맥히 흐르고있
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정창훈의 두툼한 원
고를 이윽도록 만족스레 들여다보시다가 그가 달아
놓은 논문의 제목을 다시 한번 음미해 보신 다음 의
자에서 움썹 몸을 일으키시었다.

시원한 새벽공기속을 거니시며 정창훈의 논문을
두고 더 생각하고싶으신것이였다. 파르릉 광-요란
한 천둥소리가 창문을 드르르 울렸다.

그이께서는 피곳 침대쪽으로 눈길을 보내시었다.
그러나 피곤할대로 피곤해 난 훈련생들은 그만한 천
둥소리쯤에는 잠자는데 아무런 지장도 없다는듯 누
구 하나 깨어나지 않았다.

발을 지저디디시며 나들문쪽으로 걸어가신 그이
께서는 소리나지 않게 조심스레 문을 열고 밖에 나
서시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이젠 정말 주무십시오!》

보초를 서고있던 교식이 가 간절히 그이께 말씀드
렸다.

《고맙습니다. 이제 자겠습니다.》

(또 한밤을 새우시누나! 그토록 귀한 몸 도무지 돌
보실념을 안하시니....)

큰 밤나무밑으로 사색에 잠겨 걸어가시는 그이를
우러르는 교식이의 눈에는 느닷없이 눈물이 핑그르
르 고이였다.

뒤집을 지시고 밤나무밑을 조용히 거니시는 그이
의 눈앞에는 정창훈이를 처음으로 만나보시던 일이
자꾸 떠오르였다.

다년간 전술교원으로 교편을 잡고있는 젊고 재능
있는 정창훈은 군사전문가로, 해박한 군사리론을 소
유한 박식가로 그 이름이 프르르하게 났다.

군사리론잡지에는 그의 논문이 자주 발표되였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언제 한번 조
용히 정창훈이를 만나시여 군사리론잡지들에 발표
된 그의 논문들을 놓고 이야기를 나누고싶으시었다.
하지만 좀처럼 시간을 내실수 없으시여 만나지 못하
고 계시었다.

이럴무렵 어느날이였다.

정창훈이 직접 분망한 나날을 보내고 계시는 그이
를 찾아뵈웠다. 그리고 그는 그이께 논문원고를 울
리며 한번 보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였다.

그이께서는 매우 반가와하시며 그 원고를 받으시
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정창훈이 가져온 그
론문을 보시는 과정에 그의 양양한 전도는 더없이
기대되나 제때에 바로잡아주어야 할 문제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통감하시었다.

그이께 드린 정창훈의 논문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방어전투들에서 적용된 전법들을 해박한 군사리론
과 풍부한 자료에 근거하여 분석한것이었는데 이미
발표된 그의 논문들에서 나타나고있는 부족점이 그
대로 되풀이되고있었다.

아무리 바쁘시여도 더는 간과하실수 없으시었다.
그이께서는 정창훈이를 위해 하루 시간을 내시여 조
국해방전쟁승리 기념관을 찾으시었다.

정창훈교원은 분망한 나날을 보내고 계시는 그이
께서 무엇때문에 일부러 시간을 내시였는지 처음에
는 알지 못했다.

기념관을 다 돌아보신 그이께서는 1211 고지의
모형갱도의 동발목을 손으로 쓰다듬으시며 잠시 깊
은 생각에 잠겨 계시더니 덤덤히 서있는 정창훈에게
조용한 음성으로 말씀하시었다.

《나는 여기를 참관할 때마다 생각되는게 너무나
많습니다.》

《예?...》

정창훈은 어리둥절하였다.

(그이께서 생각되는게 많다고 하시는것은 무엇일
가?! ...)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조
하신 주체전법의 독창성과 생활력을 론증하는 축소
판이라고도 이야기할수 있다고말입니다.》

《!...》

정창훈교원은 정신이 편뜻 들었다.

(아니? 그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내 논문 때
문에 일부러 시간을 내시였구나!...)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항일무장투쟁시기에는 물론이고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에도 우리 나라의 지형에 맞는 수많은 독창적인 전법들을 창조하시였습니다.

특히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에 창시하신 강도전법은 우리 나라의 실정에 전적으로 맞는 주체적인 군사전법으로서 동서고금의 그 어떤 군사교범에도 없는 전혀 새롭고 독창적인 전법입니다.》

정창훈은 비로소 그이의 심중을 읽을수 있었다. 그는 고개를 떨어뜨리었다. 그리고 한마디라도 놓칠세라 그이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였다.

《물론 유럽나라들이 만들어놓은 요새시대들은 큰강을 앞에 끼거나 그밖의 천연장애물에 의거하여 굴설된, 대개 다 평지요새선으로서 한때 세계의 군사전략가들이 <불퇴의 선>이요, <난공불락의 요새>요 하면서 크게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것들도 상대방의 군사적공격을 그계선에서 완전히 막아내지 못했을뿐아니라 강력한 포화력과 항공 및 땅크타격에 의하여 생각하였던것보다 훨씬 쉽게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앞으로 제국주의자들과 싸워도 우리 나라에서 싸우지 다른 나라에 가서 싸우지 않습니다.

정치에서나 군사에서나 생활에서나 할것없이 다 자기 나라의 실정, 자체특성에 맞는 리치가 따로 있는 법입니다.

속담에 찍은 치고 국수는 만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야 정창훈은 자기의 론문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것을 느꼈다.

(그런데 나는 론문에서 제 2차세계대전전야에 유럽나라들이 만들어놓았던 《마기노선》이요, 《지그프리트선》이요, 《만네르하임선》이요 하면서 장광설을 늘어놓았으니 그이께서 이런 결음까지 견제하시었구나...)

정창훈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에는 짙은 회오가 비꼈다.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전법대로 쓰지 못하고 기성리론에 포로된 론문은 백해무익한것이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전, 전 이제야 말씀의 뜻을 알겠습니다.》

사실 그는 자기 동무들이 론문을 써서는 그이의 정력적인 지도를 받아 완성하는것을 많이 보아왔었다.

그때마다 정창훈은 자기도 그이께 기여이 훌륭한 론문을 써서 올리고싶었다.

때문에 처음 그이께 올린 이 론문에 얼마만큼 정력을 쏟아부었던가!

쓰고 읽고 지우고 또 쓰고... 나중에는 원고지가

새까매져서 처음것이 어느것이고 덧쓴 글이 어느것인지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였다. 그렇지만 그는 피곤을 모르고 쓰고 또 썼다.

그런데 그렇게 쓴 론문이 그이께 만족을 드리지 못하였다.

정창훈은 집으로 돌아와 아무 거리낌없이 원고 봉테기에 불을 질렀다. 미련을 가질 필요가 없었기에 아깝지도 않았다.

그후 정창훈은 새로운 주제의 론문에 달라붙었다. 그 론문을 그는 어은동 군사야영지에 나오기 며칠전에 완성했던것이다.

정창훈은 그 론문을 《지형에 따르는 보병전술에 대하여》라고 제목하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오늘밤 바로 그 론문을 밤새워 다 읽으신것이였다.

한번 실패에 주눅이 든것이 아니라 기여이 푸른 창공을 날아 보려는 정창훈!

그이께서는 정창훈의 결패있는 성미와 열정이 더없이 미더웁게 느껴졌다.

한편 깊은 잠에 들었던 정창훈은 포성파도 같은 요란한 천둥소리에 눈을 번쩍 떴다. 누운채 그는 바깥소리에 잠시 귀를 기울이였다. 비소리와 함께 기스락물 소리가 들렸다.

《허-어, 언제부터 비가 오기 시작했담?...》

그는 입속으로 웅얼거리다 벌떡 일어나서 부랴 부랴 옷을 입기 시작하였다. 병영들에 비가 새지 않는지 걱정스러웠던것이다.

정창훈은 급히 밖에 나섰다. 그의 눈길은 저도 모르게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숙식하시는 병영에 못박혔다. 창문에는 아직도 불빛이 어린것이 보였던것이다. 그는 얼핏 손목시계를 내려다보았다.

(아니, 여직 주무시지 않으시는가? ...) 정창훈이 새날에 진행할 《공격시 보병중대》 훈련제강을 짜놓고 병영을 한바퀴 돌아볼 때에는 깊은 밤중이였다.

그때까지도 그이께서는 주무시지 않으시고 책상을 마주하시여 깊은 사색에 잠겨 계시였었다.

정창훈은 황황히 그이께서 계시는 병영으로 발걸음을 내짚었다. 그가 병영에 가까이 다가갔을 때였다.

《셋! 백두산!》

애되면서도 위엄있게 울리는 보초병의 구령소리가 그를 멈춰세웠다.

《천지!》

정창훈은 나직이 대답하였다. 그는 보초병이 누구라는것을 대뜸 알았다.

《셋, 조용히, 교식동무로구만, 수고하오!》

정창훈은 교식이에게 다가가 조용히 물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여직 주무시지 않으시

오?》

《예, 종밤 또 새우십니다.》

《에-참, 동무들은 한심하오, 어떻게 해서든 주무 시게 해야 할게 아니요?》

《아무리 말씀드려도 조금조금 하시더니 또 밤을 새우시는걸 저희들 어찌겠습니까?》

그도 안타까운지 대답소리에 울음이 젖어나왔다.

어제 낮훈련때만 하여도 그이께서 누구보다 더 많은 땀을 들리시었다는것을 잘 알고있는 창훈이었다.

그런데 그이께서 저렇듯 또 한밤을 꼬박 새우시니 피로인들 얼마나 쌓이시겠는가!

교식이가 나직이 입을 열었다.

《교원동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지금 방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럼 어디로 가시였소?》

《예, 방금 저쪽으로 가시였습니다.》

정창훈은 교식이가 가리키는곳으로 황황히 걸어갔다. 그러던 그는 못박힌듯 서버렸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뒤집을 지시고 큰 밤 나무 밑을 천천히 거닐고 계시었던것이다.

그이께서는 문득 인기척을 느끼시였는지 이쪽으로 몸을 돌리시며 물으시었다.

《누구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접니다. 정창훈입니다.》

그이께서는 창훈이결로 마주 걸어오시었다.

《아,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혹시 천둥소리에 잠을 깨친게 아닙니까? 비웃도 걸치지 않으셨군요. 감기 들겠습니까.》

그이께서는 걱정이 어리신 음성으로 말씀하시었다.

정창훈은 눈뿌리가 확하고 뜨거워났다.

《저는 일없습니다. 새날도 밝아 오는데 잠시라도 쉬셔야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노상 무리하시다...》

정창훈은 끝내 말끝을 맺지 못했다.

《허 허...》

그이께서는 가볍게 웃으시더니 정겨운 미소를 띠시고 정창훈을 바라보시었다.

짜르릉! 또다시 새벽하늘에 갈지자로 불칼질이 일어나고 뒤이어 포성같은 천둥소리가 터졌다.

《잠을 좀 자지 못하면 뭐랍니까? 나는 오늘 대단히 기쁩니다. 교원동지론문을 읽느라니 어느사이 시간이 이렇게 흘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피곤한 줄을 모르겠습니다.》

정창훈은 그만 눈물이 왈칵 눈굽을 넘어올것 같아 고개를 숙이었다.

그이께서 조용히 말씀하시었다.

《참, 날도 인차 밝겠는데 좀더 주무십시오!》

《전, 전, 일없습니다.》

정창훈은 그이의 승엄한 모습을 우리르며 황송한 표정을 지었다.

그래도 그이께서는 거듭 정창훈의 잔등을 밀어 주시며 권고하시었다.

그이의 간곡한 권고에 어쩔수 없어 정창훈은 침실에 돌아와 누웠으나 좀처럼 잠을 이룰수가 없었다, 심장은 그저 걸잡을수 없이 자꾸만 높뛰었다.

2

한가지의 성냥불만 갖다대도 온 산이 단번에 다 타버릴듯싶게 울긋불긋 물든 단풍잎은 밤사이에 쏟아진 가을비에 번들번들 광채를 띠고있었다.

비상소집으로 어은동골안을 출발한 행군대오는 도로, 오솔길, 숲속, 계곡, 벼랑을 뚫아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면서 한낮이 가까와올무렵에는 령군 봉으로 오르고있었다.

어은동골안을 떠나실 때부터 노상 행군대오의 앞뒤로 오가시며 훈련생들을 고무하시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어느 한 바위우에 먼저 모르시여 대오를 살펴보시었다.

대오의 중간에서 김교식이 숨가쁘게 따라오고있었다. 그의 숨결은 톱질하는 소리와 같았다.

《자, 내 손을 잡으시오. 교식동무!》

발부리를 줄곧 굽어보며 행군길을 다그치던 교식은 눈길을 들었다. 그는 스스럼없이 그이앞으로 손을 내밀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교식이의 손을 잡아 바위우로 끌어올려주시고 자애에 넘치시는 눈길로 그의 얼굴을 굽어보시었다.

《힘드오?...》

《힘듭니다. 그러나 참을수 있습니다!》

《참을수 있다? 허허...》

그이께서는 가볍게 웃으시며 교식이의 손을 잡으시었다.

《이리 내시오, 교식동무, 내 좀 메다주겠소.》

《일없습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교식은 놀란듯 뉘름 한발자국 뛰면 황황히 두손을 헤저었다.

《가을비는 가시에비 톱밀에서 굶는다는데 이거 웬비가 이렇게 줄금줄금 쏟아진담? 우리를 시험치는게 아닐가요?》

교식은 비물과 땀들에 범벅이 된 얼굴을 처녀들처럼 손끝으로 살짝 훑쳐내며 예쁘장한 덧이를 내놓고 웃는다.

《허허, 이런 때 교식동무, 시를 한수 읊는게 좋을것 같구만. 요즘엔 <해연의 노래> 같은 시를 읊지 않소?》

그이께서 풍기를 섞어 말씀하시었다.

《저도 이젠 알고있습니다.》

그이께서 무엇을 녀두에 두시고 《해연의 노래》

라는 시를 읊으라 하시는지 인차 김새찬 교식은 더 수기를 굵으며 어둡게 웃었다.

어은동 군사야영지에 나온 날 저녁이었다.

오락회가 벌어졌다. 오락회가 한창 고조에 이르렀을 때 교식어도 지명되었다.

그는 고급중학교때부터 즐겨 읊군하는 시 한수가 있었다. 그것은 《해연의 노래》였다.

교식은 혁머리에 왼손을 찌른채 오른발을 엇비스듬히 내딛고 서두에서부터 감정을 잡아 읊기 시작하였다.

그의 시랑송이 끝나자 돌담이 무너지는듯한 박수 갈채가 일어났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도 《잘합니다, 놀랄 지경으로 능합니다.》 하시며 박수를 쳐주시었다. 손짓, 몸짓, 얼굴표정에 이르기까지 시세계에 깊이 빠져들어갔던 교식은 그이께서 언제 뒤자리에 와 앉아계신지도 몰랐다.

박수를 쳐주시고나신 그이께서는 교식에게 말씀하시었다.

《내가 알건대는 교식동무가 순천태생같은데 리수복의 수기라든가 조기천의 <조선은 싸운다>를 읊었으면 더 좋았을걸 그랬습니다.

래일부터 훈련에 들어가겠는데말입니다.

조선사람이 좋은 제 나라 시들도 많은데 하필 다른 나라 시를 읊을 필요야 없지 않습니까?…》

그이의 의미심장한 말씀에 교식은 얼굴이 화끈 달아남을 느꼈다....

《자, 고집부리지 말고 그 총을 주시오.》

그이께서 다시한번 교식의 총부력을 잡으시었다.

《일없습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교식은 황황히 손을 내저으며 앞으로 훌쩍훌쩍 뛰여갔다.

《허 허 ...》

그이께서는 호탕하게 웃고나시여 다시금 대오를 쫓 둘러보신다.

정창훈의 마음은 죄송스러워났다.

그이의 얼굴이 무척 촉각졌기때문이다.

어찌 그렇지 않으랴. 낮에는 낮대로 어느 훈련생과 조금도 차이없이 꼭같이 훈련하시고 밤은 또 밤대로 꼬박기 지새우시니 얼굴이 촉각지 않을수 있겠는가!

간밤도 그이께서는 자기 본분때문에 꼬박 지새우시었다.

어떻게 하면 그이의 수고를 조금이라도 덜어 드리고 쌓이시는 피로를 풀어 드릴수 있을까!

정창훈은 축축히 젖어드는 눈을 슴벅이며 행군해가시는 그이를 쳐다보았다.

지금도 그이의 옷자락은 구절구절 내리는 가을비에 함뿍 젖어 잔등에서는 흰 김이 모락모락 피여 올랐다. 그런데 그이의 어깨에는 그 누구의것인지 보

총 한자루가 덧메워져있었다.

(그이의 수고를 덜어드리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수고를 끼치게 하다니...)

정창훈은 그이께 다가가 말씀드렸다.

《그 총을 저에게 넘겨주십시오!》

《허허... 괜찮습니다.

자, 이 나무가지를 조심하십시오. 얼굴이 긁힐수 있습니다.》

그이께서는 발걸음을 멈추시고 아래로 뻗어 내린 나무가지를 손수 쳐들어주시며 이르시었다.

대오는 어느덧 령마루를 짚고 높이 올랐다.

정창훈은 시계를 들여다보았다. 예정했던 시간 보다 30 분이나 앞당겨 목적지에 도달하였다.

《련락병동무, 휴식나팔을 부시오!》

이윽고 랑랑한 나팔소리가 메부리를 울리었다.

비는 멎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바위우에 올라서시여 허리에 두손을 얹으시고 수려한 조국산천을 굽어보고계시었다.

혁명의 수도 평양의 웅장한 모습이 한눈에 안겨왔다. 멀리 흰 연기를 뭉게뭉게 토하는 굴뚝도 보이고 산밑으로 흘러간 두줄기의 레루도 보였다. 벼이삭들이 금실금실 굵어졌다. 희벽칠한 오בות 마을이 보이고 빨간 사과가 열린 파수원도 보였다. 《폐-엑...》 산굽인돌이에서 우렁찬 기적소리가 들려왔다.

그이의 옆에서 그 정경에 함뿍 취한 교식이가 흥분에 떠서 그 누구에 게라없이 말했다.

《야, 한쪽의 그림같은데... 내가 다 그림을 그리고 싶은걸 ...》

《정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 나라는 어디가나 저렇게 아름답습니다.》

그이께서도 몹시 흥분된 표정을 지으시고 말씀하시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그런데 나는 어렸을 때 다른 나라에 가보지도 못하고 어떤 화가들이 그린 <북극의 백곰>, <씨비리의 붓나무> 하면서 다른 나라의 풍경을 그린 그림을 좋아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교식이 얼굴을 붉히며 그이께 말씀드렸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신중한 안색으로 정창훈을 바라보시었다.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 시기 사대주의에 물젖은 일부 화가들은 우리나라의 풍경보다 서양풍경을 그리기 좋아했는데 아직도 사대주의사상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 이런 사람들은 꽃속에 묻혀 살면서 꽃의 아름다움을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말해야 옳을것입니다.

그러니 꽃의 아름다움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꽃을 사랑할수 있겠습니까?)

그이께서는 잠시 생각에 잠겨 넘적한 바위우를 몇 걸음 거니시다 조용하신 음성으로 말씀하시였다.

《내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까.

언젠가 위대한 수령님을 보좌해 드리기 위해 내가 영광 고급중학교에 먼저 들린 일이 있습니다.

내가 어느 한 교실에 들어서니 때마침 거기서는 세계지리에 대한 구답시험을 치고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에 공부 잘하고 박식하기로 소문난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외국어를 우리 말처럼 잘하는 그 학생은 거의 모든 학과목들을 외국어문 판 교재 그대로 공부한다고 했습니다.》

《야, 고급중학교에서 그 수준이면 수재가 틀림없습니다. …》

교식의 목소리에는 감탄이 어려있었다.

《예, 교식동무만큼 <지식창고>라고 소문나기에는 이르지만 어쨌든 외국어를 류창하게 하고있었습니다.

내가 의자에 앉았을 때 그 학생은 마침 몽골의 지리적위치에 대하여 선생에게 대답하고있었는데 글썄 뭐라고 한줄 압니까?

몽골이 우리 나라 동남쪽에 자리잡고있는 내륙 국가라는것입니다.》

《하하-》. 훈련생들은 일시에 폭소를 터뜨렸다. 정창훈도 히죽이 웃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그렇게 어린 나이에 외국어를 프르르 듣고쥔은 박식가가 혹시 혼돈하지 않았습니까?》

교식이 가 도리를 저으며 그이께 말씀드렸다.

《글썄말입니다.

아마 그를 가르친 선생도 그 학생이 혼동하지 않았나 해서 다시 물어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자 그 학생은 자기 대답이 틀림없다고 왼손바닥에 오른 주먹으로 주먹도장을 꼭 찍으면서 맞가지 않은 눈으로 교원을 쳐다보더니 교과서에 그렇게 써여있는데 왜 그러느냐고 들이대겠지요.

자존심이 보통이 아닌 학생이었습니다.

그의 대답을 듣던 다른 학생들도 아연실색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자 선생도 어처구니가 없는지, 아니면 억이 막히는지 긴 탄식만 하고있었습니다.

야단이 아닙니까? 야단이란 말이요!

남의 나라 책을 통채로 외우다 보니 멀쩡한 학생이 동서남북도 모르는 멍텅구리가 되였던말이요.

그런 학생이 이다음 러객기를 물게 되면 몽골이 아니라 가야 할 손님들을 일본에다 내리올게란말이요!》

그이의 마지막비유가 너무도 신통하여 훈련생들

은 또다시 폭소를 터뜨렸다.

이때 긴 꼬리를 뒤로 늘이고 재게 나래를 퍼덕이면서 빠꾸기 한마리가 수평으로 날아올랐다.

《사람들은 저 빠꾸기가 제 둥지도 틀줄 몰라 메새, 딱새, 개구마리, 종다리… 등 작은 새들의 둥지에 여기저기 알을 낳아 키우는 멍텅구리 새라고 하는데 우린 저런 멍텅구리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어쨌든 영광 고급중학교의 그 학생은 박식은 했지만 자기가 어느 땅에 서있다는것을 모르고있었습니다.

우리는 조선사람입니다. 우리는 조선땅에서 태줄을 끊은 조선사람이라는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훈련생들은 이번에는 웃지 않았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말씀이 너무나도 가슴을 찡기때문이다.

(몽골이 우리 나라 동남쪽이라…)

정창훈도 생각이 깊었다.

3

생각이 깊으실 때에 늘 그러하시듯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근엄한 눈빛으로 먼 하늘가 그 어느 한점을 응시하고 계시었다.

《공격시 보병중대》에 대한 김교식의 《모범방안》을 들으시면서 그이께서는 생각이 깊으신것이였다.

(지난 시기 앵겔스는 보병전술의 물질적기초에 대하여 서술하면서 군대에서 무기가 개량되면 그에 따라 전투대형도 달라지고 전술도 바뀌어진다고 했다.

물론 이것은 진리의 한 측면을 밝혀주고있다. 그러나 지리적조건의 다양성을 고려 못한 일면성에 치우치지 않았는가.

지금은 20세기이다. 아닌게아니라 전쟁력사를 보면 전투대형도, 전술도 달라졌다.

두부모처럼 16 혹은 20 렬중대로 어깨와 어깨에 총창을 엮고 북을 치면서 전진하던 17세기의 밀집방진대형은 상대측의 사기를 누르는데서나, 화승대나 외알배기 보병총탄앞에서는 위력한것이였다 할지라도 대포나 비행기앞에서는 집단목표로 되지 않았는가! 때문에 군사가들은 돌격할 때 서렬을 일선형으로 짓도록 전술을 바꾸었다.

그것도 병사들사이의 간격을 6~8미터로 유지하도록 요구하는 일선형!

이것이야 평지대에서의 돌격방법이지 산악이 80%나 되는 우리 나라 실정에서 어떤 경우에도 그 이론을 기계적으로 모방할 필요야 어디 있단말인가!

더 많은 적을 잡을수 있는 혁신적이고 강조적인 방안을 왜 내놓지 못한단말인가!)

김교식은 자기의 《모범방안》도면을 펼쳐 들고 정황판단과 화력기재할당에 대하여 설명하기 시작

하였다.

그의 설명은 막힘이 없었고 류창하였다.

하긴 그는 동무들로부터 《지식창고》라는 별명을 듣고있는 총명한 머리를 가지고있다. 그는 한 번들은 일은 도무지 잊어 먹지 않았으며 책도 많이 탐독하고있었다. 가령 어느한 학생이 뭐가 아리송한것이 있으면 그에게 묻곤하였다. 그러면 그는 자기 《지식창고》를 스스럼없이 열어놓고 열변을 토했다. 그러다가 정 시간이 없을 때에는 도서관에서 어느 책을 빌려 보는데 몇페이지를 보라고 하곤한다. 그래서 그 페이지를 들추면 영낙없이 알고 싶어하는 문제들이 있는것이다.

그만큼 그는 머리가 좋았다. 그의 총명은 이번 군사야영지에서도 두각을 나타냈다. 그는 벌써 전술규범들과 야전규정들을 손금보듯 행하니 꿰들고있는 것이 었다.

김교식의 설명은 계속되었다.

정창훈은 만족한 미소를 띠고 그의 설명을 듣고 있다가 문득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우려했다.

그이께서는 나무표창이로 땅우에다 무엇인가 쓰고계시였다.

정창훈은 무례한짓인줄 알면서도 무엇을 쓰실가 호기심이 동하여 그이께서 쓰신 땅우를 슬쩍 쳐다 보았다.

그이께서는 끝없이 《사대》, 《교조》하고 쓰시고는 《X》자로 표를 하시느것이 었다.

정창훈은 그이께서 다른 생각을 하고계신다는것을 알았다.

이윽고 김교식의 설명이 끝났다.

《토 하나 틀리지 않는군! 확실히 머리가 좋아...》

애써 공들여 키운 나무가 땅속에 뿌리를 든든히 내리고 푸른 하늘을 향해 잎새를 너풀거리는 거목으로 된것을 생각하는지 연신 고개를 끄덕이던 정창훈은 이렇게 중얼거리며 흠족해했다.

그런데 무엇인가 생각 깊으신 안색을 지으시고 계시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정창훈을 향해 나직이 물으시였다.

《교원동지, 이번 훈련시간만은 소대장동무와 같이 다니고싶은데, 허락하시겠습니까?》

《예, 그야 뭐...》

정창훈은 그이의 겸허하신 인품앞에 어쩔바를 몰라하였다.

《교식동무도 찬성합니까?》

그이께서 빙긋이 웃으시며 교식을 보시였다.

《옳!》

교식의 대답소리에는 희열이 넘쳐났다. 훈련은 곧 시작되었다.

앞에는 개활지대가 상당한 넓이로 펼쳐져있었고 개활지대 저쪽에는 톱날처럼 들쭉날쭉한 메봉우리

들이 솟아있었다. 그 메봉우리들가운데 있는 주먹봉에 《적》들과 주력이 지령점을 형성하고있는것이 알려졌다.

훈련생들은 그이의 명령대로 지정된 경로를 따라 소대, 분대 단위로 개활지대를 극복하기 시작하였다.

훈련생들이 평퍼짐한곳으로 얼마쯤 달렸을 때 었다.

정창훈은 자기가 구상하고 작성한 훈련 방안대로 개활지대 상공에 적비행기편대가 나타나 폭탄을 떨어 주고 기총사격을 한다는 정황을 주었다.

소대장으로 임명된 교식은 잠시 망설였다. 소대가 맞은켄 산턱에 붙자면 아직 좀더 달려야 했다.

그이께서 부드러운신 눈길로 교식을 바라보았다.

《이제 어떻게 할 결심입니까.》

《그자리에 었드려야 할것 같습니다.》

교식의 어조는 거의 확신에 차있었다.

《그자리에 었드린다...》 하며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잠시 생각에 잠기셨다가 말씀을 이으시였다.

《아닙니다. 었드릴것이 아니라 공격속도를 더욱 높여야 합니다. 여러문 발자국만 더 달리면 은폐에 유리한 산턱에 가볼것인데 무엇때문에 여기서 시간을 지체하겠습니까.》

비행대타격시에 었드리는것은 은폐지가 없는 평지대에서도 할수없이 하는 방법입니다. 그건 우리 지형에는 맞지 않는것 같습니다.》

그이의 말씀에 신심을 얻은 교식은 개활지대를 그냥 극복하도록 소대를 이끌어갔다.

소대, 분대가 맞은켄 산턱밑에 닿자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적》들에게 숨돌릴 틈을 주지 않으려고 훈련생들을 돌격으로 부르도록 하시였다.

그때였다. 줄곧 침묵을 지키고있던 《적》 화점들이 불을 토한다는 정황이 또 떨어졌다. <적>들은 제놈들의 력량을 총동원하여 공격을 막아 보려 필사적으로 발악했다.

공격은 일시 좌절되었다.

당황한 교식은 또다시 혼란에 빠졌다.

신통한 방안이 떠오르지 않아 그이를 우려했다.

《전투》의 전반적 형세를 꿰뚫어보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교식에게 《적》의 화력을 측면으로 유인하게끔 우회조를 파견하도록 하시였다.

《적》들은 우회조쪽으로 화력을 집중하였다.

그이께서는 《적》의 화력이 우회조쪽으로 쏠린 틈을 리용하여 중대의 모든 력량과 화력기재들로 우회조와 함께 강한 타격을 가하도록 하시였다.

아군의 강한 화력타격에 《적》들은 머리를 들지 못하고 화점들도 잠시 입을 봉했다.

《동무들! <적>들이 미처 손쓸 사이없이 공격은 불같이 해야 하오!》

이렇게 말씀하시며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또다시 중대를 돌격으로 부르시었다.

훈련생들은 자리를 박차고 총창을 비껴들고 앞으로 전진했다.

정창훈은 전진하는 훈련생들의 공격서열을 눈여겨 살피었다.

공격출발진지에서 개활지대로 진출할 때에는 전투서열이 규정과 교범의 요구대로 전개했던것이 각종 정황을 받으면서 흐트러지기 시작하였다.

정창훈은 교식에게 도리머리를 저어보였다.

교식은 정창훈의 도리를 젖는것을 보고 인차 더 수기를 굽으며 훈련생들을 향하여 소리쳤다.

《간격을 유지하시오! 6~8 메터!》

창황중에도 교식의 머리속에는 배운것, 책의 요구가 떠올랐던것이다.

교식이의 구령이 떨어지자 훈련생들은 좌우를 서로 살피며 간격을 유지하느라 잠시 서성거리었다.

정창훈은 그때에야 고개를 끄덕거렸다.

《1 소대장동무, 돌격행정에 전투서열을 정돈할셈이요? 그것은 <적>들에게 오히려 명중사격의 기회를 주는거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우렁우렁하신 목소리로 주의를 주시었다.

교식이가 방금 처리한 정황을 두고 만족하여 고개를 끄덕이던 정창훈은 그이의 말씀을 듣자 생각이 깊었다.

그렇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돌격행정에 규정의 요구라고 해서 전투서열을 정돈한다? 실전이라면?...

랭철한 리성을 소유한 정창훈은 새로운 눈으로 돌격하고있는 훈련생들을 쳐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비탈도가 심한곳에서 돌격하는 이쪽 동무와 경사도가 완만한곳에서 전진하는 저쪽 훈련생의 모습이 얼핏 들어왔다.

경사도가 완만한곳에서 돌격하는 동무가 얼마나 앞섰는가. 저 동무가 이쪽 동무보다 건강하고 날래서일가. 물론 그것도 어느 정도 작용하겠지. 그러나 그것이 기본이 아니지 않을까. 실전이라면 화력 저항까지 생각해야 한다. 화력 저항을 많이 받는곳으로 전진하는 동무가 아무리 날래고 건강해도 저항을 덜 받는곳으로 전진하는 동무를 앞시켰는가.

정창훈은 단순하고도 명백할 이 리치를 생각하지 않고 기존관념에 사로잡혀 6~8 메터 간격을 유지하도록 요구한것이 한편 우습기도 됐다.

정창훈이는 생각깊은 얼굴표정을 띠고 전투서열의 뒤를 따랐다.

어느사이 대오는 적들의 제 1 참호, 수류탄투척거리에 접근하고있었다.

때마침 《투척준비!》 하는 교식이의 쨍쨍한 목소

리가 울려왔다.

교식이의 구령에 따라 1 소대 훈련생들은 수류탄 주머니에서 수류탄을 꺼내느라 또다시 머뭇거렸다.

《투척!》

1 소대는 교식이의 구령대로 일제히 수류탄을 던지고 《만세!》를 웨치며 고지로 올라갔다.

교식이도 수류탄을 던졌다. 그런데 그가 던진 수류탄이 《적》들의 참호안에 날아든것이 아니라 참호앞에 담벽처럼 우뚝 서있는 바위에 맞고 도로 데굴데굴 그의 앞으로 굴러내렸다.

이때 그의 곁으로 오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말씀하시었다.

《이것 보시오. 소대장동문 제 수류탄에 자기가 상했습니다. 일률적으로 수류탄을 던질수야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건 책에 써여진 규정이... 또 강의도 그렇게 받았고...》

교식은 어쭙은 미소를 지으며 허아래소리로 말씀드렸다.

《규정이라, 그렇지, 그러나 우리 나라 지형에 맞는가, 제 머리, 제 정신을 가지고 연구해 보시오!》

그이께서는 찰막하게 말씀하시고 줄곧 흘러내리는 땀을 씻을념도 안하시고 다시금 전 대오를 살피시었다.

《어떻습니까? 앞선 사람이 먼저 수류탄을 던지면 적의 화력이 그만큼 빨리 제압되고 뒤에 오는 사람들에게도 유리할것이며 또 공격속도도 높아질게 아닙니까.》

《알았습니다.》

교식은 몸을 꺾며 대답을 올렸다.

그이께서 이번에는 정창훈에게 물으시었다.

《교원동지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앞선 병사가 수류탄을 먼저 던져야 할것 같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창훈은 가슴이 뜨거워울랐다.

그이께서 높은 산, 험한 령도 함께 넘으시고 산지 돌격훈련도 함께 하시며 자기에게 수령님의 주체 전법을 배워주신다고 생각하니 목이 떼여울랐다.

비구름은 어디론가 물러가고 푸른 하늘이 열리고 있었다.

4

여기저기서 모닥불이 기세좋게 타올랐다. 훈련생들은 삼삼오오 흠어져 옷들을 말리고있었다.

정창훈도 모닥불을 마주하고 앉았다. 그의 생각은 깊었다.

(영광고급중학교의 학생처럼 나에게도 몽골이 우리 나라의 동남쪽에 위치해 있다는것과 같은 어리석은 사고방식이 있지 않은가!)

방금 있는 훈련에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하시는 모든 정황처리는 내가 작성한 훈련방안이나 고전가들의 기성리론으로써는 설명할수 없는 깊은 뜻이 담겨져있었다.

《아니, 이거 놀은 내가 날사하지 않습니까?》

우렁우렁한 음성이 뒤에서 들렸다.

정창훈은 황급히 일어났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그가 앉아있는 모닥불 곁으로 오시었다.

《생각에 묻히다니니... 하마트면 놀을번했습니다.》

정창훈은 황황히 옷을 뒤번지며 어줍은 미소를 띠었다.

《정말 자칫하단 태울번했습니다.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고있었습니까?》

그이께서는 눈가에 인자하신 미소를 지으시고 물으시었다.

《예, 그저 제 논문에서 만화적인 형태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 어느 구석에선가 아직 영광 고급중학교 학생과 같은 사고방식이 있지 않는가 하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저녁에 말씀드리자 했는데 이제 해도 괜찮겠습니까?》

《아니, 아닙니다. 무슨 말씀을! 제발 말씀을 낮춰 주십시오!》

정창훈은 자기를 어떻게 처신할지 몰라 허둥거렸다.

한동안 사색을 모으시던 그이께서는 이윽고 천천히 말씀하셨다.

《방금 훈련하면서 느꼈지만 현재 전투규정과 전술교범들이 남의것을 기계적으로 본딴것이 아직 적지 않은것 같습니다.》

남의것에 기초를 둔 군사 교범들과 규정들은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우리식으로 고쳐야하겠다는것을 생각했습니다.

범벅식이 아니라 철저히 우리 식으로 말입니다.

우리는 제 정신을 가지고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전법으로 무장해야 백전백승할수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주체전법만이 앞으로 그 어떤 제국주의아성도 다 폭파해버릴수 있습니다.

교원동지는 이번 논문에서 교조주의적이고 사대주의적인 군사교리에 일대 선전포고를 해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전가들의 군사학이나 오랜 세월 사대주의와 교조주의로 하여 굳어진 군사교리에 주체의 군사사상

과 리론으로 정정을 가하시려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그 투철한 군사적예지앞에서 정창훈은 깊이 탄복되어 머리를 숙이었다.

《이번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론문에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마지막부분에서 방금 말씀드린것을 참작하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조는 과학이 아닙니다. 과학이 아닌 교조로는 그 어떤 창조도 기대할수 없지 않습니까? <교조주의병>에 걸려 고전을 통채로 삼켜 버릇하면 나중에는 머저리가 됩니다.

조선사람으로서, 군사전문가로서 응당 준박사, 학사가 되여도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주체전법에 정통한 준박사, 박사라야 우리 인민은 그것을 승인할것입니다.》

정창훈은 그이의 말씀을 빠짐없이 기억하려고 무진 애를 썼지만 말씀의 마디마디가 어떻게나 심취시키는지 저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의 지난날의 잘못된 사고에 대한 자책으로 머리가 땡해졌다.

적절하고 흥미진진한 비유와 또 불같은 열정과 깊은 사색에 온 넋이 깡그리 말려들어가 정창훈은 수첩을 꺼내들었지만 단 몇줄도 적어내지 못하고 수첩 위에 눈물방울만 떨어졌다.

《이번 논문은 불사를 필요가 없습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정창훈의 두볼로 눈물이 꿀을 지어 흘렸다. 그 눈물은 그대로 자기 파신에 대한 회오의 눈물, 그이에 대한 감사의 눈물이었다.

《저의 논문은 사대주의와 교조주의 진폐, 기존 공식과 고전가들의 기성리론에서 아직도 완전히 헤어나지 못한 복사에 불과했습니다. 예로부터 사람들은 지식을 가르치는 사람을 스승이라고 불려왔습니다. 저도 훈련생들을 가르치는 스승이라고 자부하고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 전투훈련을 통해 내가 훈련생들에게... 배워준것이 아니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로부터... 배웠습니다.》

바로 그이시야말로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전법을 완전히 체득한 강철의 명장이십니다.》

이것은 정창훈의 입안의 말이였다.

그러나 그 말은 완성될 논문의 서문에 꼭 밝히고 싶은 그의 심장의 웨침이였다.

그이께서는 나무가지를 또 넣으시었다. 불길이가 리저리 넓기도 하고 서기도 하면서 너울너울 춤을 추었다.

정창훈이도 나무를 던져넣었다.

모닥불을 기세 좋게 타올랐다.

철을 위해 사는 사람들

정 해 경

나는 우리 시대 사람들의 삶을 두고 이렇게 생각한다. 아버지수령님과 당중앙이 바라시는 앞에 자신의 노력이 바쳐지고 그 노력이 이룩해놓은 창조물이 조국의 번영에 적으나마 보탬이 되고 우리 생활을 꽃피우는 기쁨으로 된다면 그 이상 더 복되고 참된 삶이 없으며 그런 삶은 순간을 살아도 레사로이 산 사람들의 일생과도 바꿀수없는 마음속의 귀중한 보물로 된다는것을.

나는 주체시대의 참된 삶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 청진지구전선의 김철3강철직장건설장에서 만났던 제23금속건설사업소 제관조립직장 2작업반장 권창록동무를 통해 하고싶은 충동이 솟아 이 글을 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펼쳐주신 청진지구전선의 김철3강철직장건설장은 그야말로 백병전을 벌리는 전투장을 방불케 한다.

아득히 펼쳐진 건설장에 숲처럼 솟아난 대형기둥기둥이 긴팔을 한껏 빼들고 수십톤급의 중량물을 들어올리는가 하면 50여미터의 높이에 수십톤이 넘는 철기둥들이 하늘을 떠받드는 기둥처럼 무수히 치솟아 오르고 수십톤이 넘는 첩보장들과 집채같은 작업충대들이며 크고작은 제관품들이 3강철직장의 웅좌를 자랑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김책제철소와 강선제강련합기업소 확장공사를 힘있게 밀고나가며 현대적인 금속가공공장들을 새로 건설하여 인민경제의 늘어나는 수요에 맞게 여러가지 품종과 규격의 철강재와 2차금속가공제품을 더 많이 생산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심장으로 받은 이곳 건설자들의 기상인양 눈길에 미치는 곳마다 《80년대 속도》 창조에로 부르는 불같은 구호들이 안겨온다. 귀를 따갑게 하는 무수한 호각소리, 수없이 펄럭이는 돌격대의 기발들, 온 건설장을 들썩하게 하는 경제선동의 힘찬 메아리, 제관품을 실은 대형자동차들의 무수한 행렬,

권창록동무는 속도전의 기상이 내려치는 여기 3강철직장건설장에서 제관조립을 맡은 한개 작업반의 반장으로 일하고있다.

여기 전투장 한 가운데서는 오직 기발과 호각, 손짓뿐이다. 이것이 여기에서 통용되는 유일한 《언어》이다.

사람 몇백명쯤은 어느 구석에 있는지도 모를 이 거창한 건설장에서 그것도 제관조립반장으로 아찔한 상공에서 수십톤의 중량물을 안고 씨름할 권창록

동무를 찾는다는것은 어려운 일이 아닐수 없다. 나는 다행히 기중기팔같은 엑센 두팔을 벌리고 반갑게 마주오는 이 작업반의 세포비서 리주만아바이를 만나게 되었다.

리주만아바이는 며칠전에 내가 권창록반장의 글을 쓰고싶다고 한 말이 생각났던지 작업장으로 오르려던 걸음을 돌려 작업반휴게실로 쓰는 작은 철집쪽으로 나를 이끌더니 벽에 나붙은 한장의 커다란 그림을 손으로 가리키는것이였다.

《우리 반장이요. 건설장에 지원나왔던 미술가선생이 그런 그림인데 어느녀석이 그림에다 저런 글을 써놓지 않았겠소.》

정말 권창록반장동무의 반신형그림 밑에 《우리 작업반장아바이》라고 쓴 글발이 울퉁불퉁한 글씨로 찍여있었다.

나는 세포비서아바이를 쳐다보며 말대신 눈짓으로 《아바이라니요?》하고 물었다.

《새해에 30대를 벗어난 반장을 보고 20대의 사로청원들은 물론 50대에 이른 사람들까지 글세 반장아바이라고 부릅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반원들이 그를 왜 아바이라고 부르겠는가 하는 대답을 그림에서라도 찾아보려고 산사람이 서있듯이 생동하게 그린 그림을 뜯어보았다.

눈은 작은편이나 정기가 넘치는 눈동자, 금속공장건설자의 강인한 의지를 엿보이게 하는 선이 뚜렷한 광대뼈, 총체적으로 성격이 급하고 날카로운것 같은 인상을 찾게 하였다.

《반장을 아바이라 부르는데는 일리가 있수다. 그는 철밖에 모르는 사람이지요. 말하자면 김철건설의 첫삽을 들고 직두천바닥을 파내기 시작한 때로부터 김철이 조국의 대야금기지로 펼쳐진 오늘에 이르기까지 철을 위해 바친 그의 노력에 대한 존경심에 서라고 할가, 작업반의 옷사람이라는 데서라고 할가, 그저 이러루한 마음에서 그렇게 부르게 됐답니다. 글세 어떤 사람들은 나라의 철 기지를 지켜내지 못할놈이라고 눈물이 쑥 나오게 비판을 받고도 돌아서면 우리 아바이라고 부릅니다.》

세포비서아바이가 이렇게 말하는 짬에도 나는 철구조물이 오르는것을 세여보느라 여념이 없었다.

《여보게 자네가 반장 애길 좀 해주게, 나야 말 주변이 있어야지.》

제대군인이며 작업조장인 최병국동무에게 하는 말이였다.

나는 그토록 바쁜 세포비서를 더 붙어잡고있을수

없었다.

최병국동무는 아찔하게 높은 작업장우에서 꼬박 겨울밤을 새우며 야간작업을 하고 밤급 아침술을 놓기 바쁘게 또 일터로 나가려던 참이었으나 반장에 대한 글을 쓰려한다고 하니 대번에 기색을 고치며 말을 잇는것이였다.

…권창록동무는 제대되어 온후 1972년 2월16일부터 5년간이나 《2월 16일돌격대》 대장으로 일하였다. 그가 맡은 임무는 그때나 오늘이나 제관조립이였다.

김철련속조피직장건설때였다. 천여톤의 철구조물을 30미터이상의 높이에 올리자니 다른 나라에서 들여온 25톤짜리 기중기로써는 도저히 공사기일을 보장할수 없었다.

《빌어먹을것, 만들바에야 장난감처럼 25톤기중기가 뭐야, 더러워서.》

작업반원들은 푸념을 늘어놓았다.

《그게 철을 생각하는 마음들이요?! 위대한 수령님께서 1만톤의 강재만 더 있으면 나라가 허리를 펴겠다고 하신 교시를 생각할 때 전후복구건설이 멀리 지나간 오늘에도 난 마음을 놓을수 없소. 왜 우리가 지금 전투를 벌리고있소, 나라에 철이 급박한 문제로 나서고있기때문이 아니겠소. 철을 빨리 뽑을 방도를 찾읍시다.》

반장이 이렇게 들고나오자 반원들이 한결같이 따라나서 앉은뱅이기중기의 체대를 20미터나 높이고 우리 식대로 개조하여 련속속조피직장건설에서 6배, 7배의 속도를 낸것이였다.

열간압연직장건설때였다. 한개 경간이 36미터나 되고 높이가 25미터나 넘는 구조물안에다 대형의 제관조립설비들을 끌어들이자니 수백립방의 침묵이 요구되였고 많은 량의 성토작업을 해야 하였는데 그렇게 되면 철관생산이 계획보다 3개월이상 지연될수 있었다. 어떤 기술자들은 기일이 좀 늦어 지더라도 안전하게 하자는 의견을 들고나왔고 어떤 사람들은 조건타발을 하면서 제관조립을 맡은 우리에게야 책임이 없지 않는가고 책임한계를 운운하기도 했다.

《그걸 말이라고 하오. 어버이수령님께 우리가 뽑아낸 철관을 올리겠다고 맹세한 날자를 하루도 어길수 없소. 우린 꼭 그 날자에 열간압연기에서 뽑아낸 철관을 수령님께 올려야 하오. 우리야 철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요,》

이것은 권창록동무의 말이었다. 그러나 제대배낭을 벗은지 얼마 안되는 그로서 이렇다 할 방도가 떠오르지 않아 밤늦도록 기초만 서있는 건설장에서 번뇌에 젖어 서성거리고있었다.

《이사람 반장, 오늘 말을 참 잘했네. 그게 철을 안고 사는 우리 로동계급의 량심일세. 나라에 철이 얼마나 요구되시면 어버이수령님께서 북방의 먼길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찾아주시고 또 찾아주시겠나. 우

리 모여앉아 힘을 합치자구.》

세포비서 리주만아바이의 말이 그에게 힘을 주었다.

그날부터 작업반원들은 수백장의 작업합리화도면을 그리기 시작했다. 수십차례의 시험을 거쳐 조선식 드레박원리를 리용하기로 한 그들은 50미터짜리의 중량물보주를 량쪽벽에 세우고 여기에 쇠바줄을 걸어 권양기를 도입함으로써 800톤의 제관품을 조립하는데 성공했고 공사를 4개월이나 앞당길수 있었다.

《3강철직장건설에 달라붙은 다음에 우리 반장아바이의 입에서는 그저 <주체의 철> 말뿐이지요.》

최병국동무는 이렇게 말하며 권창록동무가 일한다는 쪽을 바라보는것이였다.

세찬 모래바람이 건설장을 휩쓸었다.

나는 철기동우를 바라보며 건설장으로 달려가는 사람을 부러움에 찬 눈길로 바라보았다. 나는 추위와 눈보라를 벗삼아 저 높은 철구조물우에서 낮에 밤을 이어가는 건설자들을 뜨거운 마음으로 바라보며 생각하였다. 저 철기동우에 자리잡고 하루 세끼 밥도 기중기로 날라다 먹는다는 권창록동무의 손이라도 한번 잡아보았으면… 이런 욕망에 불타 오른 나는 아찔하게 솟은 철보짱우에 올랐다.

랑만적이던 생각은 줄지에 사라졌다. 조립장은 땅에서와는 판세상이였다. 바늘돌린 흑한이 온몸을 쭈시며 조여들고 왕모래를 휘몰아가치고다니는 눈보라가 사정없이 얼굴을 휘갈겨 눈을 뜰수 없었다. 밀은 바람이 별스럽지 않았으나 철기동우에서는 15~20미터초속의 바람이 광기를 부리고있었다. 그런데다 밤이면 령하 20도나 내려간다니 철관우에서 밤새워 제관조립을 하는 이들의 가슴속에서는 과연 어떤 힘이 샘솟고 있길래 어떤 열정이 불타고있길래 저런 자연의 흑한을 이겨낸단말인가. 이들도 나와 같은 인간이 아닌가. 이런 속생각에 대답이라도 하듯 권창록동무는 병어리수갑을 내 귀에 대고 몹시 빠른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는것이였다.

《상반년기간에 8강철직장 전기로 2기분공사를 끝내자면 적어도 7천여톤의 철구조물을 조립해야 합니다. 조립해야 할 그 많은 철기둥, 보짱, 호빠류, 관류들의 수자에 비하면 날자는 너무나도 적지요. 그러나 우리는 어버이수령님과 당중앙의 구상대로 <주체의 철>을 뽑을 이 3강철직장을 일떠 세우기전에는 철보우에서 내릴수 없습니다. 우리야 철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이것은 천근만근의 무게로도 젖수 없는 작업반장 권창록동무의 심정이였다.

우리와 잠시 이야기를 나눈 그는 서둘러 시계를 보았다.

《시간을 어기지 맙시다. 네번째 철보는 11시까지 무조건 올려야 하오-》

아래에 대고 웨치는 소리였다. 물론 아래서 말소리를 들을리 없지만 반장이 시계만 보면 반원들이 순간이라도 건설속도가 드릴가 마음을 다잡는 다는 것을 잘 알고있었다. 30여톤이나 되는 철보가 반메터 또 한메터 공중으로 솟구쳐 오르는것이 었다.

나는 이 높은곳에서 스물한살인 작업반 막내가 제관공 변일훈동무며 제관공들인 최봉학, 최상준동무들과 작업반의 《기술고문》이라는 주룽구동무들을 통하여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

작업반장 권창록동무는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높이 모시고 진행된 당 제 6차대회에 참가하는 영광을 지니었으며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70돐행사에도 참가하는 크나큰 사랑과 은정을 받아안았던것이다. 그는 한몸이 그대로 철이 될수 있다면 한목숨 서슴없이 철가마속에 뛰어들 그런 사람이라는것이였다.

휴게실 작은 철집에서는 3강철직장건설이 시작된 후 작업반장이 매일과 같이 반원들과 주먹없는 《싸

움》을 한다는것이였다.

며칠전에는 밤교대성원들을 다문 몇시간이라도 재우려고 철집에 쇠를 잠그기까지 했는데 그만 성미 급한 최병국동무가 망치로 철벽을 두드리느바람에 하마트면 소동이 일어날번했다는것이다. 그래서 반장과 병국동무사이에 또 심갱이질이 벌어 졌다는것이다. 철을 위해선 잠도 할줄 알아야 한다느니 철을 뽑는걸 보기전에 재울 생각을 말라느니... 하고, 그러다 최병국동무가 철보우로 오르는것을 눈물이 글썽해서 지켜보던 반장이 그날밤에 불에 달군 돌과 두터운 철판에 《주체의 철》이라는 글발을 써서 기증기에 달아 올려보내여 작업반원들 이 온밤 《주체의 철》, 《주체의 철》 이렇게 합창하며 뜨거운 마음을 철을 위한데로 합쳤다는것이였다.

나는 내가 쓰는 글의 제목을 철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라고 달기로 마음먹으며 벌써 일주일째나 철보우에서 산다는 권창록반장을 새겨두고저 오래 오래 바라보았다.

높이 오르자 연공의 나라

허 관 일

우리 나라는 삼천리
그만큼 오갔다는 방직공이 있듯이
십년세월
김철확장공사장의 농포벌 한끝까지
구름도 높은 구름
내 오른 강철기둥, 철의 숲을 이으면
어느 별엔가 닿을지도 모르리
나서 내딛는 첫걸음마다 있듯이
이 하늘가에서
연공의 첫자욱을 땀 나는 건설자
사랑하는 처녀의 앞에서도
그 걸음은 숨기지 못하리
구름우에 내가 선 이곳에서는...

아, 굽어보이누나, 지붕의 바다
강판의 굴음 예까지 미치는
대열간압연직장이여
건설은 엇그제같이
감회도 새로와지는 진경이여
얼마나 후더워오는 이 가슴인가

파헤쳐진 건설장구내길
수령님께서 걸으셨던 그 생각에
새 강철직장
오늘의 여기선 길부터 열었고

장마철비는 굶는가고
건설자들을 심려하시는 그 생각에
앞당겨 이 은빛지붕 엮어가거니

연공의 마음은 언제나
수령님 모셨던 그날에 산다
벽찬 이곳에 오늘도 모실가싶어
층층철골도 높이
그우에 마음은 더 높이
그날의 그 길로 마중해가는 날음이여...

이제 울리리라, 고압의 동음
천개에는 아름답리 전극을 이고
전기로는 생을 고하리라
대경간에 화차는 밀려들리라
벽찬 건설의 창조물
또하나의 강철지구가 솟아오른다

5 개지구전선건설의 첫보고
첫기쁨을
위대한 수령님께 드리며
이 하늘을 오른다
관모의 산줄기도 눈아래 두고
이 나라 펼쳐 저 한끝까지
그날을 앞당겨 저 한끝까지

불안개 흐르리라

주 동 섭

눈이 부시도록 밝은 겨울날이었다.

바람이 잦아들 때면 은가루같은것이 자욱히 쏟아져내리면서 반짝거렸다. 방금전에 《통일》 호굴착기를 실어가려고 왔던 대형추레라자동차가 푸실푸실한 눈발을 물갈기처럼 일구며 가버렸다,

흰사기관처럼 눈이 다져진 길위에 잔물결같은 눈가루가 이리저리 굽실거린다. 철관과 목재를 실은 자동차들이 제노라고 재간껏 《목청》을 돌구며 바람을 차고 달린다. 타면소에서 날리는 숨털처럼 고요히 주저앉을것 같던 눈보라는 또다시 차바퀴에 매달려 갈겐다.

휘~휘~ 맛바람이 불어치자 하늘땅에 미세한 얼음바늘가시같은것이 새뽕양게 뒤셀렌다.

추레라자동차를 돌려보낸 《통일》 호굴착기운전공 차범식은 흰양털보자를 벗어 귀덮개를 올렸다. 추레라운전수와 한참 신경을 돌구었던 머리가 잠시 얼어들어 저도 몰래 어깨가 올라갔다. 서둘러 모자를 다시 쓰고 량어깨죽지를 덮은 동복깃을 뚝뚝처럼 올려세웠다. 동복깃도 새하얀 양털이었고 동복안도 복실복실한 어린 양가죽을 댄것이였다. 그의 장갑도 양털이였다. 때문에 디젤유가 점점이 꽃무늬를 놓은 흰 양털로 온몸을 감싼것이 유포했다. 그래서인지 <통일>호굴착기운전공이라면 모르는 처녀가 없었다. 방금 있는 추레라운전수와 옥신각신한 《사건》은 처녀들의 화제거리가 되고도 남을것이다.

원래 여기 3강철직장건설장에서 굴착작업을 끝낸 《통일》 호굴착기는 제 2제대라고 말할수 있는 6호구역으로 기동하게 되였었다. 그런데 여기서는 높이 20미터에 무게가 근 30톤이나 되는 기동을 수백개나 세우는 일이 난공사로 제기되였다. 이런 사정을 알게 된 기술부참모장 김계필은 《통일》 호굴착기에 기중기팔을 달고 기동을 세울 방도를 연구해냈다. 그러나 그 창안은 하루전에 실패로 종지부호를 찍고 말았다.

오늘아침엔 굴착기로 기동을 세우는 일을 다시 재개하리라는것을 의심치 않으며 런던 기대관리에 원심을 쓰는 범식에게 아무런 연고도 없이 추레라 《가마》가 왔던것이다. 범식은 영문을 알수 없어 추레라운전수와 다툼질까지 하였다. 끝내 추레라 《가마》는 《조혼》을 반대한 굴착기 《새각시》를 원망하며 허공에 무시로 흩날리는 눈가루속으로 털렁털렁 달려가버렸다.

범식은 추레라자동차가 멀리 사라져 보이지 않자 기계화중대 초소막으로 달렸다. 당장 기술부참모장

에게 전화를 걸어보지 않고는 건딜수 없었던것이다. 단숨에 큰길을 가로질러가던 범식은 량손에 물바게쓰를 들고 뛰어오는 한무리의 처녀들과 맞다들었다.

범식은 최대의 《제동》으로 《급정거》를 하였지만 허우대 큰 몸은 관성의 법칙을 무시할수 없다는듯이 웬 처녀를 자빠뜨리며 모로 덩굴었다.

와야야 흠어지던 처녀들의 입에서 《백곰이야!》 하는 소리와 함께 까르르 폭소가 터지고 사방에서 우스개소리가 연발되였다. 식당에서 나오던 어떤 익살군은 우유통까지 두드려대며 《호하하》하고 쓸개빠진 웃음을 터뜨렸다. 찬물을 뒤집어쓴 범식의 동복깃에는 삽시에 얼음버께가 앉았다.

간밤의 추위에 수도관이 얼어 터졌는데 처녀들이 만년대계의 콩크리트혼합물에 흐린 물을 쓸수 없다면서 맑은 물을 길어오고 있었던것이다.

이런 사실을 잘 아는 범식은 지지벌개진 얼굴로 넘어졌던 처녀에게 거듭 사죄하고는 초소막으로 내뺐다. 뒤에서는 웃음소리가 더 크게 터졌다. 초소막앞에 와서야 범식은 익살군들에게 주먹을 내흔들었다.

림시로 지은 기계화중대 초소막은 기초를 다칠 때 쓰던 휘틀로 만든 집이였다. 비록 세멘트더밀기가 다닥다닥하지만 거기에는 언제나 화로가 시뻘겋게 달아있었고 더운물이 필필 끓고있었다.

와닥닥 초소막에 뛰여든 범식은 자동전화기를 찾아들고 번호판을 돌렸다. 한참 애를 썼으나 기술부참모장의 전화기는 걸리지 않았다. 범식은 그제야 불이 꺼져가는 화로와 어둑스레한 구석에 누워있는 사람을 보았다. 병사 외투로 머리를 감싼걸 보니 밤교대를 마친 친구가 집으로 가지 않고 드러누운것 같았다.

《예익, 이 께보야, 불이 죽는줄도 모르구... 감기에 걸리면 어찌자구 그래?》

범식은 새우잠을 자는 친구의 엉덩이를 발뒤축으로 툭 차주고는 화로에 석탄을 퍼넣었다. 잠자 던 친구가 구새먹은 기침을 경청하면서 물었다.

《음... 추레라가 왔어?》

《응.》

《굴착기를 신고갔나?》

《아니, 그냥 돌려보냈어》

《어째, 왜 그랬나?》

누워있던 친구가 벌떡 일어나 앉는것 같았다. 그러나 차범식은 등을 돌린채 불갈구리를 찾아들고 화로에서 재를 떨어내기 시작했다. 불판에서 쇠가 굵

히는 아츠러운 소리가 신경을 자극했던지 누워 있던 친구는 늙은이처럼 잔소리를 했다그러나 차범식은 등을 돌린채 불갈구리를 찾아들고 화로에서 재를 떨어내기 시작했다.

《휴-꽤나 먼지를 피울 잡도리군.》

《체, 불을 죽여놓구두 무슨 말이 많아. 감기약이나 한포대 먹으라구, 듣기 싫게 코맹맹이 령감소리를 하지 말구.》

《추레라는 왜 돌려보냈나?》

범식은 갑자기 귀가 먹은체했다. 그랬더니 잇새로 내뱉는 회초리같은 소리가 뒤통수를 후려쳤다.

《여, 자네 굴착기는 여기서 할 일을 다했는데 왜 다른곳으로 가지 않고 버티고있어.》

《차! 이거야 원, 기둥은 그래 자네 그 쇠꼬챙이만한 손으로 세우...》 어처구니없어 대답하며 범식은 얼굴을 들었다. 뜻밖에도 교대운전수가 아니라 기술부참모장이었다. 범식은 벌떡 일어섰다. 때마침 파들거리며 피어나는 화로의 불빛이 김계필의 얼굴을 얼룩얼룩 비쳤다. 그래서인지 잠을 자지 못해 피말이 선 그의 눈에는 알릴듯말듯한 불안이 어려있는것 같았다.

범식은 주눅이 들어서 떠듬거렸다.

《물랐습니다. 기술부참모장동진줄을... 량해하십시오. 여기 내려와 계신줄 모르고 전화로 말씀드리자고 했습니다. 우리 굴착기를 철수시키면 여기 기둥세우는 일은 어떻게 됩니까?》

범식은 집게눈을 하고 엄하게 마주보기만 하는 김계필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나 귀를 강구었다. 하지만 그는 고통스레 얼굴을 찡그릴뿐 말이 없었다.

범식은 수세미오이처럼 온통 주름투성이로 변한 그의 낯에 비끼는 심증을 엿볼수 있었다. 그의 표정은 이렇게 말하는것 같았다.

《옳은 대책을 세울 사람은 네가 아니라 나란말이다. 뭘 안다구 주제님께 참견인가...》

몇초동안 가만히 서서 상대방의 동정을 살피던 범식은 그제야 방금전에 뒤집어쓴 찬물이 목덜미에 스며드는것을 선풍 감촉하고 어깨를 으쓱 떨었다.

범식은 오한을 느끼며 침착히 말을 이었다.

《여기서는 한교대에 기둥을 겨우 하나씩 세웁니다. 이래가지고는 조업을 앞당기지 못해요. 저는 많이 생각해보았습니다. 어째서 실패했는지 우리 굴착기에 붙였던 기둥기를 설계도면을 보고 싶습니다.》

《뭐? 그건 자네 알바가 아니네.》

《나는 그저 우리 굴착기에 기둥기팔을 달라고 해서 달았고 들라고 해서 기둥을 들다가 실패했지요. 내가 뭐 <로보트>입니까? 굴착기운전공도 자기가 한 일이 왜 잘못됐는지 알아야 할께 아닙니까?》

《흥, 누군 조급하지 않나? 제가 알아서 뭐 용뿔 재간이나 있는줄 알아.》

김계필은 그의 말을 들으면서 젊은 친구의 인격을 존중해주는 의미에서 건성으로 고개만 끄떡이었으나 속으로는 딴 생각을 하고있었다.

《시간이 없네, 시간이 없어. 누군 뭐 다시 시험해 보기 싫어 그러나? 다시 기둥기팔을 고치느라고 꾸물거릴 사이면 화력발전소건설장에 나가있는 기계들을 이쪽으로 기동시키고도 남을것이 아닌가? 이런 타산에서 굴착기를 빼돌리자 했는데... 자네가 뭘 알아 엇서긴 엇서? 엉? 제길.》

화로에 기름걸레가 들어갔던지 불길이가 확 일어나면서 시꺼먼 연기가 물씬 나왔다.

김계필은 화로곁에 쭈그리고 앉아 손을 썩썩 비비며 불을 켜다가 품속에서 안경을 꺼내어 옷깃으로 문대기도 하면서 안절부절 못했다.

범식은 그의 불쑥하게 패인 두볼에서 시선을 땔수 없었다.

《화력발전소 건설장에서도 지금 기둥을 세운다는데 그 기둥 빼오면...》

《여, 이거야, 자네가 기술부참모장이나 내가 참모장이나? 그건 내가 알아서 처리할게 아닌가? 원.》

김계필은 추레라를 돌려보낸 범식의 처사에 속이 뒤틀려서 이렇게 큰소리로 장담했으나 기실 자기도 화력발전소건설장의 기계를 빼낼수 있는가에 대하여 파악이 없었다. (그러나 별수가 있나, 한번 견줘 볼밖엔...)

범식은 계필이가 생각하고있는 속대사를 알아맞히기라도 한듯 빙긋이 웃으며 출입문을 활짝 열었다. 기름걸레가 타는 냄새가 기술부참모장의 생각을 흐리터분하게 하는것 같았기때문이다. 문을 열자 밖에서 기다린것처럼 눈보라가 휘몰아쳐 들어와 김계필의 얼굴에 들썩워졌다. 계필은 생신한 공기에 미처 습관되지 못한 첫머리아기처럼 숨이 막혀 헉헉거렸다. 그는 결코 뛰어난 건강체가 아니었다. 하지만 그는 가슴을 짝 벌리고 범식을 돌아보았다. 순간 이쪽을 지켜보는 범식의 시선과 부딪쳤다. 김계필이는 유심히 자기를 보는 범식의 눈에서 새로운 대답을 기다리는 너무나도 천진한 그의 마음을 보았다. 그러나 뒤이어 자기가 설계한 기둥기팔도면이 떠오르면서 거기에 그 어진 선과 선들의 교차점에 박힌 무수한 점들이 확대되어 알수 없는 의문부호를 그리며 흑진주처럼 반짝이는것 같았다.

(할수 없지. 좀 고통스럽더라도, 저도 내 처지가 되면...)

김계필은 범식의 마음을 너무 무시한것이 미안해서 쓸쓸한 어조로 말했다.

《나도 설계를 열번이나 검토해보았네.》

《설계의 결함은 뭐니까?》

《알수 없어, 알수 없어. 그러나 명백한건 제일 성능좋은 자네의 굴착기에 달고 두번이나 시험해도 기

등을 세우는데 성공 못했다는거네.》

《다시 세번째로 검토해주시수 없습니까? 부탁입니다.》

김제필은 부탁이라는 범식의 말이 가슴에 파고 들어서 우뚝 일어섰다.

《성사 못한 기증기팔에 미련을 가지지 말게. 내 일이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고맙네만 시간이 없네. 래일 추레라를 다시 보낼테니 6호구역으로 옮겨앉게. 두번다시 상부의 지시를 받아몰지 않으면 큰코 다칠줄 알게. 문제를 세우겠어, 알아들었나?》

김제필은 짜증을 내며 손을 내흔들었다.

《예, 그러나 저는 실패의 원인을 모르면서 그런 일이 없었던것처럼 물러선다는것이 리해되지 않습니다. 혹시 다른 이유가 작용하기때문이 아닙니까?》

《무슨 당돌한 소릴?!》

김제필은 발작 성을 냈다. 남에게 엿보이고 싶지 않은 아픈 구석을 범식이가 건드렸던것이다.

김제필은 뻥해 서있는 범식이를 방에 남기고 문밖으로 나갔다.

범식은 등이 구부정해서 걸어가는 그의 뒤를 따랐다.

앞에서 부채를 실은 자동차가 서서히 가고있었다.

범식은 힘과 속도를 더 크게 하려고 뒤바퀴에 사슬을 씌운 자동차가 한심하게 늙은 소처럼 뚱기적거리며 달리는것 같았다.

분주히 오고가는 건설자들이 기술부참모장과 범식을 따라서거나 혹은 툭툭 다치며 걸음을 재촉한다.

어디선가 얼음보숭이를 뒤집어쓴것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얼어터진 수도관을 말끔히 교체했다고 김제필에게 입은 떼는데 또 다른 청년이 그의 팔을 흔들어대면서 부채휘둘을 성공했다고 웃어 댔다.

(예, 다들 성공인데 나만 쫓겨가야 하는군. 예.) 범식은 자기에겐 너무나도 상관없는 말들이었으나 매마디마다 자기의 가슴을 찌르는듯 얼굴을 찡그렸다.

건설기계들의 용쓰는 소리, 방충차의 음악소리, 호각소리, 권양기의 까르릉거리는 소리, 자동차의 경적소리, 철관이 부딪치는 소리, 사람들의 웃음소리, 웨침소리, 그 모든 음향들을 범상하게만 들어오던 그였으나 오늘은 두눈을 내리뜨고 아무 일도 없는듯 묵묵히 걷는 기술부참모장이 너무나 이상스러워 범식이는 흘끗흘끗 옆을 돌아보았다.

(에이, 시험에 실패하고도 마음이 편한한 모양이지. 남들은 날고뛰는데 굼벵이걸음을 하면서도...)

범식은 말 못하는 속을 혼자 끙끙 앓았다.

이때 김제필의 손짓에 옆으로 지나가던 화물차가 급정거하는것이 보였다. 운전칸에서 키가 담장우의 갈대마냥 멀썩한 시공지도원이 경충 뛰어내렸다. 시공지도원은 싸움을 즐기는 수탉처럼 목대가 뻗뻗해

서 화력발전소건설장 다녀온 이야기를 주어섬겼다.

《안된다구, 뭐? 쏘소. 무슨 트집이요? 내가 직접 지휘부에 제기하겠소. 제길, 웬 날씨가 이래, 일기에 보는 오늘부터 날이 풀리겠다구 했는데 점점 더 살을 어이는군, 도처에 우등불을 피우시오, 로동자들의 말이 얼겠소.》

시공지도원의 말에 얼굴이 삽시에 컴컴해진 김제필은 몇마디 말로 시공지도원의 긴 사설을 툭 잘라버리고는 한손을 핵 저으며 돌아서버렸다. 그러자 시공지도원은 피발이 선 기술부참모장의 눈을 흘끔 쳐다보고 시무룩해서 중얼거렸다.

《좀 눈을 붙이십시오, 며칠째 밤을 밝히고고... 내가 돌아올동안 초소막에서 좀 눈을 붙이겠다구 하구선 떠난지 한시간도 안됐는데...》

《여보. 거 쓸데없는 사설은 말고 기동세우는 작업에 끝끝한 로력을 더 들이미오.》

김제필은 무뚝뚝하게 한마디 하고는 앞으로 걸어 나갔다.

《여, 거 기동세우는 동무들한테 우유를 뜨끈히 데워주라구. 그리구 불도 많이 피워주구, 예이.》

몇발 건다가 또 걸음을 멈춘 기술부참모장의 말에 범식은 마음이 삽시에 몽클해왔다.

기계에 하려던 일이 실패하여 로동자들을 동원시켜 기동을 세우게 한 지금에 와서 참모장은 얼마나 가슴아파하고있는가? 얼마나 마음에 걸리면 저다니나... 방금까지만도 기술부참모장을 고깝게 생각하던 범식의 마음은 봄눈처럼 일시에 녹아 버렸다. 범식은 것처럼 안타까와하는 기술부참모장을 조금이라도 돕지 않고 허수아비처럼 시키는 일만 하다가 지금은 원망만 해대는 자신이 너무나도 민망스러웠다.

(난 어떻게 하면 기술부참모장동지를 도와서 기계를 성공시킬수 있을까?...)

범식의 눈앞엔 것처럼 침착하게 설계도를 그려가던 기술부참모장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리고 것처럼 조심스럽게 시험을 진행하던 그 모습도 안겨 왔다. 그런데 그렇게 책임성이 높은 그의 창안이 실패하지 않았는가? 정말 알수 없었다.

이렇게 생각을 몰아가던 범식의 입에서는 이런 말이 또 불쑥 튀어나왔다.

《기술부참모장동지, 기증기팔 설계를 보여줄수 없습니까.》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간 당돌한 요구에 범식은 흐릿 몸을 떨었다

김제필은 돌아섰다.

그의 피발이 선 눈엔 저으기 피로가 어려있었다.

이윽고 오무라든 그의 입가에서 뜯김이 날리는것 같더니 석쇄한 소리가 측근히 흘러나왔다.

《거 뭐 볼게 있다구 그러나. 되지도 않은걸 가지

구.》

범식은 등글고 솟된 얼굴에서 당황한 빛을 애써 감추며 대답했다.

《아닙니다. 거, 뭐 제가… 좀 학습이 될가 해서. 우리가 공장대학에서 지금 배우는 과목이 설계인데…》

이렇게 증언부연 이어대는 범식은 무심결에 흘러 나온 거짓말에 얼굴을 화락 붉혔다.

《음, 대학에서 배운다구… 정 소원이라면 저녁에 오게나. 내 방으로…》

김계필은 검질기게 성화를 먹이는 리유를 그제야 알겠다는듯이 머리를 설레설레 저으며 털모자의 귀덮개를 내렸다. 그리고 사이를 두었다가 뜨직뜨직 말을 이었다.

《자넨 지금 공장대학졸업반이던가?》

《예.》

김계필은 알만하다는듯이 턱을 주걱거리며 발을 뺐다.

복잡한 건설의 소음속에서 이 하루해는 얼음우로 미끄러가듯이 빨리도 서산에 저물었다.

범식은 건설지휘부 기술부참모장실로 갔다. 한 시간나마 기다려서야 얼핏 자기 사무실에 들어온 김계필은 범식에게 설계를 내주고는 범에게 쫓기기나 한 듯 앓을새도 없이 현장으로 나갔다.

언제나 그렇듯이 사무실은 텅 비어있었다.

《예, <맥두> 예, 또 계란두 받았습시다. 뭐, 만족합니다, 버썩 힘이 난답니다, 예…》

젊은 간벽을 뚫고 후방과가 자리잡은 건너방에서 맥주를 <맥두>라고 웅웁 고아대면서 전화를 거는 계사니청같은 소리만이 느닷없이 들려올뿐이 었다. 얼마후 그 계사니청도 없어지고 널판자로 칸을 막은 옆방에서 새벽교대로 나갈 노동자들의 코고는 소리만이 절주있게 들려왔다.

(야, 우리 시험이 성공했다면 저렇게 새벽교대를 하지 않고도 하루에 12개는 문제없을텐데, 젠장.)

범식은 마치 자신이 무슨 죄를 지은듯이 코고는 소리에 가슴조였다.

범식은 굴착기에 설치한 기중기팔 설계도를 펼쳐 들고 한자한자 파고들었다. 주로 력학계산을 다시 검토해나갔다.

인젠 그의 귀엔 들끓는 건설장의 정다운 소음도, 푸푸하던 열망의 코고는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모든 신경세포는 가로세로 줄이 간 자그마한 종이장에 집중되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계산한 종이장들이 두리 워지자 그도 퍼그나 지쳐버렸다. 눈앞이 가물거릴 때마다 장단을 맞춰 코고는 소리가 다시 귀전을 부드럽게 쓸어주고 눈시울이 저울들을 달아맨 것처럼 무거워졌다.

그래서인지 바르르 떨리는 문풍지소리까지 머리 속에 스며드는것 같았다. 그 문풍지소리는 여름밤의 풀벌레울음처럼 적막감을 주기도 하고 도간도간 락업을 때리는 비방울소리처럼 들리기도 하였다.

범식은 노곤해서 깜박 졸고있었다. 누군가 잔등을 어루만지는 손길에 눈을 뜨니 김계필이가 시름겨운 인상으로 양털동복을 덮어주고있었다.

범식은 휘즐근해서 일어섰다.

《인젠 집에 가서 좀 눈을 붙이는게 어때?》

김계필은 이렇게 말하면서 범식이가 계산한 종이장들을 주르르 번져보기 시작했다. 그러는 사이에 범식은 밖으로 뛰쳐나가 눈을 움켜쥐고 얼굴을 비볐다. 정신이 버쩍들어 머리를 쳐드니 불야경을 이룬 건설장이 눈앞으로 다가서는데 창백한 달은 살을 에이는듯한 차디찬 공간속에서 외롭게 펴고 있었다.

범식은 발길이 닿는대로 내달렸다. 한참 뽕박질하다가 맥주라고 쓴, 살수차의 물탱크처럼 생긴 적재함에 등을 기대며 헐떡거렸다. 졸음을 멀리 쫓아 보내니 막 힘이 솟는것 같았다.

신명스러운 공기를 게걸스럽게 마시는 범식의 앞으로 구부정한 사람이 다가와서 턱 마주섰다.

김계필이었다. 그는 범식의 동복을 들고 나오다가 한참 뽕박질하는 그를 지켜보는것이였다. 김계필의 마음은 눈발으로 뛰여다니는 범식이로 하여 자못 흥분해있었다. 젊은 친구처럼 뛰고싶은 충동이, 뛰지 않으면 무엇인가 놓칠것만 같은 위구심이 그의 마음 조였다.

김계필은 새로운 충동으로 하여 안주머니에 손을 넣어 무엇인가 꺼내면서 물었다.

《저 어때 계산하기가 힘들지?》

《예, 그러나 끝까지 해보겠어요.》

《자, 받으라구. 아까 내가 잊었어. 아니 오늘밤은 자네와 같이 보내겠네. 일이 바쁘다구 그새 자네 실력이 어떤지 들여다 못봐서 안됐네.》

로숙한 기술일군이 손아래서 자라는 햇내기에게 실패한 설계도면을 보이는게 어떠해서 하는 말인것 같았다.

범식은 그가 손에 꼭 쥐여주는것을 보았다. 그것은 수첩처럼 생긴 호주머니용 컴퓨터였다.

어깨나란히 다시 방안에 들어온 두사람은 책상에 마주앉아 기중기팔설계도면을 검토해나갔다. 친혈육처럼 오손도손 하나하나 묻고 따지며 대답하며 웃었다.

범식은 될수록 질문을 많이 했고 김계필은 이것이 절호의 기회라고 하나를 통하여 열가지 지식을 주려고 애를 썼다.

새벽이 다가오느라고 유리창에 마지막 어둠이 짙게 드리웠을 때야 두사람은 하던 일을 끝내고 마주 보았다.

범식의 눈에서 불꽃이 이는것 같았다.

김계필은 마음의 진통을 모르는 사람처럼 한량없이 선한 기색으로 범상히 물었다.

《그래 어떠냐? 너의 공부에 도움이 됨죽하냐?》

불현듯 김계필은 이렇게 말하다 말고 깜짝 놀랐다. 범식의 눈에서 확 일어나던 불꽃이 한줄기로 영채를 뿜는것을 보아냈던것이다.

범식은 량미간을 쪽 찌며 흥분해서 말했다.

《설계는 틀림없습니다. 저는 이걸 확인하고싶었어요.》

김계필은 화색이 도는 젊은 친구의 얼굴을 미더운 눈길로 넘겨다보았다. 범식은 그 눈길에 튕기듯 벌떡 일어서서 기쁜 소리를 했다.

《정확합니다. 틀림없어요. 실패의 원인은 나한테 있었어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인가?》

《아, 모르겠습니까? 내 말을... 우리 굴착기에 원인이 있단말이에요. 매번 점검했었지만 뭔가 놓쳤어요. 틀림없어요. 결함은 나에게 있어.》

범식은 눈깜박할사이에 결상을 차며 바람처럼 사라졌다.

김계필은 어안이 병병하여 일어서다가 그냥 주저앉았다.

《아니다. 저 애는 나를 위안하려고 저러는거다. 나의 설계에는 아직 미묘한 문제가 있다. 즉 아직 내가 발견 못한것이다. 굴착기... 저 애는 우리 건설장의 기능공중에서도 그중 이름있는 굴착기운전공이 아닌가? 며칠전에 있는 건설사업소 기계 성능 검사때에도 그의 굴착기가 일등으로 평가받았지...》

김계필의 눈앞에는 그날 성능검사서서 단연 우승을 쟁취한 범식이가 자기 굴착기에 달아놓은 붉은 꽃을 보고 어린애들처럼 좋아 병실대던 모습이 떠올랐다.

김계필은 저도 몰래 다시 설계도면에 눈을 박고 까딱 움직이지 않는다. 언제까지나 그렇게 굳어져 있을것만 같았다. 난방증기관에서 공기총을 쏘는듯한 소리가 고막을 찢었지만 꿈쩍하지도 않았다.

희뽁히 날이 밝았다.

범식이가 나간지 한시간은 심히 지났다. 딱딱하는 소리와 함께 난방증기압이 높아지는것 같더니 방안이 훈훈해지고 푸릿한 유리창에 땀방울처럼 물기가 돋기 시작했다.

갑자기 폭풍치듯 문이 열리고 옷동을 벗어제낀 범식이가 들이닥쳤다. 흰 성애가 내뿜은 얼굴에서는 화색이 넘쳐 흘렀다.

김계필은 놀라는 기색도 없이 앉은자리에서 디젤유가 번지르한 범식의 두주먹을 보았다. 그는 범식이가 뭘하고 왔는가를 짐작하고 진정으로 사랑을 담아 말했다.

《거 쓸데없는 고생을 말고 어서 몸이나 녹여라.》

이 한마디가 마치 팔굽의 격철을 떨구기라도 한것처럼 범식의 바른 주먹이 책상우에 있는 제 양털모자에 떨어졌다. 꺾히는 바람새는 소리와 함께 양털모자는 그자리에서 쭈그러들었다. 범식은 그것을 집어들고 다시 부풀게 하면서 허아래소리로 말했다.

《나는 방금 동무들과 함께 굴착기기관들을 뜯어보았어요.》

《?》

범식은 더는 못참겠다는듯이 기빠소리쳤다.

《드디어 발견했어요. 원심뿔프에 병이 들었더군요.》

《모를 말이다. 원심뿔프는 전번 점검때 다 검사했잖는가.》

《아참, 걸만 봐서는 편편한데 고놈의 병집이 안에서 좀먹기 시작했더군요. 굴착기에 보통 압력을 받을 때는 증세가 나타나지 않다가 더 큰 압력을 받으니 슬그머니 제 본색을 드러내더라말입니다. 그래도 굴착기문제는 어느 간부동지보다 우리 운전공들이 더 잘 알아요. 실패한건 다 내 결함이에요.》 범식이는 언젠가 자기 기대가 우승을 하였다고 기뻐하던 그 표정으로 말을 마치고는 아이들처럼 병글거렸다.

창밖에서 무엇인가 철썩 떨어졌다. 처마끝에 매달렸던 고드름인지 아니면 증기관우에 얼어붙었던 눈덩이일것이다.

김계필의 눈은 도수안경너머로 불이 환히 켜진것 같았다. 그는 담배를 피워물었다. 몇모금 빨다가 떨리는 손으로 담배불을 비벼졌다. 그리고 일어섰다. 무심결에 안경을 벗었다 다시 쓰고 범식이 얼굴을 여겨보았다. 마치나 거기에서 또 다른 표정을 찾으려듯...

(정말인가? 그래 틀림없다구. 그런데 어찌하여 범식은 자기의 결함을 밝혀냈을 저처럼 행복스레 웨칠수 있단말인가...)

《기술부참모장동지, 저 미안합니다. 제가 책임적으로 기계를 돌보지 않아서 시험에 것처럼 곤난을... 정말 면목이 흑.》 범식이는 자기를 지켜보는 기술부참모장의 초점흐린 눈길에서 실패로부터 오는 고뇌를 헤아려보고는 가슴아프게 자기를 반성하다가 끝내 울음을 터놓는다.

《용서하십시오. 절 용서하십시오. 다시는...》

뒤이어 울리는 범식이의 흐느낌 섞인 녀두리를 들으며 김계필은 심장을 찌르는듯하여 몸둘바를 몰랐다. 하여 김계필은 가슴에 단 쇠꼬챙이가 꿰찌르는것 같아서 심장우에 손을 얹고 창가로 다가갔다. (내가 그에게 무슨 말을 할수 있는가? 무슨 말을...)

《기술부참모장동지, 제가 인차 원심뿔프를 교체하겠습니다. 동무들이 기다립니다. 저의 굴착기가 다시 시험에 참가하도록 허락해주십시오.》 범식이

의 절절한 목소리는 조용히 가슴벽을 친다.

김계필은 으스스 몸을 떨었다. 그는 자기가 이제 무슨 말을 하면 범식이의 이 물음에 대답이 될것인가를 알지 못했다.

(아, 누구를 용서하여야 하는가? 범식이를? 그에게 무슨 죄가 있는가? 그는 시험에서 걸린 근본고리를 찾아주었다...) 김계필은 저러오는 가슴을 두손으로 움켜쥐었다.

(시험을 중단한것은 나였다. 건설속도를 지연시킨것도 나였다. 그럼 왜서 그랬던가? 무엇때문에...)

김계필은 이렇게 자문하며 답답해오는 가슴을 풀양으로 창문을 활짝 열어젖혔다. 언제부터 내렸는지 소리없이 내리던 보송보송한 함박눈꽃이 열어놓은 창문으로 날아들어 얼굴을 간지럽히며 사뿐히 내려앉았다가는 작은 수은방울 같은 이슬이 되어 도르르 굴러내린다. 안경이 흐려진다. 시뽀엿게... 안경을 벗어 손수건으로 문지르고 다시 썼다. 그래도 인차 또 흐려진다. 더운 공기와 찬바람이 안경유리를 흐리게 한줄 알았는데 아니었다. 눈기슭은 또 축축히 흐려든다.

김계필이는 바로 어제아침만 하여도 것처럼 정당하게 울려오던 자기의 목소리가 이토록 부끄럽고 떳떳하지 못하게 생각되는것이 안타까웠다.

(나는 까닭모를 실패로부터 오는 후파를 두려워했었다. 그리고 또 그에 따르는 명예의 손상도...)

때문에 계필이는 아직 큰 소문이 없을 때 아예 없었던것처럼 수습하려 하였던것이다. 이래야 우에서의 책임추궁을 면하고 아래 일군을 지도하는데 날이 선다고 생각했던것이다. 계필이는 깊은 자책에 빠졌다. 그는 자기의 이 마음을 것처럼 순결한 범식이 앞에 내놓지 못하는게 죄스러웠다. 그러나 범식이가 자기의 마음을 들여다보지 못한것이 오히려 다행한 일로 생각되기도 했다.

김계필은 자기의 자그마한 과오때문에 그토록 자책으로 모대기며 자기의 부족점을 찾은것으로 하여 그토록 기쁨을 느끼는 범식이의 깨끗한 뒤통에 자기의 흐려진 가슴을 비쳐보며 뜨거운것을 삼켰다.

《기술부참모장동지, 빨리 시작해봅시다. 오늘부터라도 건설속도가 버쩍 높아질것입니다. 안심하십시오. 네?!》

어느결에 다가온 범식이가 김계필의 팔소매를 조용히 만지작거린다. 그것은 마치 잘못을 저지른 아이가 어머니의 치마꼬리를 잡고 응석을 부리는것과 류사하였다. 김계필은 억제할수 없는 걱정애 몸을 말기고 범식이의 탄력있는 어깨를 부여잡았다.

《범식이, 용서하게. 용서를 받을 사람은 자네가 아

니라 나야, 나...》

범식은 너무나도 돌연적인 포옹에 어리둥절해서 김계필의 희긋희긋한 귀밑머리를 덤덤히 쳐다보았다. (아니, 내가 왜 이러고만 있는가? 그렇지 않아도 건설이 얼마나 지연되었는가?... 빨리 시험을 다시해야 한다. 오늘이라도 고속도 기계화설비를 완성하여 <80년대속도>로 내달리는 장엄한 건설대오속에서 발걸음을 맞춰야 할게 아닌가?!)

김계필은 마음을 다잡고 돌아섰다.

《자, 범식이, 또 가봅세. 오늘은 기어코 성공하세. 응.》

《넷, 알았습니다. 기술부참모장동지.》

범식이는 김계필의 말에 온몸의 힘이 약동함을 느끼며 두발을 착 붙여 인사를 하고는 익살스런 웃음을 터뜨리며 달려나갔다.

《야, 백곰이다. 하하.》

열어놓은 창문으로 처녀들의 경쾌한 웃음소리가 날아들어온다. 김계필은 무심중 시계를 내려다보았다. 은빛 초침은 7시를 가리켰다. 거창한 건설장의 아침은 또 밝아온것이다. 김계필은 기계적으로 시계에 태엽을 정성껏 주고는 벽에 걸린 솜모자를 베꼈다.

《기술부참모장동지, 저 생산지휘부에서 화력발전 소기중기를 몇대 요구하는가 물어왔습니다.》

털썩하고 들어서던 시공지도원의 묻는 말이다.

《거 필요없다구 하오. 거기다 바쁘겠는데.》

《예?》 기술부참모장의 지시를 적으려고 수첩을 펼쳐들던 시공지도원은 너무 뜻밖의 대답해 깜짝 놀라 눈섭을 추켜올렸다.

《저 오늘 시험을 계속하오. 빨리 준비하십시오.》

《네-》 그제야 깨달았는지 대답을 길게 내뿜던 키가 정중한 시공지도원은 반가운 웃음을 씩 웃는다. 《자, 갑시다.》 김계필은 건설장을 한결 깨끗하게 덮어주는 흰눈에 큰 발자국을 남기며 《통일》호 굴착기가 있는곳으로 향해 성큼성큼 걸어갔다. 소담스레 대지에 깔린 이 함박눈이 녹으면 방은 부풀고 철의 기지에 불안개 흐를것이다.

그날 저녁,

들끓는 공사장의 하늘엔 기동세우는 작업장에서 새 시험에 성공하여 하루에 하나씩 세우던 기동을 19개까지 세우게 되었다는 방송원처녀의 랭랭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건설장의 처녀들은 범식이의 마주쳐서 넘어졌던 그 처녀가 누구보다도 기뻐한다는 소문을 내면서 《80년대속도》창조를 위한 투쟁에서 앞장에 선 총각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날은 햇빛도 유난히 따사로웠다.

우리 김철대대는 제 3 강철직장 3 호전기로 연속 조피빋트공사를 하고있었다. 오늘 밤까지면 공사를 앞당겨끝내게 된다. 그러니 모두들 성수가 나지 않을수 없다.

나는 점심시간이 다 돼오는줄도 모르고 콩크리트 다짐봉을 열심히 들었다놓았다하면서 조피빋트의 벽체를 다져나갔다.

그런데 이때 갑자기 저쪽 숙보판들이 서있는 큰 길가에서 사람들이 술렁거리는것 같았다. 나와 짝패가 되어 다짐작업을 하던 주근깨투성이 처녀가 두손바닥을 짹 마주치면서 《아이, 저 동무가 어찌 된 일이야?!》 하고 사람들쪽을 쳐다보아서야 나도 허리를 펴고 그쪽에 눈길을 주었다.

《왜들 저러우? 누구요?》 내가 물었다. 그러자 나의 《짝패》는 이제처럼 또 한번 손뼉을 멋들어지게 마주치고나서 자신만만하게 말했다.

《아이참, 그것두 아직 몰라요? 1 중대에서 시집장가가는 동무들말이에요. 결혼식하러 가기전에 말썽을 부리지 않았어요. 가겠소, 안가겠소 하구 말이예요...》

《아- 아! 알만하우!》 나는 고개를 크게 끄덕였다. 나도 그들에 대해서 알고있는것이 있었다. 아니 내가 그들에 대해서 더 잘 안다고 해야 될것이다.

그것은 바로 나홀전 일이었다. 그날 나는 숙보원고를 가지고 대대정치부에 갔다가 조만해서는 성을 낼줄 모르는 대대정치지도원동무의 흥분된 얼굴을 보게 되었다. 그의 앞에는 1 중대 용접공인 제대군인 리명수동무와 그의 약혼녀인 기중기운전공 김명희동무가 고개를 깊이 수그리고 서있었다.

《됐소, 장동무, 그 원고는 거기다 놓구 가보우. 나가는길에 우리 아궁이를 좀 보아줍소. 내 이 사람들 하구 싸움할래기 불도 미쳐 보지 못했소. 허나 내 끝끝내 이 사람들을 이기고야말겠소. 장동무가 내 대신 좀 수고해주오.》 하고 눈섭이 진한 정치지도원은 몽툰한 코끝을 공연히 쥐었다놓으면서 나에게 부탁했다.

나는 그의 부탁대로 불아궁이를 보아주기 시작했다. 나는 될수록 안에서 하고있는 대대정치지도원의 사업을 방해하지 않으려고 불갈구리를 조심조심 놀리면서 재를 털어내고 석탄을 넣기 시작했다. 그러다나니 어쩔수없이 방 안에서 울려나오는 목소리를 듣게 되었다.

《...정치지도원동지, 그렇게 막아버리지만 말구 저

희들의 심정두 좀 리해해주십시오. 3 강철직장건설을 앞당겨끝내기도전에 결혼식부터 하면 되겠습니까? ...

아버이수령님께서서는 바로 우리같은 청년들을 민구 5 개지구전선을 맡겨주시였는데...》

약혼녀를 대신해서 하소연하는 용접공 리명수의 절절한 목소리가 채 끝나기도전에 대대정치지도원의 석싹한 목소리가 울려나왔다.

《됐소, 됐소!... 동무네들의 그 심정은 내 다 알만하우. 그건 정말 훌륭한거요. 암, 훌륭하구말구... 그런데 이복소 명수동무, 동무두 아다싶이 우리 대대만 해두 수백명이 넘소. 그중에서 잔치날을 받은 사람들은 동무네 하나요. 그래 잔치날을 아무사람이나 막 받는가? 일생에 한번밖에 없는 그런 뜻깊은 날을 제 마음대로 받는게 아니요. 그래 부모의 승인도 없이 잔치날을 제마음대로 뒤로 미루는 동무들을 도와주지 못하고서야 우리가 무슨 혁명동지이겠소. 여러말 말구 오늘 오전중으로 떠나오. 수속은 통계원동무가 다 해놓았을거구 도중 식사도 후방부지도원동무가 멋있게 준비해놓았을거요.》

그다음에 또다시 두 젊은이들의 목소리가, 말하자면 잔치날을 뒤로 미루고 계속 일을 하게 해달라는 목소리가 들려나오는것 같았다. 그러나 이제와 같이 단호한 정치지도원의 목소리가 그들의 목소리를 일축해버리곤했다.

그때 나는 정치지도원방의 불아궁이에 고열탄을 조심스럽게 퍼넣으면서 가슴이 뜨거웠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철강재를 원만히 생산보장하는것은 인민경제발전의 절박한 요구로 나서고있습니다.》

아버이수령님의 교시를 관철하기전에는 혁명초소를 떠나지 않겠다는 젊은이들의 충성심과 혈육처럼 사람들을 대하는 당일군의 참된 동지애가 나의 가슴에 불을 지폈던것이다.

...그렇게 떠나간 젊은이들이 사흘이 지나서 다시 건설장에 나타난것이다. 그러니 사람들이 술렁거리지 않을수 없다.

나도 다짐공처녀의 뒤를 쫓아서 사람들이 웅거해있는 큰길쪽으로 갔다. 그런데 거기에는 벌써 우리 정치지도원동무가 가있었고 그의 앞에는 내가 대대정치부에 숙보원고를 가지고 들어갔던 사흘전 그때처럼 용접공청년과 기중기운전공처녀가 서있었다. 그들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있었으며 어딘가 모르

게 수집음을 담고있었다.
 (저 사람들은 결혼식을 했구나!)
 나는 단번에 직감했다.
 이때 마침 정치지도원동무가 그들에게 물었다.
 《아니, 이거 어찌된 일이요? 떠나자마자 돌아오니...》

그 물음에 젊은 두사람은 마주 쳐다보았다. 다음 순간 용접공 리명수가 약간 계면쩍어하다가 입을 열었다.

《...저- 우리는 앓은 잔치를 했습니다.》
 와- 하고 목소가 터졌다. 앓은잔치라는 의미를 모르는 젊은 축들의 웃음이었다.
 정치지도원의 얼굴은 심각해졌다.
 《그래서?...》
 《그래서... 동무들하구 점심이나 한끼 같이 나누자구...》

또다시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그제야 나는 모든것을 짐작할수있었다.
 (...결혼식을 미루고서라도 일터에 남아있고싶은 간절한 마음. 그러나 정치지도원의 완강한 설복, 일터를 떠났지만 순간마다 그리워지는 동무들과 건설장에 대한 생각... 그리하여 그들은, 새서방은 새색시를 데리러 가고 새색시는 새서방을 따라가야 한다는 종래의 낡은 관습을 버리고 한곳에서 《앓은잔치》를 했을것이다. 그리고 식이 끝나자 마자 그길로 저렇게 달려들어왔을것이다...)

내가 이렇게 단정하고 서있는데 마침 저쪽 현장 진료소모퉁이에서 《갱생-근형》 환대가 천천히 벗어나서 거기서 너인 돌과 밤색모자를 쓴, 허리가 구부정한 사나이가 내리었다. 그들은 승용차의 뒤꽂무니에서 비닐방통이며 지함이며 흰보자기를 덮은 늙버치들을 내리었다.

...이리하여 련속조피빋트 지하구조물의 콘크리트를 타입하던 철관우에 우리 김철대대에서 처음으로 결합된 새서방, 새색시의 큰상이 펼쳐졌다.

나에게도 잔이 왔다. 묘한 꽃문양이 새겨지고 허리가 잘룩한 투명한 유리잔에는 큰상에 놓았던 인삼주가 찰랑거렸다.

《장아바이, 어서 들라요.》
 《어서 드십시오!》
 새서방 새색시는 내가 좌상이라고 나에게 먼저 잔을 권한다.

《장동무, 어서... 들소.》 하고 정치지도원동무가 은근한 목소리로 띠엎띠엎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무엇에 놀리운것처럼 목메인 소리였다.

나는 갑자기 목구멍에서 치솟아오르는 뜨거운것을 삼키며 천천히 잔을 내었다. 순간 목구멍에서부터 가슴으로, 가슴에서 명치끝 있는데까지 전류같은 것이 자르르 스며들었다.

전혀 생각지 않던 촉배였다.
 아늑한 방안도 아니고 손풍금소리도 없다. 새서방, 새색시의 가슴과 머리우에 꽃도 없으며 그들의 옆에는 둘러리도 없다, 그러나 나는 촉배를 들면서 것처럼 숨막힌 감정에 휩싸인적은 일찌기 없었다. 첫잔은 3강철직장의 조업을 위하여 들었고 둘째잔은 그들의 생남을 위하여 들었으며 세번째잔은 주체의 야금기지에서 영원한 그들의 행복을 위해 들었다.

20 대의 청춘기로부터 칠순이 넘은 나이에 이른 사람들에게는 누구에게나 촉배에 대한 추억이 있다.

내 나이도 이제는 오십을 대밑에 바라보는 중년 사나이여서 그동안 촉배도 헤아릴수없이 많이 들었다. 품이 넓은 병사제복을 타입고 입대를 축하해서 사발같은 잔을 들었던 그 시절부터 안해의 건강을 위하여, 가정의 행복을 위하여,대학동창생들의 상봉을 축하해서 들었으며 리상과 희망이 성취되기를 바라며 수많은 잔을 들었다.

그런데 오늘 나는 주체의 야금기지건설장인 여기 제 3 호 전로련속조피빋트의 채 굳어지지 않은 콘크리트우에 앉아서 주체의 첫 쇠물을 위하여 잔을 든다. 그렇다! 그것은 아버지수령님께서 몸소 펼쳐 주신 5개지구전선에서의 승리를 위하여 드는 촉배였으며 10대전망목표의 성과적인 점령을 위하여 드는 촉배였으며 그것은 또한 제 2 차 7개년계획의 마지막해를 앞당겨 점령하기 위한 촉배였다. 그래서 이 가슴이 이다지도 뜨거운것이 아니겠는가.

축로공의 기쁨

천 일 수

쌀알 한번 익혀못봐
 밥알 한번 붙여못본
 그 옛날 우리 집
 귀떨어진 가마

끓으면 멀건 죽물
 비끼면 부황난 얼굴
 만지면 그나마 때론

얼음같이 차던 가마

내 철없던 어린시절
허기진 배를 끌어안고
그 가마뚜껑을 열며
쌀밥도 비단옷도 나오느
전설속의 큰가마를 생각했더니

아, 내 꿈아닌 꿈으로
쌀이 되고 비단이 되고 기계가 되고
이 세상 모든것이 되어
쇠물 끓는 가마를 쌓는
보람찬 축로공이 되었노라

황철의 재무지에서
김철의 쑥밭에서
내 손으로 내 손으로 쌓은
거창한 용광로들이여
전기로들이여

그 기쁨에 기쁨을 더하며
내 동심의 나래 활짝 펴라고

오늘 또다시 어버이수령님 불러주신
600 만톤 강철기지를 마련하는
3 강철직장 전로의 로벅을 쌓거니

이게 어떤 사랑과 믿음인가
그 사랑 그 믿음에 어긋난다면
위대한 사랑의 의리를 저버린
그이의 전사 아닌 전사로
내 어찌 머리 들고 살수 있으랴

이런 때 피가 끓으라고
월미도영웅들이 3 일간을 지켜냈고
이런 때 힘이 용솟음치라고
그날의 락원의 열명 당원들이
걸음걸음 이끌어주거니

오, 조업의 그날을 앞당겨
나는 벽돌을 쌓노라
쇠물만이 아닌
온 나라 행복이 무르익을
전설속의 쇠물가마를!

호각소리

주 광 남

나도 몰라요 언제부터인지
제대군인 연공총각
하루종일 한마디 말은 없어도
수백번을 나와 이야기 나누는
그 호각소리
언제부터 귀에 익었는지

붉은기발 하얀기발 엇갈아 흔들며
길게도 짧게도, 세차게도 조용히도
그가 부는 호각소리
다정한 속삭임처럼 엄한 구령처럼
언제부터 속속들이 가려듣게 됐는지
그따라 내 마음 움직이게 됐는지

나도 몰라요 나도 몰라요
그 호각소리 잠시라도 살피는 마음
그러다가 언뜻 눈길 마주치면
왜 놀라서 흠칫 물러서게 되는지
가슴은 왜 그리 자꾸만 뛰는지

그렇건만 그는 아는지 모르는지
작업분공 끝난 뒤 휴게실에서도
호르륵- 불겠지요

나는 그만 흠칫 놀랄수밖에요
가슴속에서 방망이질 할수밖에요

저혼자 싹트고 자라는 마음을
눈치챘을가요 교관아바이
점심식사 끝내고 성급히 일어서는
내 귀에 대고 속삭이지요
-그 호각소리
그리도 빨리 듣고싶은가?

아이참, 어쩌면 좋아요
부끄러워 다소곳이 달려오른곳은
연공들 쳐다보는 기증기운전실
앉고보니 어쩐지 그 호각소리
그 호각소리 또 듣고 싶어지는걸

강철로의 아슬한 철탑우에서
칼바람 세차도 싱글빙글 웃으며
호르륵, 호르흑-그 총각 부르는 소리
왜 그런지 온몸에 힘이 솟아요
낮을 이어 밤에도 밤을 이어 낮에도
떠나잖고 듣고싶은 그 호각소리

시련을 뚫고

한 상 운

전쟁으로 폐허가 된 평양의 모습이 펼쳐진다.

설화

《전쟁의 참화로 하여 폐허로 된 우리의 수도 평양을 두고 미제야수들은 떠벌였다.

이 도시는 100년이 걸려도 영영 다시 일어서지 못할 것이라고... 그러나 위대한 수령님께서 펼쳐주신 수도건설의 원대한 구상을 따라 우리 인민은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간고한 건설의 나날 천리마대고조의 거세찬 진군속에서 우리의 평양은 비약의 날개를 펼치고 재가루를 털어버리며 거연히 솟아올랐으니 이 력사적변혁의 시기에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했던 혁명전사들속에는 한 건설일군도 있었다.》

무참하게 파괴된 평양 거리에서는 재가루만 날린다.

파괴된 대동강기슭

폭격으로 무너진 보통문이며 파괴된 건물들을 배경으로 전후복구로 들끓는 건설전투가 벌어진다.

힘차게 일해나가는 대학생들.

일떠서기 시작한 건물들이 엇갈려 나타난다.

여기에 영화제명이 새겨진다.

《시련을 뚫고》

홍부상실

창문가에서 신문을 보고있던 건설국장이 간부들 쪽을 돌아보며 말한다.

《하하, 드디어 우리 성에 새 상이 임명됐구만요. 자 보시우.》

4건설사업소 지배인이며 간부들이 신문을 들여다본다.

《최룡호? 아니 이게 누구요?》 4건설사업소 지배인이 이렇게 말하자

《아니 이 사람이 건설상이 댜단말이요? 지금까지 전기성 부상을 하댜는데.》

《웁소. 이 사람이 발전소 전공을 하던 사람이요.》 하면서 저마다 앞을 다투어 한마디씩 한다.

4건설사업소 지배인이 《상이 해임되더니 전기부문로동자가 건설을 지도한단말이요? 모를 일이다...》라고 말하는데 건설국장도 한마디하며 끼여 든다.

《아니 이 사람이 일 제끼는데 소문난것 모르오? 특히 과업을 준걸 받아내는데는 에누리라 없는 사람이란말이요.》

《호- 그 손탁에 들었다간...》 4건설사업소 지배

인이 다시 말을 잇는데 재정처장도 《하여간 뜻밖이요. 홍부상이 되리라는 소문이 돌았는데》 하고 의아하다는 얼굴로 고개를 기웃거린다.

이때 4건설사업소 지배인이 황급히 재정처장의 옆구리를 찌른다. 홍부상이 들어오는것을 본것이다.

방에 들어선 홍부상은 그들이 한 뒤소리를 못들은척하고 자기 자리로 간다. 그러자 4건설사업소 지배인이며 간부들이 서로 앞을 다투며 그에게 문건을 내민다.

《기다리게 해서 안됐소.》

《홍부상동지! 우리 사업소는 미장공을 좀 더 줘야겠습니다.》 4건설사업소 지배인이 먼저 말을 떼자 재정처장도 뒤질세라 끼여든다.

《우선 이 결재가 더 급합니다.》

《이것두 좀...》하고 건설국장도 문건을 내민다. 홍부상이 손을 들어 그들을 제지시킨다.

《어제 상동무가 새로 왔소. 이것들은 다 상이 결재할 문건들이요. 상과 토의하시오.》

《예? 아니 그럼 상동지는 언제 오십니까?》하고 4건설사업소 지배인이 묻자 홍부상은 자리에 앉으며 심드렁하니 대답한다.

《그건 나두 모르오.》

이때 전화종소리가 울린다. 홍부상이 수화기를 든다.

《예, 예 와있습니다. 4건설지배인동무!자-》하며 수화기를 넘겨준다.

4건설사업소 지배인은 무심코 전화를 받다가 와플 놀란다.

《예, 전화바꾸었습니다. 예?! 새로 부임하신 상동지이십니까? ... 예, 우리 사업소 현장에서요? 예, 곧 가겠습니다.》

4건설사업소 지배인은 수화기를 놓고 허겁지겁 나간다.

4건설사업소 현장

건설이 한창 진행되고있다.

발판으로 올라가던 작업복차림의 최룡호가 건설현장을 주의깊게 둘러본다.

로동자들의 기세는 높으나 낮은 방법으로 일한다. 등짐으로 벽돌을 가뜩 지고 발판우를 뛰어다니는 등 기계화된 모습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벽돌을 쌓아가던 작업반장이 제대군인복차림의 처녀에게 소리친다.

《자- 빨리빨리 합시다. 명희, 뭘해? 빨리 몰탈! ...》

명희가 몰탈을 섞겨주며 반장에게 조른다.
 《반장동무! 나두 한번 해볼래요.》
 《안돼, 그저 눈을 꼭 감구두 몰탈이 여기 와서 척
 척 붙게 돼야 된단말이야.》
 그래도 명희는 안타까이 부탁한다.
 《한번만 해보지요.》
 《안된다는데두.》

현장휴식장

룡호는 휴식하는 로동자들속에 섞이여 앉아있다.
 그는 로동자들에게 담배를 권하며 이야기한다.
 《동무들은 안타깝지 않소? 그렇게 벽돌을 한장씩
 쌓을게 아니라 만들어진 벽체를 척척 쌓으면 어떻
 소?》
 반장은 어이없다는듯이 낯선 손님을 뻔히 바라 보
 다가 입을 연다.
 《이사람이... 이거 꿈같은 소릴 하는구만. 여보 그
 려것없이 차라리 방 한칸씩 척척 쌓는게 어떨소?》
 놀리려드는 그의 말을 룡호는 거침없이 받아넘긴
 다.
 《그럼 더욱 좋지.》
 《하하... 대낮에 동서남북두 분간할줄 모른단말이
 야.》
 이때 여기로 지배인이 다가오는데 룡호의 소리가
 계속 들린다.
 《동문 우리 당 3차대회에서 건설분야에 무슨 과업
 이 제기됐는지 아오?》
 《영?》 금시 말문이 막히는 반장, 이때 지배인이
 룡호에게 다가와 은근한 태도로 머리를 숙이며 인사
 한다.
 《저 상동지십니까? 제가 지배인입니다.》
 《아 그렇소?!》
 룡호는 가볍게 대답하며 끄덕이는데 옆에 있던 반
 장이 놀라서 눈을 크게 뜬다.
 명희와 로동자들도 놀라서 일어서는데 룡호는 그
 들을 놀려맞힌다.
 《아이구, 상동지! 안됐습니다. 버릇때기없이...》
 반장이 송구한듯 몸돌바를 몰라하자 룡호는 소탈
 하게 웃으며 말한다.
 《아 일없소, 앉읍시다.》 로동자들이 자리에 앉자
 이야기를 다시 잇는 룡호. 그는 명희에게 묻는다.
 《처녀동무, 대답할수 있소?》
 명희는 자기를 향한 룡호의 눈길앞에 당황했으나
 어엿하게 일어서며 대답한다.
 《넛! 대답하겠습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
 서는 도시건설을 공업적방법으로 혁신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설계를 표준화하고 규격화해서 조립식방
 법을 다그치라구 가르쳐주셨습니다.》
 룡호의 얼굴이 흐뭇해진다.
 《웁소, 그래 동무네 기업소에서는 수령님께서 바

라시는 조립식방침을 어떻게 실천해가고있소?》
 그 물음에 지배인이 긴장하며 명희를 힐끔 쳐다
 본다.
 《예?!》 명희는 어쩐지 그 물음에는 선뜻 대답을
 못하고 지배인의 얼굴만 바라보며 망설인다.
 《일없소, 일없소. 말해보우.》
 룡호의 말에 힘을 얻은 명희는 결심한듯 솔직히
 대답한다.
 《모든걸 등짐과 주먹으루 힘들게 일하고있습니
 다.》
 《동무! 뭘 안다구?...》
 지배인의 통명스러운 목소리에 명희는 당황해한
 다. 그러자 젊은 로동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
 《지배인동지, 명희동무가 바른말 하는걸 막아서야
 안되지요.》
 《웁소! 마저 말하오.》
 명희는 그 말을 받아서 뻔뻔하게 말한다.
 《여기서는 간부들이 조립식에두, 기계화에두 왜
 관심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배인이 화를 내며 말한다.
 《아무 말이나 함부루 하면 못찌!》
 룡호는 너그럽게 지배인을 제지한다.
 《지배인동무! 가만있소. 동무의 이름이 뭐라드
 라?》
 《리명희입니다.》
 《명희라... 군대에서 싸웠지?》
 《예, 근위3사 간호장이였습니다.》
 룡호가 자리에서 일어서며 지배인에게 말한다.
 《응, 지배인동무, 작업반장은 저런 동무들이 해야
 하오. 자, 수고들하시오.》
 로동자들이 《예.》 하고 대답한다.
 《당의 의도를 푹푹히 알고있단말이요.》 하고 결음
 을 옮기는 룡호, 그에게 반장과 로동자들이 인사한
 다.
 《편안히 가십시오.》
 발판으로 내려오던 룡호가 멈춰서서 수첩을 꺼내
 들며 묻는다.
 《명희동무라지?》
 지배인이 시통스럽게 대답한다.
 《명희는 아직 애송인데 뭘 그러십니까? 남이 웃습
 니다.》
 룡호가 지배인을 날카롭게 바라보며 묻는다.
 《동문 조립식건설을 왜 받아들이지 않고있소?》
 《아니 내가 받아들이지 않다니요? 부재가 있습니
 까, 기중기가 있습니까, 설계가 있습니까?...》
 《그래 달라 보채나 봤소?》
 《예? 보챌다구 되는건가요? 설계사업소부터가 조
 립식건설에 대해선 꿈도 안꾼다던데요. 상동지! 건
 설이라는게 헐치 않습니다.》
 룡호는 그 말을 심중히 듣는다.

상실

홍부상을 비롯한 국, 처장들이 앉아있다.
룡호가 입을 연다.

《건설국장동무!》

《예.》

《수송조직을 어떻게 했기에 세멘트가 아직 도착안 했소?》

때마침 전화종소리가 울린다. 수화기를 드는 룡호.
《부재공장이 나왔소?》 하더니 다시 건설국장에
게 말한다.

《빨리 교통성에 알아보시오.》

《예, 알겠습니다.》

룡호가 수화기에 대고 말한다.

《기술국장동무를 바꾸시오... 동무, 왜 보이라 문
제를 보고하지 않소. 조립식방법이라는것은 건설사
업에서 일대 혁명이란말이요. 동무, 그런 식으로 일
해서야 언제 조업하겠소?》

이때 재정처장이 들어와 홍부상에게 문건을 내 밀
자 상에게서 수표받으라고 손짓한다.

룡호는 전화를 계속한다.

《안되오. 어떻게 하든 이틀안으로 부재가 나오게
하시오. 동무의 사업보고는 매일 오전과 오후 첫시
간에 내가 직접 받겠소. 그 시간에는 내가 이 방에
있겠소.》

재정처장이 문건을 룡호에게 내민다.

룡호가 수화기를 놓고 말한다.

《두구 가시오.》

《예.》

룡호가 다시 과업을 준다.

《자재처장동무, 이제 곧 내 차루 강선에 가서 강재
를 해결해오시오.》

《알겠습니다.》

《이만합시다. 홍부상동무, 좀 남아주시오.》

모두 나가고 홍부상만이 남았다.

《이런거야 부상동무두 결재할수 있지 않습니
까?》

하고 부드러운 말로 타이른다. 홍부상도 어쭙게
변명한다.

《상동지가 계신데 ...》

홍부상과 걸어오으며 룡호가 말한다.

《우린 이상한 인연으로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됐구
만요. 발전소수문공사때는 옥신각신하다니 멋적
게 됐지만... 어찌겠소. 한가마밥을 먹게 됐으니 석
연히 풀구 힘을 합쳐 일해봅시다.》

《10년전 일인데 풀구말구 있습니까.》 대답은 거
침없이 하였으나 마음속은 불안하였다. 그의 뇌리에
는 10년전의 일이 주마등처럼 떠올랐다.

발전소

룡호가 다가오는 홍부상과 간부들의 앞을 막아 서
며 결연히 말한다.

《저수지물은 못뽑습니다. 우린 장군님으로부터 전
기를 생산하라는 명령밖에 받은게 없습니다. 누구든
저수지물은 못뽑습니다.》

평범한 노동자의 반대에 부딪친 홍부상은 날카로
게 말한다.

《못뽑으면 이쥔텐가? 주제님께 동무가 나설 때가
아니야!》

《그러기에 발전기수문철관속에 들어가서 공사를
하자는겁니다.》

《우둔하기란! 그속에 사람을 집어넣어? 정신있소,
정신있는가말이야. 사고로 무테기송장이 나면 국가
에서는 동무같은 노동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아, 우
리에게 묻지!》

그러나 룡호는 홍부상의 도도한 태도에도 굽어 들
지 않는다.

《내가 들어가 먼저 확인하지요.》

막녕이라고 불리우는 젊은 노동자가 불쑥 나선다.

《왜 형님만 들어가겠소. 나두 같이 들어갑시다.》

약이 오른 홍부상의 얼굴이 표독스럽게 이그러진
다. 그는 위협조로 추궁한다.

《정부에서 파견한 부상의 말도 안듣겠는가?》

룡호는 끄떡없이 홍부상을 바라보며 버티고 서있
다.

상실

회상에서 깨어난 홍부상은 불쾌한 회상에서 오는
기분을 내색하지 않고 상냥하게 말한다.

《밀의 사람으로서 상동지를 받들구 일하는거야 응
당한 일이지요.》

룡호도 허심한 태도로 말한다.

《수령님께서서는 7천세대분의 자금과 자재를 가지
구 만세대쯤 더 지을수 없는가구 물으시더군요.》

《예?!》

《그래서 수령님께서 바라신다면 저희들은 얼마 든
지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말에 홍부상은 놀라서 얼떨떨해진다.

《아니 얼마든지라구요?! 추가예산도 없이 2.5배로
늘군단말입니까?》

《예, 수령님께서서는 전국적인 지원을 조직해 주시
겠다구 하셨습니다.》

부상동무, 내각결정 17호초안에 1만7천세대분의
예비를 포함시켜야겠습니다. 잘 연구해주시우.》

홍부상은 접수되지 않은채 기계적으로 대답한다.

《알겠습니다. 해야지요, 자 그럼.》

홍부상이 자리에서 물러간다.

설계실장방

룡호가 벽에 붙어있는 유럽도시들의 사진을 바라

보고있다.

설계실장이 방으로 들어오다가 의아해서 바라 본다.

《누구십니까?》

룡호가 돌아보며 대답한다.

《나 내로 온 건설장이요.》

《아, 그렇습니까? 자, 여기 좀 앉으십시오.》 하며 실장이 의자를 권한다. 룡호는 자리에 앉으며 신중한 눈매로 실장을 바라보며 묻는다.

《난 조립식건설풀계가 왜 안되는지 그걸 알구싶어서 왔소.》

실장은 반갑지 않다는 얼굴로 뜨직해서 대답한다.

《조립식말입니까?》

《그렇소.》

《그건 꿈과 현실간의 차이라구나 할가요. 재더미 속에서 겨우 일어나기 시작한 우리의 공업을 가지구 어떻게 한단말입니까?》

실장이 함부로 말하는데 룡호의 얼굴이 근엄해 진다.

《그게 어떤놈들이 하던 수작인지 아오?》

실장은 《예?!》 하며 몸이 굳어지더니 다음 순간 급히 일어나 설계도면과 원화들을 안고온다. 그리고 고속에 품고있는 심정을 털어놓는것이다.

《상동지! ... 난 전쟁때 외국에서 평양이 미국놈들의 폭격에 파괴된다는 보도를 들으면서 이를 사려물구 이것들을 그렸습시다. 나의 리상은 유럽의 도시들만 못지않는 대 평양을 건설하자는겁니다.》

그런데 난 지금 자그마한 2, 3층짜리 집들을 설계하구있습니다. 이 현실을 부정할수야 없지 않습니까. 아직은 그럴 힘은 없습시다.》

룡호는 완강하게 주장한다.

《그럴 힘이 있소! 우리가 미국놈들과 싸워서 이긴 다구 생각한 사람이 이 세상에 몇이나 있는줄 아우. 그러나 우린 이겼소, 미국놈들을 때려부셨단말이요. 무슨 힘으루? 수령님께서 계셨구, 수령님만을 믿고 따르는 우리 인민이 있었기때문에 이겼소. 그런데 동무는 그 힘을 믿지 않는단말이요?》

실장은 그 말이 마땅치 않아서 흥분한다.

《아니 내가 그 힘을 믿지 않는다구요?》

《믿는단말이지.》

《믿기때문에 조국이 불타고있을 때에두 미래의 평양을 설계하구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동무는 조립식방침두 실현된다는걸 믿어야 하오.》

실장은 그 말에 심중해지며 의자에 앉는다.

《아직은 그런 기적은 일어난 일이 없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두...》

《음... 실장동무! 내가 바람을 좀 쏘이지 않겠소? 자 나갑시다.》 하며 룡호는 실장을 이끌고 밖으로 나간다.

반토굴집마을

마을길로 룡호와 실장이 걸어온다.

어떤 반토굴집에서 아주머니가 부엌문을 열고 물이 담긴 소랭이를 들고 나오더니 그들을 보지 못하고 물벼락을 들뜨운다.

두사람은 봉변을 당하고 급히 옷을 튄다.

아주머니와 그 집 할머니가 어쩔줄을 몰라하며 사과한다.

《아이구머니나, 이를 어찌나! 부엌에 물이 고여서 퍼낸다는게 그만... 어머니...》

《애에미야, 아이구, 이를 어떡허나. 이거 미안 합니다.》

룡호는 옷을 털어주려고 다가오는 할머니를 굳이 만류하면서 허물없이 대한다.

《일없습시다, 일없습시다. 물이 많이 고이는가요?》

《예.》

실장에게 다가간 할머니가 말한다.

《미안합니다.》

《괜찮습시다. 일없습시다.》 하면서 실장은 룡호와 함께 부엌을 들여다본다.

집안

물에 잠긴 부엌에 처녀애는 소랭이를 들고 서있고 총각애는 종이배를 물위에 띄우고 장난하고있다.

녀인이 말한다.

《퍼내구퍼내두 끝이 없습시다.》

그 광경을 바라보는 룡호와 실장의 얼굴이 굳어진다.

《이거 안됐습시다. 이런 집들에서 빨리 나가야겠는데 ...》

종이배를 띄워놓고 장난하던 총각애가 실장을 빼 급히 올려다본다.

룡호는 실장과 함께 그자리를 떠나면서 자기 심정을 이야기한다.

《얼마전에... 수령님께서서는 이 길을 다녀가셨소. 수령님께서서는 저 사람들이 전쟁을 이긴 인민들이라구 하시면서 우리가 빛을 지구있다구 말씀하셨습시다.》

그래서 난 이 길을 걸을 때마다 수령님의 근심을 덜어드리지 못하는 자신을 매질하구있소.

실장동무! 동무나 나나 우리 도시들에서 처런 집들이 자취를 감추기전에야 편안히 숨쉬며 살수 없잖소.》

상실

손목시계가 4시를 가리키고있다.

《하하... 규률이 있구만. 보이라가 들어왔다? 하하 ... 아니요. 동무가 시험생산까지해서 기사장동무에

게 넘겨주구 래일 여섯시까지 건설지휘부로 오시오. 그럼 좀더 수고해주우.》 하며 룡호가 수화기를 놓는다.

방으로 들어서는 건설국장이 룡호에게 보고한다.

《상동지!》

《뭐요?》

《저 이번에 세멘트집중수송은 3일후에야 되겠습니다. 하 이거참... 그래서 제 생각엔 상동지가 교통상동지에게 전화를 줄...》

《내가 물어면 왜 동무를 보냈겠소? 동무의 힘으로 해결하시오.》

《예...》

《부채생산을 정상화하자면 중요하게는 국장동무가 맡은 수송문제가 풀려야 한달말이요. 다시 가시오. 그리구 보고시간을 잊지 마오.》

건설국장이 《예, 갔다오겠습니다.》 하며 나간다. 그를 보고있던 룡호는 가볍게 웃으며 수화기를 든다.

《교통상실에 좀 대주시오.》

설계실장집 방안

홍부상이 담배를 피우며 실장에게 말하고있다.

《하하... 상동무가 동무를 몹시 흥분시킨 모양이구만.》

방안을 왔다갔다하던 실장이 속이 탄듯 안해에게 말한다.

《여보, 거 뺑수 한그릇 좀 주우.》

안해가 가져다주는 뺑수를 벌떡벌떡 마신다.

그 모습을 찬찬히 살펴보던 홍부상이 말한다.

《속이 몹시 타는 모양이구만. 일없어, 동무의 리상이 꼭 실현될 때가 올게요.》

실장은 홍부상의 위로의 말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 듯 자기 생각에 몰혀있다.

룡호의 집밖

룡호가 자기 집마당에 들어서는데 그의 안해 순녀가 마중나온다.

《여보, 막내가 왔어요.》

《막내가 왔다구?》

방안

룡호가 막내기와 반갑게 만나다.

《형님!》

《막내기! 왔구나 왔어! 그래 발전소에서는 다 무고하니?》

《그렇지 않구요. 이 전기불이 꺼지기전엔 덩딩한 줄 아슈.》

두사람이 차려놓은 밥상에 앉는다.

《그래... 앉으라우.》 룡호가 다정히 말한다.

《저, 형님 오기전에 먼저 시작을 했수다.》

《잘했어, 여보! 거 있는거 다 들어오우.》

순녀가 《예.》 하고 대답하는데 룡호의 아들에게 부엌문을 열고 얼굴을 들이민다.

《자 들자우.》 하며 룡호가 술을 권한다.

《예.》

옛버릇대로 돌아앉아 마시는 막내기를 보고 룡호가 가볍게 쥐여박는다.

《야, 나았으라우.》

아들애가 얼떨떨해하는 막내기를 보며 히죽이 웃는다.

룡호가 막내기를 정에 겨워 끌어안으며 말한다.

《막내가 왔구나.》

《야, 형님은 옛날 그대로군요.》

《그건 무슨 소리야?》

《난 우리 성에 불일이 있어서 왔다가 형님이 상이했다는 소식을 들었수다.》

야! 너무 기뻐서 만나보고싶기두 하구 또 한편으론 높은 사람인데 어쩔가 하구...》

《에이, 사람두!》

《괜한 소리가 아니예요.》

《그만하라구! 아무럼 내가 발전소시절을 잊을 수가 있나. 거기가 내게 어떤곳이라구.》

《예, 하긴 나두 아까부터 저 은잔을 바라보면서 형님이 발전소시절을 잊지 았구있다는걸 짐작은 했수다.》

유리함에 은술잔이 정중히 놓여있다.

그 잔을 바라보며 막내기는 추억에 잠긴다.

《해방된 이듬해 장군님께서 우리 발전소에 찾아 오셨을 때 형님이 저 은잔을 드리면서 하던 말소리가 지금두 내 귀에 쟁쟁하군요.》

막내기는 점차 열기를 띤 목소리로 그날의 감격을 더듬어간다.

《<장군님, 이 잔을 받아주십시오. 이 잔은 자나 깨나 장군님을 만나뵙고싶어하던 우리 로동계급들이 장군님께 삼가 올리는 잔입니다.>》

그때 수령님께서 형님이 드리는 저 은잔을 받으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고맙소, 동무들이 정 권하니 이 잔을 받겠소.

참 동무가 로동자들을 묶어세워 왜놈들한테서 무장을 빼앗고 발전소를 지킨 최룡호동무라지? 내 마음에 드는 동무요. 그래 나와 같이 앞으루 일해 보지 않겠소?> 라구 하시던 말씀이 잊혀지지 않는군요.》

룡호도 자기의 감회를 털어놓는다.

《수령님께서는 그날에 한 로동자에게 베푸신 믿음을 잊지 았으시구 오늘은 이렇게 나라의 상으로까지 내세워주시면서 건설분야에서는 반당종파분자들의 여독으로 당의 건설방침이 저애를 받고있으니 로동계급출신답게 완강한 의지와 정열을 가지고 당의 방침을 관철하라고 하셨네.》

순서가 숭고한 마음으로 듣고있다.
룡호는 뚫어오르는 걱정을 누를길 없어 결의를 다진다.

《이 크나큰 믿음에 꼭 보답해야겠는데...》
《아, 그렇지 않구요. 형님, 아무쪼록 일을 잘해 주! 그저 우린 굳게 믿구있습시다.》
하고 막녕이는 믿음에 찬 눈길로 룡호를 바라 본다.

설계실장방
방안에 들어선 실장이 걸음을 멈추고 깊은 생각에 잠겨 벽에 붙은 유럽도시의 사진들을 바라본다.
한참 바라보던 그는 자책에 잠기듯 눈길을 내리 간다.

반토굴집 부양
처녀애와 총각애가 부엌에서 종이배를 띄우고 물을 퍼낸다.

설계실장방
실장이 다시 번민에 잠긴다.
방안을 거니는 실장의 말소리만이 계속된다.
이때 룡호가 들어서며 말을 건다.
《불이 켜져있기에 잠간 들렸소.》
《안녕하십니까?》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구있소?》
두사람은 의자에 마주앉는다.
《조립식건설이 절 괴롭히는군요.》
룡호는 그렇게 말하는 실장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활기있게 말을 시작한다.
《그렇소? 건설장에 가보니 노동자동무들은 조립식을 놓고 들끓구있던데... 별의별 좋은 의견들이 막 쏟아져나오질 않겠소.》
《그래요? 우리 설계원들속에서두 이런 의견들이 나왔습시다.》하며 실장은 책상우에 있는 도면을 펼친다.
223밀리미터라고 써여있는 설계도면.
《음, 223밀리다공판이라... 총막의 속을 비게 하구 얇게 만든단말이지?》 하고 룡호는 말한다.
《예, 그렇습니다.》
《거 대단하구만!》
《그러나 만7천세대의 예비까지는 나을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동무들에게 설계를 완성시켜볼까요.》
《실장동무가 있으면서 왜 그 동무에게 말기겠소. 실장동무가 말아서 1만7천세대분의 예비를 찾도록 설계를 완성시켜보우.》
《제가요?》
실장은 그 말이 납득되지 않는듯 반문한다.
《그렇소. 실장동무가!》

룡호는 확신을 가지고 엄격하게 다짐을 둔다.

부채공장
현장에 나온 설계실장과 부채공장 기사장, 설계원이 도면을 놓고 토론하고있다.
《아무리 조립식이라두 220밀리다공판으루 총막을 한다는것이 위험하지 않을까요?》 하고 부채공장 기사장이 말하자 설계원이 대답한다.
《예, 그래서 난 223밀리로 하자는겁니다.》
실장은 확신을 가진 기술인군답게 강경하게 주장한다.
《아니 223밀리로는 1만7천세대분의 예비가 나오지 않습니다. 강도시험을 하구두 믿지 못하겠소?》
그러자 기사장이 말한다. 《실험실단계에서의 강도시험은 견디여냈지만 좀더 심중히 연구할 문제가 아닐까요?》
《강도는 내가 담보합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사람들을 반토굴에서 해방하는게 급선무요. 이제 이 고비만 넘기면 우리도 남들 못지않는 집들을 지을 때가 오겠지.》

건설현장
룡호가 쌓여있는 다공판을 바라보며 만족해한다.
설계실장, 홍부상, 4건설사업소 지배인이 그의 뒤를 따라온다.
《응, 수고했소.》 하고 룡호가 말한다.
4건설사업소 지배인이 홍부상에게 나직이 말한다.
《부상동지, 이게 이번엔 만들어진 다공판입니다... 이렇게 얇은걸루 총막을 놓는다는게?...》
《상동지가 와 계시는데 그거야 직접 말씀드리오.》
룡호는 지배인의 의혹을 풀려고 설계실장을 부른다.
《실장동무, 이 다공판에 대해 지배인동무에게 설명해주우.》
《지배인동무, 너무 걱정할건 없습니다. 이렇게 얇아도 강도는 충분히 보장된겁니다.》
이때 어디선가 떠들썩하는 소리가 들려온다.
《경비원을 뭘루 알구? 아주머니!》
지배인이 들어서며 경비원아바이에게 묻는다.
《아바이, 무슨 일이요?》
《수상한 녀인을 잡았습니다.》
순서가 딱해서 돌아서는데 룡호가 그에게 눈웃음을 짓는다.
명희는 옆에서 안타까이 순서를 두둔해나선다.
《아바이, 지금 수도건설을 돕는 사람치구 돈이나 바라구 이름이나 내자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바이, 우리는 너무 고마와서 이 아주머니를 명예작업반원으로 등록까지 했어요.》
《아니 명희반장동무, 그럼 진짜배기공산주의자

게?》

《그렇지 않구요.》

《그렇다?》

룡호가 순녀를 슬쩍 비키게하고 경비원아바이앞으로 나서며 말한다.

《아바이, 내 보기에두 나쁜 사람 같이는 보이지 않는군요.》

《예, 상동지까지 그러시다면야. 아 나라는게 처년지 아주머닌지 분간하기 힘든데다가 더군다나 눈에 보이지 않는 속마음까지야 어떻게 가려보겠나요.》

경비원이 이렇게 말하자 지배인이

《아바이, 감시다.》 하고 말한다.

《예.》

두사람이 사라지자 룡호는 명희를 불러세운다.

《명희동무!》

질통에 벽돌을 담던 명희가 힘차게 대답한다.

《네!》

룡호는 같이 벽돌을 담아주며 말한다.

《앞으로는 벽돌쌓던 때와는 달라서 미장이 딸릴텐데 혁신할 생각이 없소 응? 난 동무와 처음 만나서 하던 말을 잊지 않구있소.》

《알았습니다.》

《약속하구요. 근위3사동무!》

명희는 《예!》 하며 질통을 지고 달려간다.

그를 미덥게 바라보는 룡호.

룡호의 집앞

불이 켜져있는 룡호의 집.

길

자기 집쪽을 보며 순녀가 급히 돌아온다.

룡호의 집 복도

복도에 들어선 순녀가 방쪽에 대고 말한다.

《미안해요. 인차 저녁짓겠어요.》

부엌

룡호는 이때 아이의 발을 수건으로 닦아주고 방안에 들여보낸다.

부엌문을 열고 들어서던 순녀가 놀란다.

《아니, 아이구 이를 어찌나, 광혁아, 인차 저녁 지을게 응.》

《됐다... 저녁은 내가 지었소.》

남자의 숨씨라고는 생각되지 않을 정도로 알뜰하게 차려져있는 밥상.

《예? 어마나!》

아버지의 품에 안기며 부엌으로 나오는 광혁.

《엄마!》

룡호는 넋지시 다른 이야기를 꺼낸다.

《그 경비원아바이가 경각성이 높던데...》

순녀 또한 생각이 많아 엉뚱한 대답을 한다.

《미리 애길 할걸 저... 그 작업반에 아주 나가면 안될가요?》

《누가 막겠소. 헌법에 제정된 권린데.》

《아이참, 남은 심중히 말하는데.》

《나두 신중히 말하오, 당신뿐아니라 이 동네아주머니들을 다 데리고 나가면 더 좋지. 그 명희동무 있지?》

《네.》

《이번에 반장이 됐는데 그 동물 잘 도와주우.》

《알겠어요.》

4건설사업소 건설장

부재가 없어서 움직이지 못하는 기중기.

반원들이 모여앉아있는곳으로 명희가 달려오며 안타까이 말한다.

《동무들! 동무들 한심하군요. 이러구 앉아만있으면 1만7천세대를... 야, 언제 해요?》

《우리 일두 생각해줘야지. 조립이라는거야 벽체를 달라와야 할게 아니요.》 한 로동자가 대꾸한다.

《정말 안타까와죽겠네.》

《우리두 안타깝소.》

룡호와 지배인이 걸어오며 말한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요?》

룡호가 의아해서 묻는 말에 지배인은 불평을 한다.

《글쎄 말입니다. 부재야 지배인이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는것도 아닌데 보장해줘야 집을 짓지요.》

《그래, 원인은 알아봤소?》

《갑자기 여러채를 착수하다나니 이 지경이 아닙니까. 그뿐인가요, 조립공도 모자라, 미장공도 모자라...》

《동무네가 양성해줄 생각은 왜 못하오? 부재는 내가 알아보겠소.》

《예.》

룡호가 승용차를 타고 급히 떠난다.

부재공장

생산이 한창이다.

홍부상이 거치른 말투로 기사장에게 따진다.

《능력이라는게 뭐요! 보수주의부리는게 아니요?!》

절약하고 소심하게 생긴 기사장이 변명한다.

《아닙니다. 이 이상 건조시간을 단축시켰다가는 강도를...》

《신비주의를 부리지 말라! 허용수치가 있지 않는가!》

《부상동지!》

《그쳐라... 당정책을 반대하는가? 그러면 용서치 않을테다. (룡호를 발견하고) 아니 상동지가 어떻게...》 하며 룡에게 다가간다.

《무슨 일이에요?》

홍부상은 자못 생산이 우려된다는듯이 기사장을 가리킨다.

《이 동무 안되겠습니다. 신비주의를 쓰면서 부재 생산을 늦잡습니다. 공칭능력타발을 하면서 하루에 60립방박에 못내겠습니까.》

《그게 사실이에요?》

룡호가 묻는다.

허나 기사장이 겁부터 앞세우면서 대답은 못하자 룡호는 체자 따지듯 묻는다.

《그 공칭능력은 누가 만들었소?》

기사장을 날카롭게 쏘아보는 홍부상.

룡호는 엄숙한 얼굴로 지시한다.

《최대한의 능력을 내보우.》

《알겠습니다.》

룡호가 자리를 뜨자 홍부상은 능청스럽게 입을 연다.

《나두 당정책을 관철하자니 큰소릴쳤는데 량해하오. 응?》 하며 기사장의 어깨를 치고간다. 지금까지 시퍼렷던 서술은 씻은듯이 가셔졌다.

그쪽을 보며 한숨짓는 기사장.

건설장

노을이 불타는 저녁이다.

하루일을 마친 명희와 순녀가 공구들을 씻으러 물통걸로 온다.

《언니, 힘들지 않아요?》

《힘들긴...》

물통옆에 앉아 공구들을 씻으며 순녀와 명희사이 에 다정한 이야기가 오간다.

《명희동문 고향이 어디지?》

《남반부예요. 충청북도 체천군...》

《먼데서 왔구만. 아니, 간호장이 왜 집짓는 사람이 됐나?》

《예? ... 언니, 집짓는 일이 좋종아요. 전 집이라는 걸 모르구 자랐어요. 대나무에 거적때기를 치구 살았으니까요.》

《그래? 어찌면 내 자랄 때와 꼭갈을가.》

《제가 그렇게 자라서 그런지 인젠 벽돌로 한장씩 쌓던 때와는 달리 조립식으루 집을 빨리 짓는 데두 난 막 성차지 않아요. 욕심같아선 부채만 팡팡 대주면 하루에 몇채씩 집을 막 짓구싶어요.》

《아이참, 명희동문 일욕심이 한정이 없어. 따라 가기 바쁘다니까.》

그들은 마주보면서 가벼운 웃음소리를 낸다.

설계실장방

전화를 받는 실장의 얼굴이 경련을 일으킨다.

《예?!》

건설장

허리가 부러진 다공판이 나뒹굴고있다.

움직이지 못하고 서있는 나무기둥기.

모여드는 사람들이 그것은 보고 숨을 죽인다.

그속을 헤집고 달려오던 실장이 부러진 층막을 보고 돌처럼 굳어져버린다. 그는 다시 부러진 층막이 있는곳까지 달려올라가 자세히 살피다가 자리에 주저앉아 머리를 숙인다.

이때 사람들속으로 승용차가와 몇더니 차에서 검열원이 내린다.

전작업반장이 말한다.

《검열성 검열원까지 오누만.》

부러진 층막이 있는 사고현장에 검역원이 올라오더니 홍부상과 4건설사업소 지배인에게 증명서를 내보이며 입을 연다.

《안녕하십니까?》

《예.》

검열원이 묻는다.

《이 사고의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자 홍부상에게 말하는 지배인.

《글쎄 내가 뭐라구 했습니까?... 이렇게 얇은 다공판우에다 벽체를 올려놓아서 견딜게 됩니까?》

《원인을 규명해야겠소.》

이때라는듯 책임회피를 하는 지배인.

《설계를 다시 검토해야지 이대룬 시공을 계속 못하겠습니다.》

부러진 다공판우에 앉아 고민하는 실장

《아니 이럴수 없는데...》 부러진 다공판이 그의 시야에 가슴아프게 안겨온다.

설계실장방

설계실장이 검열원에게 말한다.

《내 설계는 정확했습니다. 강도시험두 했구요.》

실장의 주위를 돌면서 위협하는 검열원. 그뒤에서 방안을 왔다갔다하며 눈치를 보는 홍부상.

《법앞에까지 책임질수 있는가?》

《책임질수 있습니다.》

《설계가의 법적책임은 설계로 끝나는게 아니라 집이 완성되구 그 집에 들어가 살게 될 인민들의 생활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거요. 더구나 이번 사고를 놓고 동무에 대해서 경각성을 높이라는 의견도 있어. 동무의 처가가 불순한 가정이라는것두 계산을 안할수가 없거던.》

그런데두 법앞에까지 책임을 진다구? 동무가 그렇게 떳떳하다면 우리는 동무를 정식으루 검찰기관에 넘기겠소.》

하고 위협하더니 홍부상과 인사를 하고 나간다.

홍부상은 의자에 앉으며 실장에게 끈덕지게 들이댄다.

《허 그 사람두, 아이구, 법이라는거야 적용하는 사

람에 따라서 좌우되는게 아니요. 법적제재에 대해서 말한다면 나나 동무보다 두 법앞에 설 사람은 상동무요. 그런데 상은 동무를 믿구 덮어놓구 일을 내밀구있소.》

실장은 짜증이 나서 묻는다.

《그래 나한테 요구하는게 됩니까?》

《동무만 각오하면 간단한거야, 자기비판서를 한장 쓰라구, 응? 220미리다공관은 예비를 찾기 위한 욕심에서 나온 공상이었다구 말ियो. 그럼 내가 법적 문제가 서지 않도록 막아주겠소. 어떻게? 모든 문제가 다 풀릴수 있소.》

자기 의자에 가앉으며 고민에 빠지는 실장.

《뭐가 뭔지 모르겠군요. 좀더 생각할 여유를 주십시오.》 하며 일어나 창가에 다가가간다.

창가에 서서 생각에 잠겨있는 실장.

실장을 눈여겨보는 홍부상.

홍부상의 집

고뿌에 부어지는 맥주.

검열원이 홍부상에게 맥주를 부어주며 말한다.

《설계실장은 승낙을 했나?》

《그자가 자기비판서를 쓴다면 조립식건설은 자연히 파탄되겠는데...》

《문제는 최룡호요. 사고가 난 이 기회를 리용해야 할게 아니요?》

《바로 그거요, 무식한것들이 판을 치며 돌아치는 걸 보면 내 원 눈썹이 사나와서... 에참.》 하며 전화기의 번호판을 돌린다.

《최고검찰소 부소장입니까?... 예, 접니다. 명섭이 두 여기 와 있구요.》

《그래 갔던 일은 어떻게 됐나?》

《아, 그건 저에게 말기라는데요. 그런데 최룡호가 어떻게 나오겠는지...》

《그건 넘려 마오. 내가 있는 한 최룡호는 자리를 내놓지 않고는 못배길걸... 법의 힘이라는게 있지 않소 하하...》

수화기를 놓고 마주보며 웃는 홍부상과 검열원.

상실

룡호가 자기 자리에 앉자 그앞에 앉아있던 건설사업소 지배인들이 제기한다.

《조립식건설은 어떻게 하릅니까?》

《사고가 규명될 때까지 일단 중지하는게 좋을가요?》

4건설사업소 지배인도 한마디 한다.

《우리는 벌써 중지시켰는데요. 안전성이 담보된 다음에 ...》

생각에 잠겨 구석에 앉아있는 기사장.

룡호는 그러한 지배인을 향하여 단호한 결심으로 말한다.

《실장동무가 곧 원인을 표명할테니 그때까지 기다리시오.》

이때 검열원이 들어온다.

룡호에게 신분증을 내보이는 검열원.

《안녕하십니까?》

《앉으시오.》

《예.》

《말씀하십시오.》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 도시설계실장을 검찰기관에 넘겨야 하겠습니다.》

《안됩니다.》

룡호는 첫마디부터 단호히 잘라내버린다.

《우리가 조사한바에 의하면 그 사람은 당의 조립식건설방침을 처음부터 반대했구 또 설계에서두 의식적인 해독행위를 했습니다. 그러니 명백하지 않습니까!》

《그 동문 믿을만한 동무입니다.》

《그러나 법은 믿지 않습니다.》

《법두 믿을수있게 내가 증명할테니 그 동무를 다치지 마오.》

첨예한 대결에서 룡호는 한치도 양보하지 않을 기세이다. 드디어 검열원이 꺾이고만다.

《그럼 우리는 보고하겠습니다.》

《보고하십시오. 난 그 동무의 상급으로서 그 동무를 책임지겠소.》

풀이 죽은 검열원이 나간다.

고민에 빠져 앉아있는 기사장.

《돌아들가시오.》

그 소리에 모두 조용히 자리를 뜬다. 홀로 남은 룡호는 흥분을 억제못하여 방안을 거닐다 말고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낸다.

설계실장방

자기비판서를 쓰는 설계실장

쓰다 만 여러장의 비판서종이가 보인다.

실장은 마음속으로 되뇌인다.

《상동지를 법앞에 내세울수야 없지.》

상실

전화종소리가 울린다. 룡호가 수화기를 들자 상대방의 목소리가 울린다.

《나 최고검찰소 부소장입니다. 지금 검열원의 보고를 받았습시다.》

《아, 그렇습니까? 어서 말씀하십시오.》

《암만해두 설계실장은 우리 기관에서 구급해야겠습다.》

《그 동무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질테니 거기서는 상관하지 말아주시오.》

《안됩니다. 그리구 다공관생산두 그만두시오. 절대승인할수 없습시다.》

수화기를 놓는 룡호의 손, 심각해진 그의 얼굴 룡호의 마음의 소리가 울린다.

《어째서 검찰기관에서는 사고의 원인도 알아보려 하지 않고 이렇게 나오는가? 어째서?...》

이때 재정처장이 사무실에 들어선다.

그는 룡호앞에 다가와 문건을 내밀며 떠보듯 말한다.

《이걸 수표해주셔야겠습니다.》

《뭐요?》

《이미 생산한 220미리다공판처리를 어떻게 하시켰습니까?》

검열기관에서는 법적으로 추궁하고있습니다.》

문건을 번지는 룡호의 손.

《실태는 참으루 엄중하게 댔습니다.》

《알겠소. 나가보시오.》

재정처장이 깍듯이 인사를 하고 나간다.

문건에 수표하는 룡호.

홍부상이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와 룡호앞에 다가온다.

말없이 홍부상을 쳐다보는 룡호.

《이거 큰일이 생겼습니다... 설계실장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군요. 정신이 어떻게 된 사람인지...》

《뭐요?》

《이걸 보십시오. 자기 비판서를 보내왔습니다.》 하며 홍부상은 손에 쥔 문서를 흔든다.

《자기비판서라구?!...》

룡호에게 있어서 이 일은 천만뜻밖이 아닐수 없었다.

홍부상은 자기비판서를 들추면서 말한다.

《그 사람이 자기가 설계한 다공판이 과학적근거가 박약하기때문에 앞으로 인명피해가 있을수 있는 우려도 있고 특히는 자기 잘못으로 해서 상동지까지 크게 책임을 질수 있기때문에 220미리다공판생산을 중지시켜달라는겁니다. 그 후과에 대한 책임은 자기가 전적으로 지겠습니다.》

《주시오.》

홍부상은 비판서를 룡호에게 내주며 더욱 간교하게 말한다.

《이뒤엔 실장동무의 처가 작용하는게 아닐가요? 자기 혼자 생각만으로는 이룰수 없습니다.》

룡호는 복잡한 이야기속에서 벗어나려고 홍부상의 말을 자른다.

《그만하십시오. 나두 그 집 사정은 압니다.》

《예.》 하며 공손히 나간다.

여러가지 생각에 고민하는 룡호.

그의 마음속에 울리는 목소리.

《실장 그 사람이 무슨 마음을 먹구 이 더러운 자기비판서를 썼단말인가? 나때문이라구? 개인의 운명은 아갑구 당정책이 집행되지 않은것은 가슴아프

지 않단말이지 ...》

룡호의 집안

막내가 찾아왔다. 그는 종이 꾸레미를 펼쳐 말린 물고기를 순녀에게 내준다.

《전번에 누이가 형님 입맛이 떨어졌다고 걱정하더라니 ...》

《아니 이거 정말... 쏘가리로구만.》

《자, 반소 여기 또 있수다.》

《이런걸 뭘 다...》

《아 글썄 이걸 형님한테 가져간다니까 모두가 달라붙어서 그물루 더 잡아주더군요.》

《그래요.》

순녀는 그들의 성의가 가슴에 안겨와 깊이 감동한다.

이때 문여는 소리가 난다.

《아니 형님이 오는데 아니요?》

그 말이 떨어지자 방안에 들어서는 룡호.

막내가 반가이 맞이한다.

《형님, 수표했습니다.》

《왔니?》

순녀가 쏘가리를 내보인다.

《여보, 아이, 이 쏘가리 좀 보세요.》

《누이, 별걸 다 가지구 원...》

《그런건 뭘 다...》

《참 듣자니까, 종파쟁이가 해먹던 자리에 들어와야 막 뿌리를 뽑는다면서요? 형님의 그 솜씨야 이 막내가 잘 알지요.》

《생각하군 달라. 힘이 들어서 못하겠다.》

막내는 룡호의 대답을 듣자 뜻밖이라는듯 표정이 어색해진다.

《뭐요? 형님이 그런 소리를 다...》

《자 난 뭘 목석인줄 아니? 수령님께서 주신 임무가 아니라면 상자리를 집어던지구 로동이나 해먹겠다.》

담배불을 붙여 한모금 빨아 내보내는 룡호.

《아니 그게 진정이요?!》

《누구한테 그런 소릴 하겠니, 막내이니 믿구 하는 거지. 너희들은 몰라...》

멍하니 앉아 울상이 되어 룡호를 바라보는 막내.

《정말 힘이 들어.》

밥상을 닦으며 옷방에 대고 말하는 순녀.

《자 그만 내려와서 저녁들이나 잡수세요.》

묵묵히 앉아있는 막내에게 말하는 룡호.

《자 내려가 저녁이나 먹자.》

대답없이 앉아있는 막내.

《왜 무슨 일이 있었니?》

한숨쉬며 말하는 막내.

(다음호에 계속)

우리가 걷는 길

권강일

황금벌 누벼오던
철길이 끝나고
바다가 마을의 오솔길도 끝난
여기서 시작된다
우리가 걷는 길은

가로수 푸른거리
밝은 창가에 흐르던
노래도 웃음도 뒤에 두고
여기서 다시 시작된다
우리의 청춘의 길은

아직은 누구도
첫자욱을 찍은적 없는 길
아득한 간석지 부풀은 감탕밭
밀물은 한순간에 삼켜버려도
우리의 꿈은 앞에 있다

수수천년 짚물에 절은
갈숲 우거진 기슭을 떠나
그 몇번이나 옮기고 옮겨왔던가
우리의 정든 집
거치른 해풍에 색날은 천막

바다를 밀어가는 제방우에서
로동으로 억세어진 어깨우에
내리는 눈비를 피한적 없고
달려드는 폭풍에 물러선적 없다

젖은 옷 마주 짜던 그저녁
노래 많던 우등불가의 그밤을 거쳐
새 지평선 한끝에서 바라보는 노을은
우리의 청춘의 열정 물들어
그리도 아름다운것 아니더냐

바다를 밀어 또 한차례
개쪼막이전투를 끝낸 그 기쁨
천막가 등불아래서
고향에 보내는 편지에도 담았더라

아직은 닦아놓은 평탄한 길로
배움의 총계만을 오르던 우리
여기선 걸음걸음 파도와 싸우며
우리의 자욱으로 길을 열고
우리의 노래로 새땅을 넓혀가거니

달려오라, 행복의 렬차여
배움의 창가에
우리의 푸른꿈 나래치던
그날의 노래, 그날의 깨끗한 웃음을 싣고

달려오라, 렬차여
우리가 닦아놓은 길로
금나락 물결치는
새생활 약동하는
조국의 거창한 숨결을 싣고

시작은 있어도
끝날줄 모르는 우리의 길
간석지천리벌에
청춘의 대통로를 열어가거니

길없는곳에
길을 열어가는
우리는 건설의 개척자
우리는 위훈의 계승자

갈수록 길은 어려워도
갈수록 파도는 거세차도
헤쳐가는 그 자욱우에
한생의 삶이 자랑으로 받들리는
보람찬 길, 영광의 길

아, 우리 당이 가리키는
아득한 수평선 한끝
길없는 그 길우에
노래를 안고
웃음을 펼치며
청춘들- 우리는 간다
조국의 새 기슭으로!

어로공의 새 모습

박재주

원양에서 돌아온 날 저녁
로친은 펄쩍 놀라오
책이라든 담을 쌓던 령감이
글쎄 대학교재 펼쳐들었다고

그러자 덩달아 캐물소
턱밑에 바투 붙어앉은 손자녀석도
할아버지도 대학에 가는가고
이젠 배에서 내리는가고

어허 좋구려
가식없는 저 물음 오히려 귀맛을 당기오
자애로운 수령님 품속에 당의 사랑속에
만리대양 북판에도 어장대학 생긴줄
저들이야 어찌 다 알리오
알고 받는 사랑보다 모르고 받는 사랑
나날이 더 많은 세상이니

어찌 다야 알리오
조국의 기슭에서 물길천리 가면 갈수록
물의 사랑 곱절로 더해주는 그 은혜
만리대양 한복판에 어장대학 세워주고
배마다 이동강의 펼쳐주는 그 사랑

엇그제 수산대학 졸업하고 원양은

둘째너석 참새머리에야 어찌 건주랴만
어제날 못배운 강심품고 배우는
이 맘속 결심에야 어찌 따르리오
그래선지 배우는 속내가 깊다고들
배마다 칭찬이 자자하오

아무렴 물고기야 먹는 맛보다
잡는 맛이 더 좋다고
오늘에야 배우는 맛 몸에 폭 습배여
새벽보도 갑판에서 맞는 때가 백밤도 넘소
이슬젖은 공식집 조명등에 펼쳐들고
흘러가는 밤과도와 얘기 나누며

어허 참
대학문은 도시에만 열린것 아니라고
물에서만 대학생이 오는것 아니라고
아버이수령님 사랑속에 당의 품속에
새 대학길 바다에도 크게 열렸소

창문열고 저어기 부두가를 좀 보오
엇그제 배에 오른 애젊은 축들
또 한차례 어장대학 강의실에 들어서오
나도 명년 이맘 때면 젊은 나이또래
어장대학 2학년생이 된다오

봄 밤

리의석

좋은 시절 왔구나 농장의 봄 밤
원일인지 모르게 이 가슴 설레이네
어데라없이 자꾸만 걷고싶고
누구와 만나서 말하고싶구나

온종일 조무래기들 풀피리 불며불며
새봄을 노래하던 버들방천 건너머
논벌을 갈아엎는 트랙터 발동소리
만풍년 불러오는 정다운 서곡인가

랭상모판 비닐박막 땃히인 은구슬
파릇파릇 애기모의 풍년꿈에 어리고
우등불 피워피워 찬서리를 몰아내는
처녀의 마을 비껴 달빛은 더욱 곱네

이밤 저 룡선에 설레이는 과일나무들
단즙을 흠뻑 빨아들여 물을 올리고

살오른 아지엔 꽃눈이 움트리
엄청나게 안아올 열매를 헤아리며-
농장의 문화회관 희빛은 무대에선
좋은 씨앗 묻어놓은 처녀들의 고운 손길
가야금 오리오리 나비처럼 날으며
이해에 실어올 풍년가를 텅겨라

아, 어버이수령님의 뜨거운 사랑속에
당중양이 베푸는 크낙한 은정속에
사람도 대지도 푸른꿈 안고서
황금가를 그리는 행복의 밤이여

아름차게 해야 할 농사일 많아도
솟는 힘 바칠 생각 얼마나 좋은가
이 밤에 키운 사랑 포기마다 기울여
휘영청 밝은 가을달 풍년벌에 띄우리라

조선시가의 3 대를동형식에 대하여

전 병 호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새생활이 요구하는 새로운 리듬, 새로운 선율, 새로운 룰동을 창조하여야 하며 우리 인민이 가지고있는 풍부하고 다양한 예술형식에 새로운 내용을 담을줄 알아야 합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시에 운율이 없으면 정서도 없게 된다.**》

혁명하는 시대의 요구에 맞는 기백있고 고상하며 발랄한 새로운 운율을 끊임없이 창조하는것은 오늘 우리 시문학앞에 나선 중요한 임무이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문예방침을 심장으로 받들고 시창작에서 산문화의 경향을 철저히 극복함으로써 우리 시문학앞에 나선 시대적임무를 원만히 수행하여야 할것이다.

운율이 훌륭하다고 공인된 과거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수많은 시편들을 놓고 그 어음론적구조를 대조분석해보면 우리 시가에는 정형시형식 말고도 매우 넓은 범위에서 작용하는 또 다른 힘찬 룰동형식들이 있으며 그것은 주로 해방후 공화국북반부에서 창작된 자유시들속에 소형태들을 이루어 널리 침투되어있다는것을 알게 된다. 이리하여 조선시가운율(룰동)형식에는 크게 나누어 다음의 세가지가 있다고 볼수 있다.

1. 정형시 형식.
2. 두마디 길이를 룰동단위로 하는 민요형식.
3. 뚜렷한 강약관계에 기초한 룰동형식.

이 세가지 룰동형식 음절수량상의 법칙만이 작용하는 정형시형식의 운율적기초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론하기로 하고 여기에서는 음절수량과 함께 음절류형관계에서의 법칙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나머지 두가지 형식에 대해서만 론하기로한다.

1. 두마디길이를 룰동단위로 하는 민요형식

민요, 동요중에는 음절수로 보면 4.4조가 아니지만 발음시간관계에서 4.4조와 맞아떨어지는 그런 형식들이 있다는데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례 1) 비.뿌.린. 강.변.에.

버.드.나.무. 칭.칭.

○열린마디

●닫힌마디

(여기에 쓰인 부호들은 편의상 필자가 립시로 단 것임)

음절수로 보면 <3·3·4·2>로 되어있으며 따라서 이 시는 정형시(4·4조)가 아니다. 그러나 룰동

적 억양으로 읽어보면 박자감이 동하며 룰동이 확실하다. 발음시간관계에서 다음과 같은 동일단위성이 성립되는것과 관련된다. 즉 비 뿌=린 =강 =변에

=버드=나무=칭=칭= 2음절길이 매개 단어들

반분되어 닫힌마디 1개와 열린마디 2개사이 발음시간이 같아지면서 나타나는 룰동이다. 이 시구에 리용된 네가지 류형의 단어를 보면 2음절어(●●), 3음절어(●○○ 및 ○●●), 4음절어(○○○○)들로 되어있으나 그 발음시간은 룰동속에서 모두 4음절길이에 해당되며 이 시는 박자관계에서 4.4조와 맞아 떨어진다. (박자를 치면서 읽어보면 더 명백해진다.)

이 시에서 닫힌마디자리에 긴마디가 와도 고유한 룰동이 기본적으로 그대로 나타난다.

례 2) 비뿌린 네거리

○○● - ○○
버드나무 휘 휘

○○○○ - -

또한 이 형식에서 리용된 류형의 단어들이라면 그중의 임의의것 두개를 임의의 형식으로 결합한다고 해도 동일한 룰동이 나타난다.

례컨대 《이슬은 반짝, 바람은 살랑》 《잠자리

풍풍》 《꿀꿀 물소리》 《세찬 파도소리》 등 이

●● - - ●○○ - ●○○○○○

상과 같은 분석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이 말할수 있다.

1) 우리 시가에서는 음절수가 같지 않아도 발음길이가 같을수 있으며 룰동이 나타날수 있다. 음절수가 같아도 발음길이가 다를수 있으며 룰동이 나타나지 않을수 있다.

2) 우리 시가에서는 일부 단어들(●●, -●, ●○○-○○●, ○○○○등)이 어울릴 때 닫힌마디 또는 긴마디 1개와 열린 마디 2개 사이 발음시간이 같아지면서 나타나는 룰동이 있다.

3) 우리 선조들은 이 원리에 기초하여 민요, 동요형식을 만들어 리용하였다. 결국 우리 선조들은 정형시형식과 이 민요형식 두가지 시가형식을 만들어 리용한셈이다. 그러나 이 민요형식은 공식화되어있지 못하였다. 이 민요형식의 표준공식은 다음과 같은 여덟가지 류형의 단어중 임의의것 2개가 결합하여 하나의 시행을 이루는 2행시형식이라고 할수있

다.

●●(-●,- -)
●○○(-○○)
○○●(○○-)
○○○○

그런데 이 형식에서는 단어형태가 꼭 우에서와 같
이 되어있지 않아도 고유한 룰동이 일정하게 나타날
수 있다.

1) 시행말에서는 1음절길이가 모자라도 된다.

례) 짹 짹 숨어라

● ● ● ● ●
머리칼 뵈다

○ ○ ● ● ●

시행말의 단어들은 모두 1음절이 모자라지만 시
행말에서는 발음이 좀 느려지기도 하고 또 시행말
공간이 있기때문에 룰동이 조성된다. 대체로 보아
《숨어라》는 《○○-》처럼, 그리고 《뵈다》는

○ ○ ○

- ○

《--》처럼 작용한다.

2) 열린마디위치에 부분적으로 닫힌마디가 와도
고유한 룰동이 나타날수 있다.

례) 강강 수월래

● ● ● ● ●

(●2음절 길이로 길게 발음되는 닫힌마디

●1음절 길이로 짧게 발음되는 닫힌마디)

음절<월>은 닫힌마디이지만 받침소리가 짧게 발
음되면서 열린마디처럼 작용한다.

또한 《여긴 쟁 쟁 1 저긴 그늘그늘》이라는 동요

- ● ● ● ● ○ ● ● ● ● ●

에서는 음절 《늘》이 닫힌마디이지만 열린마디
와 차이없이 짧게 발음되면서 룰동을 나타낸다.

이 민요조에 리용되는 류형의 단어는 우에서 보는
여덟가지이지만 그 사용빈도는 같지 않다. 민요, 동
요들을 분석하여보면 닫힌마디뭉음으로 된 2음절.
(●●, 일부-●)이 약 40%를 차지한다. 이것은 이런
류형의 단어들이 우리 말 단어들중에서 가장 룰동적
이라는것을 보여주는것이다. 이런 단어는 그자체로
도 일정한 룰동성을 가지고있다.

이상에서 말한 시가형식을 우리는 두마디 길이를
룰동단위로 하는 민요형식(또는 《두마디장단》 형
식)이라고 부를수 있을것이다.

이 민요형식은 창작상 의의가 실로 거대하다.

이 형식에 속하는 류형은 수백가지를 헤아릴수 있
는데 우에서 말한 여덟가지 류형의 단어가 두개 결
합한 시행형식만 해도 56가지가 있을수 있다. 그중
몇가지를 보면 아래와 같다.

●● ●○○ 려) 철철 물소리
- ● ●○○ 려) 세찬 북소리
●● ○●● 려) 칭칭 드리운
●○○ ●●● 려) 복변의 장강

○○○○ ●● 려) 파도소리 출렁

○○○○ ●○○ 려) 소리소리 떨어치리

우에서 보는 류형의 단어들이 한시행에 3개 있어
도 이 민요조룰동이 나타날수 있으며 단어선택을 잘
하면 4개, 5개 있어도 일정하게 나타날수 있다. 3개
가 한시행을 이룬 형식에 수백가지가 있을수 있는데
그중 몇가지를 보면 아래와 같다.

●○○ ○○● ●○○ 려) 백두에 치솟은 해불이

●○○ - -○○● 려) 장백에 훨훨 타고온

○○● ●○○ ○○● 려) 싸우는 전사의 낮에선

- ○○ ○○● ●● 려) 세계에 뿌리는 빛발

●● ○○● ●● 려) 철철 흐르는 샘물

○○○○●● ●○○ 려) 그속에서 끓는 정열이

이 민요형식의 룰동미는 어떤 종류의 단어를 어떻
게 결합시키는가에 따라 다종다양하지만 대체로 말
해서 정형시형식에 비해 1) 힘있고 약동적이다. (<
●●>, <●○○>형 단어들에서 닫힌 마디들이 약 2
음절길이로 길게-강하게 발음되는것과 관련된다.)
2) 경쾌하고 즉흥적이다. (룰동단위가 가장 짧은것
과 주로 관련된다. 2음절길이) 이리하여 밝고 락천
적인 우리 민족성을 잘 반영한다.

이 형식은 해방전에는 민요와 동요, 동시에서만
주로 리용되어왔다면 해방후에는 우리 시인들에 의
해 그 다양한 변조형식이 창조되어 자유시운물에 널
리 리용되어오고있다.

례) 머나먼 옛날

○ ○ - ● ●

백두산 포수막이

● ● ● ● ● ● ● ●
жат술발에 숨어있는곳-

● ● ● ● ● ● ● ●
(《백두산》 조기천)

3행 전반까지에서 민요룰동이 나타난다. 발음길
이관계에서 머나=먼=옛=날=백두=산=포수=막이=

○ ○ - ● ● ● ● ● ● ● ●

жат술=발에=2음절길이로 된다.

● ● ● ●

례) 고향산천에 흐르는 물소리

● ● ● ● ● ● ● ●

고향 언덕엔 내리는 눈소리

● ● ● ● ● ● - ● ●

(《조국이어》 정서촌)

단어 《고향》을 제외하고 나머지 전체부분에서
전형적인 민요조룰동이 나타난다.

례) 아,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

그이께로 향하는 인민의 흠모와 존경

○ ○ ○ ○ ● ● ● ● ● ● ● ● ● ● ● ● ● ●

(《수령님의 존함과 함께》 정천례)

2행에서 민요조룰동이 나타난다. 일부 시에서는

우에서 말한 여덟가지 류형의 단어에 단한마디 1채(●) 또는 열린마디 2개(○○)가 더해진 류형의 단어들(●●●●, ●●○○, ●○○●, ○○○●, ●○○○, ○)도 리용되고있는데 이런 단어들도 룰동속에서 3등분되어 2음절길이씩 갈라지면서 룰동을 나타내고 있는것을 볼수 있다.

례) 장진땅에 부대기를 일쿠어

● ● ● ● ● ● ● ● ● ●

그래서 우리 집은 단간방이 아니었더뇨?

● ● ● ● ● ● ● ● ● ●

그래서 내 고향은 장진두메 아니었더뇨?

● ● ● ● ● ● ● ● ● ●

(《땅의 노래》 리맥)

1항 및 2항 후반과 3항 후반에 홀룩하게 변조된 민요조를동이 나타나고있다. 즉 룰동적억양으로 읽으면 발음길이관계에서 대체로 <장=진=땅에=부대=기를=일=쿠어= 2음절 길이> <단=간=방이=아니=였=더뇨= 2음절 길이>로 된다. 3항은 2항과 똑같은 형식이다.

2. 뚜렷한 강약관계에 기초한 룰동형식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말은 류창하며 높고낮음과 길고 짧음이 있고 억양도 좋으며 듣기에도 매우 아름답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심오히 연구하는 과정에 우리는 혁명가요를 비롯한 우리의 격동적인 시가들에 내재하는 운률적특징들을 더 잘 리해할수 있게 되었다. 그것은 우리 말의 장단관계는 강약관계와 유기적으로 련결되어 나타난다는것 따라서 우리 시가에도 뚜렷한 강약관계가 룰동의 기초로 되고있는 형식이 존재한다는 그것이다.

1)

우리 선조들은 정형시형식을 만들 때 전체 음절은 다 하나의 길이로 동일하게 발음되는것으로 가정하였다. 그렇기때문에 음절수가 규정에 맞는 한 정확한 정형률은 전체 음절을 하나의 길이로 다같이 읽는 조건에서만 발생한다.

례1) 아가아가 우리 아가

한돌 지나 두돌 지나 (4.4조)

4.4조로 된 이 시를 그렇게 읽어보자. 음절 《한》, 《두》를 짧게 읽어야 한다. 이번에는 다음 시를 읽어보자.

례2) 아가아가 우리 아가

한돌이 지나가고

●
두돌이 지나가고

이 시에서 룰동이 나도록 읽으려면 금절 《한》과 《두》를 각각 2음절길이로 뚜렷이 길게 읽어야 한다. 그렇게 읽어보자.

이제 1음절길이로 짧게 읽은 음절 《한》, 《두》와 2음절길이로 뚜렷이 길게 읽은 음절 《한》, 《두》의 발음강도를 대비해보면 어떤가? 후자가 뚜렷이 길뿐만아니라 뚜렷이 강하다는것을 쉽게 알수 있다. (열은 종이를 입술에 대고 발음해보면 뚜렷이 길게 읽을 때 종이의 진동이 뚜렷이 크다는것을 알수 있는데 종이의 진동은 호기의 강도를 보여준다. 그러나 청각상으로도 쉽게 발음강도를 가려낼수 있다.)

례 2)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시가에도 뚜렷이 길고 뚜렷이 강한 음절들이 있다는것을 알수 있다. 이런 현상은 어떤 음절에서 나타나는가? 뚜렷이 길고 뚜렷이 강한 음절은 기본적으로 어두에 놓인 단한마디 또는 긴마디에서 나타날수 있다.

례2)에서 단어 《한돌이》를 《열돌이》, 《백

● ● ● ● ● ● ● ● ● ●
돌이》로 바꾸어도 되며 또 《두돌이》를 《세
○ ○ ○ ○ ○ ○ ○ ○ ○ ○
돌이》, 《네돌이》

○ ○ ○ ○ ○ ○ ○ ○ ○ ○
로 바꾸어도 되지만 《제돌이》로 바꾸어서는 룰

○ ○ ○ ○ ○ ○ ○ ○ ○ ○
동이 나타나지 못한다. 왜냐 하면 음절 《제》는 단한마디도, 긴마디도 아니며 열린(짧은)마디이기때문에 길게 읽을수 없는 까닭이다. 뚜렷이 길고 뚜렷이 강하게 발음될수 있는 음절을 가진 단어들은 다음과 같다.

2음절어 -단한마디가 어두에 온 단어

례) 강가, 불타, 벌써, 밍고 등

● ● ● ● ● ● ● ● ● ●

-긴마디가 어두에 온 단어

례) 바로, 알리, 몰래, 대지 등

- ○ ○ - ○ ○ - ○ ○ - ○ ○

3음절어 -단한마디가 어두에 온 단어

례) 충성의, 떨치라, 북소리, 빛발에 등

● ● ● ● ● ● ● ● ● ● ● ● ● ●

-긴마디가 어두에 온 단어

례) 세해가, 설날에, 반나마, 말하리 등

- ○ ○ ○ - ○ ○ ○ - ○ ○ ○ - ○ ○ ○

4음절어 -단한마디가 어두에 온 단어

례)백두산아, 렬사들이, 화불이여 등

● ● ● ● ● ● ● ● ● ● ● ● ● ●

-긴마디가 어두에 온 단어

례) 멀리에서 네거리에, 만리길에 등

- ○ ○ ○ ○ - ○ ○ ○ ○ - ○ ○ ○ ○

(소음자음을 받침소리로 하는 단한마디들을 발음할 때 길어지는것은 다음 음절사이의 휴지시간이다.)

우에서 말한 내용은 우리 말 문화어에서는 어두일

반에 세기마루가 다 떨어지지만 어두음절이 닫힌마디 또는 긴마디일 때 세기마루는 툼동속에서 현저한 요소로 될 수 있다는것을 말해주는것이다.

이상에서 본 단어들을 일반단어와 구별하여 편의상 운각이라고 부를수 있을것이다. 그렇게 하면 이런 3음절어들이 결합한 시행은 3음절운각시행 2음절어들이 결합한 시행은 2음절운각시행 또 4음절어들이 결합한 시행은 4음절운각시행이라고 부를수 있을것이다. 이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형식은 3음절운각시행형식이다.

례1) ...백두의 산밭아 압록의 물결아

(대성산렬사릉 《헌시》)

이 3음절운각시행은 3·3조 시행과 엄격히 구별된다.

례 2) 띠줄라 꼭 매고 행진해나갈 때
(3·3조)

3·3조에서는 음절수량상의 법칙만이 작용하며 전체적으로 보아 열린마디와 닫힌마디들에 규칙성 없이 혼재되어있다. 그러나 운각시행에서는 닫힌마디 1개와 열린마디 2개가 규칙적으로 교체 반복된다. 정형시(3·3조)에서는 전체 음절이 하나의 길이로 동일하게 발음되어야 툼동이 나타나기때문에 (뚜렛이 길고 강한 음절이 없다.) 그 툼동미는 잔잔하고 빠르다. 그러나 운각시는 뚜렛이 강하고 긴 음절과 짧고 약한 음절들이 교체되기때문에 그 툼동미는 힘있고 약동적이며 좀 느리다. 례1)과 례2)의 툼동미를 대비 음미해보자. 정형시형식인 례2)는 아무리 격동적억양으로 읽어보아도 힘있는 툼동이 나타나지 못한다. 그러나 례1)에서는 힘있고 억센 툼동이 나타난다. 이것은 우리 시가에 우리 말의 강약관계에 기초한 툼동형식이 내재 해있음을 확증해준다.

자유시를 분석해보면 2음절운각시행이나 4음절운각시행들도 찾아볼수 있다.

례) 낮도 씻고-, 산도 벌도

속도전의 불길이다! 온 누리에 떨치거니 등

그러나 3음절운각시행이 가장 툼동적인 까닭은 3음절운각시행에서는 전항에서 고찰한 민요조툼동이 나타날수 있기때문이다. 즉 례1)을 툼동억양으로 읽으면 발음시간관계에서 백=두의=산=밭아=

2음절길이가 된다. 그러나 2음절운각이나 4음절운각에서는 운각내부에서의 발음길이의 동일성은 나타나지 못한다.

운각시행에서는 음절수들이 서로 같지 않아도 일정하게 툼동이 나타날수 있다. (뚜렛한 강약의 변화를 가지기때문이다.)

례) 불길이 란다! 산도 떨치고 백두산의 화불이-

운각에서 약한 부분은 열린마디일 때 가장 효과적이지만 닫힌마디가 와도 일정하게 툼동이 나타날수 있다.

례) 흰벽을 휩싸는 기발이 휘날린다.

(《조국의 지도앞에서》 최영화)

어말에 《을》, 《는》 등 닫힌마디가 왔으나 짧게 발음되기때문에 고유한 툼동이 거의 그대로 나타나고있다. (음절 《기》는 열린마디로 표기되었으나 닫힌마디로 발음된다.)

어두에 닫힌마디가 온 운각과 긴마디가 온 운각은 호상 잘 어울리면서 툼동을 나타낸다.

례) 정순이 언땅을 두드린다.

(《조국의 진달래》)

이렇게 류형이 다른 두가지 운각에서 음절수가 서로 달라도 일정하게 툼동이 나타날수 있다.

례) 강물이 언다. 이 글을 쓴다!

(지시대명사 《이》, 《그》, 《저》는 시에서 장음으로 쓰이기도 한다.)

운각에는 강한 부분이 2개의 닫힌마디로 구성된 것들도 있다. (례 ●●○○, ●●○). 이런 운각에서는 말한마디 2개가 린접하기때문에 어두가 매우 강해진다. 일반적으로 동일단어 또는 이웃단어 사이에서 닫힌마디들이 린접하면 호상영향으로 두음절이 다 강조되며 또 강조하기가 쉬워진다. 례 킨대 《누리에 떨치라》에서보다 《힘을 떨치라》에서

음절 《떨》이 더 강조되고 또 강조하기가 쉬운 까닭은 후자에서 닫힌마디들이 린접한때문이다. 이리하여 닫힌마디뭉음으로 된 단어들(례, 청년, 광장, 장

군별, 만풍년 등)은 우리 말 어휘중에서 가장 강조

되고 또 강조하기 좋은 류형의 단어들이다. 이런 류형의 단어가 기본으로 되어있는 우에 본 민요형식의 툼동미가 힘있고 약동적인 까닭이 여기있다.

운각 《●●○○》은 동일한것끼리 또는 《●○○》과 잘 어울린다.

례) 용광로의 숨결소리

심장속에 해발을 일으켜라

• • • • •
운각중에는 닫힌마디가 이중(두번째 위치)에 온것
도 있을수 있다. (○●○,○●○○ 등)

례) 귀틀집에 차넘치여

• • • • •

구름도 바람도

• • • • •

여러가지 운각들이 자체내에 호상 같은 요소를 가
지고있으면 불동을 나타낼수 있다.

례) 구름도 란다 구름도 불타고

• • • • •

강가의 바람도 추풍령이 떨치고

• • • • •

산천에 차넘치여

• • • • •

자유시에는 3음절운각이 결합된 례들이 가장 많
다.

례) 아, 금지는 넘치고

• • • • •
영광은 만리에 비껴가라,

• • • - • • •

(《우리는 그이의 친위대 돌격대》 오필천)

례) 금강의 메부리 비바람에 다하도록

• • • • • - • • •

영원히 받들어가리라

• • • • •

온 심장으로 온 생명으로!

- • • • • - • • • •

(《친애하는 그이의 영상 우러르면》 원석파)

(○받침을 가진 닫힌마디도 다음 음절 첫소리가
모음인 경우에는 일부, 열린마디와 동일하게 표기
하였다.)

자유시에는 또한 3음절운각시형식과 앞에서 고찰
한 민요조형식이 혼성된 례들을 많이 찾아볼수 있다.

례) 아버지수령님을 위대한 태양으로

• • • • •

충성의 하늘높이 받들어 모시고

• • • • • - • • •

2행후반에는 3음절운각이 2개 결합되어있으며 1
행후반과 2행전반에서는 민요조를동이 나타난다.
즉 대체로 보아 위대=한=태양=으로=충=성의=하늘
=높이=받=들어=모=시고= 2음절길이로 되면서 불
동이 나타난다.

례) 첩첩 층암이 창공을 치뿔으고

• • • • •

절벽에 눈뿌리 아득해지는 이곳

• • • • •

(《백두산》 조기천)

2행전반에는 3음절운각 2개가 결합되어있으며 1

행과 2행전반까지 민요조를동이 나타난다. 《첩첩
층암이》는 《각각 숨어라》와 같은 형식이지만
《층암이》가 시행법에 놓이지 못하기때문에 1음절
길이가 모자라서 이 단어는 민요조를동내에 포함되
지 못한다. 첩=첩=창=공을=치뿔=으고=절=벽에=눈
=뿌리= 2음절길이로 된다. 만일 《층암이》의
《이》를 길게 읽으면 첩=첩=층암=이-= 2음절길이
로 되면서 이 단어까지 민요조를동내에 포괄 된다.

례: 원쑤에게 마지막 복수의 죽음을 주고야 말리

• • • • •

네가 불탄 그 백배의 불길에

• • • • •

(《기발을 날린다》 리맥)

2행후반에는 3음절운각 2개가 결합되어있으며 1
행가운데부분과 2행전체에서는 변조된 민요조를동
이 나타난다. 마치 =막=복=수의=주그=물= 2음절길
이 네가=불=탄=그=백=배의=불=끼레= 2음절길이다.

3음절운각인 ●○○(-●○)은 민요형식에 쓰이는
여덟가지류형에 속하는 한가지 단어이기는 하지만
우리는 닫힌마디(또는 긴마디)가 어두에 온 이런 단
어가 3개는 고사하고 2개 결합되어있는 민요, 동요
를(단 한수도) 찾아내지 못하였다. 우리 말이 가진
뚜렷한 강약관계에 기초한 이러한 3음절운각시행형
식의 광범한 리용은 오직 해방후 개화발전한 우리
시문학에 의해 시작된것이다.

2)

우리 말이 가지는 뚜렷한 강약관계에 기초한 불동
형식에는 우에서 말한 형식 말고도 여러가지가 있다.
그중 중요한것은 뚜렷이 강한 부분이 시행의 일정한
자리에 배열되는 형식이며 그 대표적인형식은 뚜렷이
강한 부분이 시행 첫머리에 배열되는 형식이다. 이
형식은 조선문학사상 혁명가요들에서 처음으로 창
시되었다. 혁명가요중에는 시행 첫 머리에 닫힌마디
들이 집중되어있는 시행들을 많이 찾아볼수 있다.
(닫힌마디들이 린접되면 매우 강한 부분을 이룬다.)

례) 용진용진 나아가세 용감스럽게

• • • • •

억천만번 죽더라도 원쑤를 치자

• • • • •

(《유격대행진곡》)

펄펄 끓는 붉은피를 가슴에 품고

• • • • •

악전고투 이겨나갈 전사들이여

• •

(《붉은 피》)

설한풍이 휩쓰는 험한 산중에

• • •

결심품고 싸워가는 우리 혁명군

• • •

천신만고 모두다 달게 여기며

• • •
(《혁명군의 노래》)

이 혁명가요들에서는 단순한 정형률이 아니라 우리 말의 뚜렷한 강약관계가 톨동조성에 일정하게 참여하고있다는것을 보여주는것이다.

해방후 우리 시문학은 혁명가요의 빛나는 전통을 그 내용에서뿐만아니라 그 형식(운률)면에서도 적극 계승하여왔다. 우리 인민이 애송하는 서사시 《백두산》은 뚜렷이 강한 부분이 시행 첫머리에 배열되는 형식을 매우 많이 가지고있는바 머리시와 맺음시, 전설적영웅이신 청년장군 **김일성** 동지께서 홍산골싸움터에 나서시는 장엄한 장면 그리고 소년투사 영남의 장렬한 최후장면 등이 모두다 그런 형식으로 쓰여져있다.

례) 《백호》의 소리없는 웃음에도

• • •
격과 솟아 구름을 삼킨다는

• • • •
천지의 푸른 물줄기로

• • •
이 땅을 파물아치던 살풍에

- • •
마르고 탄 한가슴을 추기고
천년 이끼오른 바위를 버루돌 삼아

• •
곰팡이 어렸던 이 붓끝을

• • •
육박의 창끝인듯 고루며

• • • • • • • •
이 땅의 이름없는 시인도

- • •
해방의 오늘 말하련다!

(《백두산》 조기천)

이것은 서사시의 머리시이다. (1) (2)의 매 시행 첫머리에 놓인 단어들을 (두행을 제외하고) 뽑아보면 《백호의》, 《격과》, 《천지의》, 《이 땅을》

• • • • • • • • - • •
《천년》, 《곰팡이》, 《육박의》, 《이 땅의》이다.

• • • • • • • • - • •
바로 이런 단어들에서 어두의 닫힌마디와 긴마디들은 뚜렷이 강한 음절로 될수 있는것이다. (앞에서 고찰) 이리하여 이 시를 내용에 어울리는 억양으로 읽으면 시행 첫머리들이 뚜렷이 강하게 발음되면서 전체적으로 매우 힘있고 격동적인 독특한 톨동이 나

라 난다.

•
례) 흰 두루마기자락이

• • • • • • • •

•
대공으로 솟아오르려는

- • • • • • • • • • •

•
거센 나래같이 퍼덕이는데

- • • • • • • • • • •

•
온몸과 팔과 다리-

- • • • • • • • •

모두다 약진의 서슬에 불붙고

• • -
(《백두산》 조기천)

4개 시행 첫머리에 닫힌마디와 긴마디들이 배열되어있다. 이 시를 그 내용에 어울리는 억양으로 읽으면 시행 첫머리들이 뚜렷이 강해지면서 독특하게 장엄하고 격동적인 톨동이 나타난다. 시행 첫머리의 긴마디와 닫힌마디를 뚜렷이 드러내기 위하여 나머지 음절은 거의 다 열린마디만을 썼다.

이상에서 고찰한 내용을 통하여 조선시가에는 정형시형식 말고도 또 다른 두가지 톨동형식이 있다는 것, 이 형식들의 톨동미는 힘있고 활달하며 이 형식은 주로 소형태들을 이루어 자유시들속에 널리 침투되어있다는것을 알수 있다. 우리 선조들이 오랜 기간 민요, 동요 등에 리용하여온 밝고 약동적인 톨동미를 가진 민요형식이 해방후 우리 시인들에 의해 그 다양한 변형식으로 창조되어 자유시창작에 널리 리용하게 된 점 그리고 조선문학사상 처음으로 조선말의 뚜렷한 강약관계가 톨동의 기초로 되는 새로운 시가형식이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창작된 혁명가요들에서 개척 되었다는 점 그리고 그것이 오늘 우리 시인들에 의해 더욱 풍부하고 다양한 형식으로 창조되고 광범하게 리용하게 된 이 점은 바로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중앙의 올바른 령도와 끊임없는 보살핌의 뚜렷한 표시이며 주체적 문예사상과 문예리론의 찬란한 빛발아래 개화발전하는 우리 시문학의 새로운 면모의 힘있는 과시이다.

또한 이 모든 성과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시고 영광스러운 당중앙이 우리 인민을 이끌어 대를 이어 완성해나가는 주체위업수행의 장엄한 현실을 우리 시문학이 직접 담을수 있게 된 사정과 관련되는것이다.

내가 만난 소조원처녀

박 세 옥

첫 인 사

구불구불
안개에 묻힌 령길
울랐는가 하면 시작이고
시작인가 하면 중턱인
앞에도 뒤에도 굽이굽이

한굽이 돌아돌면
내가 찾아가는
두줄기 철길이 보일듯
차창밖을 내다보면
분비 가문비 울창한 숲이 마주오고

또 한굽이 돌아들면
이제 내가 만날
소조원 그 처녀가 있다는
산촌의 작은 역이 보일듯
몸을 솟구면
소란한 산골물이 흘러오고

봄이 오르다 중턱에서 머물고
가을이 여기서 먼저 시작된다는
높고높은 령길을 따라
산촌의 빠스는 달리네

하지만 문득 령길에서
달리던 차는 멎었네
정류소도 초막도 하나 없건만-
운전수는 반기며 문을 열어주고
길가던 처녀가 불쑥 차에 올랐네

그러자 차안은 설령거리고
정다운 복관사투리로 넘쳐났네

읍에서 낮익힌 공훈광부도
첫아기를 안고 친정에 간다는
지방산업공장의 아주머니도
차안이 들썩 그를 가까이로 부르네
아마도 그는 이 산촌마을의 처녀이리

굽이굽이
돌고도는 령길
산촌사람들에 둘러싸인 그 처녀를
흔들리는 어깨너머 바라보는데
서로 주고받는 뜻밖의 말이
나를 놀라게 했네

산우에 또 산
철길도 머나먼 산촌
정다운 기적소리 안고와
어버이수령님 수송방침의 높은 뜻
이 산촌에도 꽃피우는
그 처녀가 다름아닌 내가 찾아가는
3대혁명소조원처녀였네

아, 온 산촌이 다 알고
온 군이 다 아는
3대혁명소조원처녀
그와 첫인사를 나누며
그때에야 나는 알았네

그렇게도 내가 찾아가는
그 철길이 이 령길우에도 놓여있고
그렇게도 내가 보고싶던
그 역이 내가 가는곳
이 땅 그 어디에나 다 서있다는것을!

두줄기 철길

-한 철길순회원이 돌려준 이야기-

1

나는 모르고있었소
소조원동무가 묻기전에는
힘한 벼랑
심산 협곡을 안고 돈
두줄기 철길

40년을 하루같이 밝아온 침묵이 몇개인지
한평생
이 철길우에서
얼마나 많은 렬차를 맞고 보냈겠소
안해도 이 철길우에서 맞고
전선으로 떠나는 말이도

이 철길우에서 바래우고
셋째머느리도 이 철길우에서 맞았소

국가표창도 여러번 받았지요
누구보다 이고장 일을 잘 안다는
내가말이요
모르고있었다우
찬이술에 뜨거운 벌에
함께 젖고 마르던 그 침목이 몇개인지
우리 철길대에 온 소조원동무가 가르쳐주기전에

두줄기 철길우에 나서면
모여오는듯싶소
우리 철길순회원들처럼
배낭을 어깨에 메고 걸어가는
우리 소조원동무가

그의 발밑에선
침목들이 노래하오
우리 소조원동무는
지나가는 차바람에 흔들리는
침목의 피로움을 어디서나 들을줄 안다오

어찌 안그렇겠소
그 하나하나의 침목이
당을 받드는 우리의 마음이 아니겠소
만약 그 어느 하나의 침목이
두줄기 철길을 제대로 받들지 못하면
조국의 걸음이 얼마나 떠지겠소

눈을 감고서도 끝에 가닿을 그 길을
옛날처럼 걷지 않는다오
하나하나 침목을 세이며 걷는다오
당을 받드는 내 마음이
조금이라도 흔들릴가봐
조금이라도 흔들릴가봐

2

나는 모르고있었소
눈보라 사나운 깊은 밤
철길우에서 소조원동무를 만나기전에는

나보다 먼저 철길우에 찍힌 그 발자욱이
누구의 발자욱인지 모르고있었소

소낙비 퍼붓는 깊은 밤엔
비물이 고인 발자욱
눈보라치는 한밤엔
눈속에 묻혀지는 발자욱
그 발자욱을 따라가면서도
길바쁜 나그네의 발자욱인줄만 알았소

깊은 산촌
힘한 산골
바람소리도 호랑이 울음소리 같고
세찬 산골 물소리도 곰울음소리로 들린다는
혼자서는 남자들도 무섭다는 밤길을
우리 소조원동무는 나보다 먼저 걷는다오

두줄기 철길우에
늘 함께 있으면서도 나는 모르고있었소
그 발자욱을 따라가면서도
언제나 나는 생각했다우
내가 기관차보다 먼저 간다고
내가 걸어간 길을 따라 기관차가 달려온다고

우리는 언제나 철길우에서 만난다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깊은 밤 침목을 밟으며
두줄기 철길을 따라가며
눈속에 피여진 침목
죄여진 나사들을 보느라면
저절로 가슴속에 생각이 깊어지오
소조원동무의 그 발자욱을
신호등 불빛에 비추어보며

아, 40년을 하루같이
내가 먼저 걷는다고 생각한 그 길을
우리 철길대에 온 소조원동무가 먼저 걷는다오
비오고 눈이 와도 지워지지 않는
그 발자욱을 따라 내가 가고
그뒤로 기적소리 높이 긴 렬차가 달려온다오

렬차우에서

한해후이면,
소조원처녀의 북소리는 떨렸네
눈을 좁히며 바라보는
그 눈에 큰 산이 마주오고
구름속에 산발속에
외로이 나타났다 사라지는
두줄기 철길을 가리키며
그때면 여기에도
형제처럼 나란히 새 철길이 놓이고
굽이굽이 한굽이마다에
기적소리 노래처럼 울리리라네

한해후이면,

조용히 눈길을 돌며
소조원처녀는 이야기했네
산굽이를 돌아 마주오는
한적한 산촌의 작은 역을 바라보며
이고장에 새 광산이 개발되었다고
그때면 저 작은 산간역이
조국의 그 어느 역보다 번화한 역이 되리라고

그때면 그때면
몇사람이 오르고 내리는
이 산간렬차는 설자리도 없으리라네

한해후이면,

차바퀴소리에 끊어지고 이어지는
산촌의 맑은 물소리에 귀기울이며
소조원처녀는 말했네
하루에도 수만마리 새끼고기를
렬차에 실어 저 강물에 놓아주고있다고
그때면 산천어들이 저 물우를 뛰어오르고
이 산촌을 지나는 사람들
려행길이 더 즐거우리라네

그날을 이야기하는
소조원처녀의 눈에 이슬은 맺히고
나는 차창가에 기대인채
움직일수 없었네
오르고 내리며
무심히 바라보던 그 산촌이여서
그렇게 이제는 바라볼수 없어
그날이 나의 눈앞에 끝없이 펼쳐지여

한해후이면
한해후이면
조용히 외워보는 나의 가슴에
그날에로 나를 실고가는듯
높아 더 높이 올리는
차바퀴소리 아아, 차바퀴소리-

충심으로부터

구름속에 사라진
두줄기 철길
한여름에도
난로에 장작불이 타는
산간의 작은 역을 지날 때

나는 보았네
불빛 등근모자를 머리우에 얹은
반백의 운전지휘원이
나와 함께 가는 소조원처녀를 향해
엄숙히 모자채양끝에 손을 가져가는것을

들어오는 렬차를 맞을 때
떠나가는 렬차를 바래올 때
모자채양끝에 올리던 그 손을
오래도록 내리지 않을 때
소조원처녀는 얼굴을 붉히며

나를 바라보더라

바로 저손
큼직한 저 손이 아니던가
조국이 어렵던 그날엔
저 손으로 조국을 떠받들고
조국이 일떠서던 그날엔
저 손으로 조국을 빛내인-

아, 위대한 수령님을 따라
당을 따라
변함없이 한길을 걸어오며
조국을 떠받든
저 무겁고 큼직한 손이
어찌하여 그대를 향해 먼저 올리는것인가

귀밑머리 희여지도록

이마에 굵은 주름이 잡히도록
 늘 보아온 두줄기 철길
 그 철길우에
 어버이수령님 보내주신
 3대혁명소조원 그대가 나타나자
 아름다운 꿈을 안고
 그 철길은 뻗어가고 뻗어갔거니

깊은 밤에도
 밤이슬에 젖은 침목을 밟는
 그 발자욱소리를 들으며
 잠못들던 그들이기에
 산촌에 밤별이 멀어져도
 꺼질줄 모르는
 그대의 불빛을 두고
 가슴울렁이며 이야기하던 그들이기에

령높은 산촌에
 세 폭의 붉은 기발을 날리며
 온 산촌을
 어버이수령님의 뜻 당의 뜻으로 이 끌어가는
 그대는 3대혁명소조원

혁명의 전위이기에

받으라!
 저 인사를
 하고싶은 말
 천만가지의 뜻을
 저 한손에 담아
 그대에게 보내는
 충심으로부터의 존경과 감사에 찬 저 인사를

받으라!
 저 인사와 다름없는
 걸음마다 생각이 깊어지고
 걸음마다 노래로 이 세상에 전하고싶은
 수령님 날려주신 세 폭의 붉은 기발을
 이 땅우에 노을처럼 펼쳐든
 3대혁명의 전위
 그대에게 보내는 나의 인사도
 조국이 보내는 인사도 받으라
 그대가 아니고 이 모든 인사를 그 누가 받을수 있
 으랴!

푸른 신호등을 따라

푸른 신호등
 푸른 신호등
 어둠속에 멀어져도
 그 불빛은 따라오며 바래주는듯
 저 멀리 흔들린다
 차바퀴들은 속삭이고
 나는 차창밖을 내다본다
 밤은 깊어가고
 웃으며 저 푸른 불빛아래 바래주던
 소조원 그 처녀가 서있는듯

밤안개 불리는 차창가에
 어리여오누나 낮익은 그 모습이
 달려오는 렬차를 먼저 만지며
 손에 든 푸른 신호등을
 앞으로 들어 맞아주던
 그 푸른 불빛이

보여오누나 정다운 그 모습이
 그 불빛을 반기며
 기적소리 높이 달려오던
 긴 렬차가 산굽이를 돌아가도

오래도록 바래주며 흔들어주던
 그 푸른 불빛이

푸른 신호등
 푸른 신호등
 차창가에 엿바뀌며
 끊임없이 지나가는 새 역들
 그 푸른 불빛은 반짝이며 흔들리고있구나
 소조원처녀가 흔들어주던 그 불빛처럼 그 불빛
 처럼

거밋거밋 강피들이
 차량마다 넘치는
 두줄기 철길우에
 압록강 푸른물에 흐르던
 구성진 때목의 노래를 싣고
 끊임없이 유조차들이 달려가는
 두줄기 철길우에
 이 밤 나를 싣고 가는
 렬차를 바래우며
 두줄기 철길우에 끝없이 흐르는
 푸른 불빛이여 푸른 불빛이여

우리 가는 길 위에
 은하처럼 흐르는
 저 푸른 불빛은
 주체의 노을로 온 누리를 물들어가는
 영광스런 당중앙의 높은 뜻을 받드는
 3대혁명소조원처녀의 충성에 불타는 마음이거니

두줄기 철길 위에 끝없이 흐른다
 푸른 불빛이 푸른 불빛이

그 끝없는 불빛아래 서있구나
 3대혁명소조원 그 처녀가
 위대한 수령님 안겨주신
 세 폭의 붉은 기발을 날리며
 내가 가는 앞길에 우리 가는 앞길에!

매 덕 령

리 덕 진

고향을 지켜선 성새인양
 매덕령이여
 너는 오늘도
 봄이 꽃피는 땅을 거느리고
 거연히 솟아있구나

전화의 날
 내 사랑하는 고향을 지켜
 포화의 불바다 너의 봉우리에
 꿈이 부푸는 청춘의 한순간을 불태운 몸
 이제는 머리에 서리가 내려
 손자녀석의 어리광을 받으며
 로년기의 문턱을 넘어선다만
 마음은 언제나
 너의 숨결로 살아라

오, 어디에 있느냐
 전화의 불비속을 함께 헤쳐온
 고향사람들아
 한줌의 흙, 한치의 땅이
 그리도 귀중해
 매덕령 너의 파헤쳐진 땅을
 피흐르는 가슴에 끌어안은채
 끝내 전호가를 내리지 않았거니

당과 조국을 위하여
 고향사람들이 흘린 피로
 하늘아래 첫 동네로 버림받던
 너의 기슭에 사과꽃이 함뿍 웃고
 흰구름 피는 내 고향의 푸른 하늘에
 자위의 성새로 영원히 솟아
 엄엄한 빛을 뿜는것 아니냐

아름드리나무도 뿌리 채 날리고
 바위마저 흔적없이 흩어져도
 고향을 지켜선 우리에게

물리설 한치의 땅 없었더라

뒤에는 돌도 없는 나의 조국
 사랑하는 고향의 산과 들
 백악관의 전쟁미치광이들이
 수억만발의 폭탄으로도
 불태울수도 빼앗을수도 없는
 벅찬 새 삶의 터전이 있었나니

목숨과도 바꿀수 없는
 고향을 안은 사람들의 심장만은
 매덕령이여
 내 너를 끌어안고
 세차게 살아 고동치고있었구나

아, 저기 점점이 꽃이 진하게 핀
 비탈진 기슭이 아니냐
 저기 여덟번째 돌격을 물리치려고
 수류탄을 안고 내리던 그 전호가가 아니더냐

축포터지는 전승의 날
 고향사람들의 마음과 마음을 담아
 장군님께 향기그윽한 생화를 드리자고
 전투의 순간 순간마다
 들꽃씨를 고르고고르던 그 모습
 두팔벌려 사랑하는 부모처자 안아보자던
 고향사람들의 그 꿈이 깃들었던곳이...

산새 우짖는 산촌에서
 때목을 타고 내리던 그 행복이 큰것만큼
 새생활의 첫 꽃다발의 감미로운 향기에 취하여
 처녀와 함께 걸던 능귀장기슭의 밤이
 가슴속에 영원한것만큼
 그 어떤 침략자도

발밑에 딛고 설수 있다는것을

고향사람들이 온 세상에 보여준
너 정든 고향의 매덕령

아, 아
사랑하는 고향을 거느리고
거연히 솟은 매덕령 매덕령
고향 - 조국의 존엄이 빛발치는
승리의 봉우리여

너는
어제도
오늘도 영원히
우리의 신념, 우리의 의지
미제침략자들의 멸망을 선포한
내 고향의 영원한 모습
사랑하는 조국의 모습이어라

신념 외 1편

장 선

모진 악형에 두눈을 잃은
항일의 너투사가
원쑤를 전물케 한 밝은 웃음이더나

못잇을 혁명시인 김혁이
한별 만세를 높이 부르며
2층로대우에서 아낌없이 내던진
푸른청춘이더나

무엇이더나
너는 분출하는 화산의 용암에 녹을지언정
그 어떤 회유에도 흔들리지 않는
역세인 산악이더나
아니면 부서질줄 알면서도
절벽에 부딪쳐 흩어지는 파도이더나

교수대우에서도
백만의 원쑤앞에서도
신념이여 너를 지니면
비굴이란 티끌만치도 모르더라
너를 지니면 피흘려 쓰러지면서도
수류탄고리를 뽑아물고
육탄되어 적진속에 작렬하더라

너는 교형리들의 교수대우에서도
흐려지지 않는 눈동자, 굳게 다무는 입술,
꺼꾸로 매달아도 바로 매달아도
오직 수령님과 당에 향하는 마음,

천길 땅속에 천년을 묻혀도
옥처럼 티가 길줄 모르는것,
필필 끓는 쇠물속에 던져도
터져오르는 혁명 만세의 웨침소리...

아, 너는 어떤 역경속에서도
원쑤를 이기는 철의 의지
불에 타도 칼에 맞아 열백번을 죽었다 살아도
한평생 혁명의 길에 드림없는
불변하는 혁명가의 일관단심
인간존재의 가치를 규정하는
세상에 가장 아름답고 고결한
참다운 삶의 징표!

너는 죽지 않는것
너를 지켜 목숨을 바친 투사
투쟁의 노래속에 영생하고
그의 후대들
만민의 영원한 사랑속에 안겨살더라

행복한 순간에보다
생명을 내대야 하는 역경속에서
심장속 더욱 깊이 너를 지니리

내 언제나 너를 지켜
력사와 후대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리
수령님과 당을 목숨으로 받드는
아아, 우리의 혁명적신념이여!

남녘의 투사를 생각하며

깊은 밤
이름없는 투사의 이야기책을 덮으며
은하수 비껴간 지 하늘 멀리

남녘땅을 바라보노라
죽어도

스무살 푸른젊음에 죽어도
김일성 동지저작연구회의 밤을 지키려
추격의 총성 달고 피흘리며 갔더라

비내리는 여름날
지하투쟁의 풀막속에서
눈내리는 겨울밤 찬눈속에서
수령님의 저작을 순간도 손에서 놓지 않았던 그대
조직을 늘어가던 그날
수령님저작을 읽으며
눈동자 별처럼 빛나던 그대
그 귀중한 저작만은 적들 손에 안주려
피흐르는 가슴 움켜쥐고 가고갔더라
흰눈을 점점이 붉게 물들이며...

아, 그대 생각으로 잠들수 없는 밤이여
그대는 수령님저작의 굴줄마다에서
민족의 운명과 미래를 보았고
찾을길 없던 자신의 운명과 삶의 가치를 찾았기에

주체의 불씨를 심은 조직을 남겨놓고
피붉은 광주의 거리를 비워놓고
어린것을 남겨놓고 그대는 갔거니

밤이 깊어갈수록
투사의 모습을 그리며 깊어가는 생각
김일성 동지의 저작을 마음껏 배울수 있는
나는 정녕 얼마나 행복한것인가
이 행복을 함께 누려야 할 형제들이
하나의 강토 남녘에 있음으로 하여
나의 어깨는 얼마나 무거운것인가

나는 펼치노라
살아 한세에
투사가 그렇게도 자기의 서가에 꽂고싶어하던
김일성 동지의 저작을 나는 펼쳐드노라!
남녘의 투사
그가 남기고 간 일을 생각하며...
내가 해야 할 일을생각하며...

가 사

영원히 당을 바르는 마음

황 명 성

자애로운 당의 품에 우리 안기여
이 한마음 충성의 꽃을 피우네
그 언제나 우러러따르는 마음
다함없는 행복속에 더욱 불타네

영생하는 나의 생명 그 품에 있고
희망넘친 나의 미래 그 품에 있네

당이여 내 오직 바라는 마음
그대 위해 몸바치는 기쁨이여라

깨끗한 마음 없인 부를수 없고
바치는 충성 없인 안길수 없네
대를 이어 영원히 믿고 따르며
당이 가는 길이라면 함께 가리라

가 사

조선아 만세를 부르자

림 공 식

해썬은 내 나라 락원의 강산에
향도의 해발이 밝게도 빛나네
아, 조선아 만세를 부르자
인민의 기쁨이 하늘에 닿았네

이 세상 끝까지 그 해발 넘치고
사람들 한마을 우러러따르네

아, 조선아 만세를 부르자
인민의 소원이 누리에 꽃궜네

그 해발 찬란해 영광은 끝없고
희망의 언덕엔 봄노래 울리네
아, 조선아 만세를 부르자
주체의 그 위업 만대에 떨치리

뜨거운 겨울

림 종 상

근위사단장 엄학철의 중대장시절은 제 2 전선의 개시와 함께 되었고 그 승리적종결과 함께 끝났다.
...

X

태백산밀림의 눈보라에 파묻힌 대오는 북으로 가고 있었다.

경상북도의 넓은 지역에 다시 진출하여 적들의 뒤 통수를 무자비하게 후려치던 제 2 전선부대의 사령부였다.

명령을 받고 복상하는 사령부의 기동을 눈치챈 적들은 포위망을 형성해보려고 발악적으로 달려들었다.

묘하게 적을 따돌린 사령부가 어느 한 고지에서 잠시 휴식하게 되었다.

한낮이 좀 기운 때였다. 휴식명령이 떨어지자 병사들은 배낭을 베개삼아 눈우에 벌렁벌렁 나가 넘어졌다. 지쳤던 것이다.

무거운 걸음을 옮기던 군단경비중대장 엄학철은 잠들어버린 전사들을 점검이나 하듯 더듬어나가다가 성애가 뒤덮인 다래덩굴에 눈길을 세웠다. 눈두덩까지 군모를 꼭 내려쓴채 단잠에 곯아 떨어진 한 전사를 보았던 것이다.

대오에서 홀로 떨어져 자고있는 그의 터실터실해진 입술덕지우에서 반짝이는 서리꽃이 눈을 아프게 찔러댄다.

아직 이렇다할 군공을 세운적은 없으나 진격하던 남진의 길에서나 간고한 적후투쟁의 길에서나 언제나 익살로 중대를 즐겁게 해주던 학생출신의 전사 송경호였다.

한번은 중대에 내려온 엄격하고도 무뚝뚝한것으로 알려진 백전로장의 항일투사인 군단장까지도 자기의 익살로 허리를 꺾게 했다는 엉터리 허풍을 털어 말밥에 오른 일은 있었으나 학철에겐 밋지 않은 경호였다. 중대에 윤택한 생활을 마련해주기 때문이었다.

다만 그가 천성적으로 지닌 의협심으로 하여 이따금 드러내게 되는 자유주의적행동만 없다면 학철은 그를 허바닥우에 떠앉히었을 것이다

바로 그가 지금도 홀로 떨어져 자고있는것부터가 몸에 웅두라지처럼 박힌 그 자유주의때문이라고 학철은 판단했다.

학철의 눈앞에는 얼마전 대렬앞에 경호를 세워 놓

고 주의를 환기시키던 앞이 느닷없이 떠올랐다.

...중대가 의용군출신 병사의 고향인 어느 한 산간 마을을 옆에 두고 지나던 때였다.

추격하던 적들을 호되게 답새겨대고 부대는 은밀히 마을을 에돌아 뒤고지에서 다시 작전을 꾸며야 했다. 명령으로 전달된 이 작전을 모르는 전사는 없었다.

중대의 맨뒤에서 부대의 이동을 보장하던 학철은 마을막바지에서 때아닌 때 울린 두방의 총소리를 듣고 정신없이 달려갔다.

《뭐요, 적인가?》

학철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아닙니다. 이 반동놈들이 글세...》

경호의 대답을 뜻밖의 장소에서 듣게 된 그는 놀랐으나 침착하게 되물었다.

《그놈이 어떤단말이요?》

《허 글세 이런 하루살이같은게 우리 인민군전사의 부모님들을 묶어놓았길래 소원대로 한방 쏘갈것습니다.》

그제야 학철은 너부러진 두놈의 시체를 보았다.

《보십시오. 간단히 처리했더니까요.》

경호가 태연하게 너스레를 떨었다.

《누가 동무를 마을에 들리라고 했소?》

《이 동무가 자기 집에 잠깐 같이 들렀다가자구 하기에 몰래 들렀습니다. 보고는 못했어도 둘러보길 얼마나 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때 의용군출신의 전사와 그의 늙은 부모가 학철이앞에 다가와서 고마운 치하를 안했더라면 학철은 경호를 호되게 추궁했을 것이다.

사태는 명백했다. 허나 명령을 어겨 총소리를 냄으로써 작전에 밤시 혼란을 주었다는 생각에 학철의 속은 부글거렸다. 천만다행으로 그날 작전에는 지장이 없었다. 그러나 학철은 경호의 행동을 스쳐버릴 수가 없었다....

주의를 받고있는 경호는 너무도 태연했다. 무엇을 잘못했소? 하는 반발심과 전우의 부모를 구원했다는 자부심이 얼굴에 내배였다.

이때 마침 군단장이 와서 호된 비판을 했기에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으면 경호는 제 잘못도 깨닫지 못하였을 것이다.

《...동무, 혁명대오의 엄밀한 작전은 한사람의 자유주의로 하여 파탄될수 있으며 수천명의 동지들을

피흘리게 할수 있소.》

그 말에 경호는 머리를 푹 숙이더니 《군단장동지 절 처벌해주십시오.》라고 맥빠진 소리를 하는것이였다.

《중소, 오늘만은 용서하겠소. 중대장, 톡톡히 비판하시오.》

대오는 흠어졌으나 전사들은 떠들지 않았다. 주의를 받은 경호를 생각했던것이다. 그러나 얼마 안가서 분위기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지 경호는 제 총에 맞아 너부러지기전에 살려달라고 애걸하던 반동놈들의 추태를 그럴사하게 흉내내어 전사들을 한바탕 웃겨놔던것이다.

그때 학철은 채심이 부족한 그를 강한 규률속에서 단련시켜야 하겠다고 속다짐했다....

단잠에 든 경호의 숨외투를 여며준 학철은 빙그레 웃으며 허리를 폈다.

《거 중대장동무가 아니요?》

군단장의 조용한 목소리가 들렸다.

서둘러 영접보고를 하려고 학철이가 손을 모자밀에 막 붙이려는데 군단장이 손가락으로 자가 입을 막자 그만두었다.

《동무네 중대 피짜로군그래, 주의를 받은 다음엔 좀 고쳐졌는가?》

웃음이 실린 물음이었다.

군단장은 허리를 굽혀 경호의 헤쳐진 솜옷앞섶을 꼭 여미여주면서 빙그레 웃었다.

《아직두 좀...》

《그렇다?》

석연치 않은 표정이었다.

《그래도 저 친구 의리도 있고 남자의 담력도 있어. 잘 돌봐주라구-》

군단장은 중대장의 허리를 한손으로 감싸며 언덕쪽으로 갔다.

《학철이, 설 때마다 번번이 동무를 불러서 안됐소. 전방초소에 갔다오우. 30 분안으로. 놈들이 잠잠한게 좀 미심쩍단말이요.》

《알았습니다.》

그는 힘있게 대답했다. 곤난할 때마다 특별한 신임을 받는다는 긍지를 안고 그는 돌아섰다.

《가만- 학철이, 동무네 그 피짜의 고향이 이 부근이 아니던가?》

뜻이 담긴 물음이었다.

《그렇습니다. 송학동이라구 10 리쯤 지나왔습시다.》

《집소릴 안하던가?》

《못들었습니다.》

《집에 누가 있소?》

《부모와 안해 그리고 12 살났다는 누이동생이 있다고 했습니다.》

《젊은 안해까지?》

아버지다운 너그림과 호기심이 담긴 웃음이 군단장의 얼굴에 확 내뿜었다.

《3 대외독자라고 그의 부모들이 좀 서둘렀던 모양입니다. 경호동무는 집에서 80 리쯤 떨어진 읍에 나가서 고증을 다니다가 입대했습니다. 집사람들의 바래움도 못받고말입니다. 그런데 뭐 그 동문 한달이면 승리하고 돌아간다는 편지를 전보대에 붙이고 전선으로 탄원했답니다.》

《허허 ...》

군단장은 고개를 끄덕이였다.

《역시 피짜요. 자 그럼 갔다오우!》

눈보라속을 달려가는 그를 군단장은 미더운 눈길로 바라였다.

전방초소에서 돌아왔을 때 학철은 경호가 단심으로 송학동에 파견되었다는것을 알았다. 우리의 기묘한 전술에 속히온 적들이 또 포위전을 쳐보려고 송학동일대로 집결할수 있다고 짐작한 군단장은 경호가 집에 들리는것처럼 가장시켜 보냈다는것이다.

학철은 속이 철렁했다.

군단장이 취한 조치니만큼 의문을 표시할수 없는 것이 안타까웠다. 학생복을 갈아입고 군단장의 권총까지 품고 떠났다니 마을이 좀 놓이기는 했으나 그는 어쩐지 경호가 물가에 나간 아이처럼 불안했다. 이 시각에 그의 가슴을 옥죄여주는것은 경호의 우점보다도 그 인이 박힌 자유주의가 몇배로 확대되어 육박해오는것이였다.

(사령부가 지척에 있는 때에... 부대의 안전이? 주의를 받고도 채심을 못하던 경호가 아닌가.)

휘몰아치는 눈보라가 불안을 안고 모대기는 학철의 발밑에서 무섭게 회오리쳤다.

(아직 단독으로 경찰에 파견하긴 어린데... 군단장 동진 무엇을 보고 그를? 아버지다운 자비심으로 집에 들려오라구?)

경호의 입대정형을 보고한것을 후회했으나 때는 이미 늦었다.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그의 마음을 힐난이나 하듯 광풍에 휘몰리운 눈가루가 숨막히게 엄습해왔다.

그는 정신을 가다듬고 뱅뱅한 리성으로 돌아왔다. 그러자 이번에는 지나온 전투의 나날 위태롭고 조마조마했던 장면들이 꼬리를 물고 다가오다가 의용군 출신병사의 집앞에서 총소리를 냈던 사변에 딱 멎었다.

학철은 온몸에 소름이 짹 끼치는것을 감촉했다.

(흥분하기 잘하는 경호가 혹시 집에서 뜻하지 않

은 불쾌한 일이라도 당하게 되면 또? 임무보다도 사사로운 감정이 앞서지 않는다고 어떻게 담보 한단 말인가.)

학철은 몸의 균형마저 유지할 지력을 상실한듯 전신이 매시시해움을 느꼈다.

(어릴 때 중대장인 내가 팔짱끼고 기다릴수 없다. 경찰경험도 적은 그를 도와야 한다!)

불안에 쫓기던 학철은 미처 사리를 따지기전에 결심부터 내렸다.

뽀얀 눈가루속을 뚫고 그가 경호의 그림자를 따라 잡은것은 송학동을 앞에 둔 뒤산에서였다.

경호가 산턱에 붙은 어느 집으로 들어가자 눈속에 몸을 묻은 학철은 자동총의 안전장치를 풀었다.

×

불에 타 형상긋게 된 마을은 자기의 처참한 물골을 감춘채 눈속에 파묻혀있었다.

전쟁전만 해도 눈썰매를 타러 나온 조무래기들이 뛰어나갔을게고 덩달아 날뛰던 강아지들이 꼬리를 쳤을 이 골안에 고요한 정적만이 무겁게 드리워서인지 학철의 마음은 서글펐다.

(무슨 허튼 생각을?!)

그는 잠시나마 찾아왔던 애잡썰한 향수를 털어 버리고 마을을 주시했다.

전투를 앞둔 군인에게 있어서 정적이란 총알이 귀뿌리를 스치는 격전장의 아비귀환보다 더 섬찍한 때가 있는 법이다. 왜냐면 예견할수 없는 정황이 시한탄처럼 옹크리고있기때문이다.

학철은 차라리 자신이 직접 경찰에 파견되었다면 이런 불안과 초조는 없었으리라고 생각했다.

《빠거덕-》

경호가 들어간 집에서 문여는 소리가 야릇한 음향을 날리며 들려왔다.

학철은 본능적으로 방아쇠에 손가락을 걸었다. 했으나 그는 곧 총가목을 다시 잡았다. 경호가 헛간에 나왔다가 실나무 한단을 안고 들어갔기때문이다.

경호의 집 굴퓏에서 흰연기가 스물스물 피어올랐다.

연기가 사그라지자 집을 나선 경호가 마을과 마당을 휘 둘러보고 산으로 올라오고있었다. 그는 몇 발자국 옮기다가는 뒤를 돌아보고 또 오르다가는 멈춰서 되살피기를 몇번이나 반복했다.

(부모처자를 적후에 떨궈두고 오자니 밤이 떨어지지 않겠지...)

학철은 경호의 심정이 이해되자 동정심이 앞섰다. (주의를 쫓더니 이젠...)

그는 눈무지를 털고 벌떡 일어났다.

《경호동무- 내가 왔소. 내가-》

학철은 미끄러지며 달려가 그의 두손을 덥석 잡았다.

《제, 제가 걱정돼서 중대장동지가 여기까지 마중 나왔군요...》

목이 멘 경호가 더듬거렸다.

못미더워 뒤쫓아온 자기를 반겨주자 학철은 웅색하기 그지없었다.

그는 창황히 말머리를 돌렸다.

《걱정은?》

중대장의 물음에 경호는 차렷자세를 취했다.

《한번 쫓겨간 다음에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오늘아침에 서너명의 피뢰군이 마을 어귀까지 왔다갔답니다.》

학철은 자신이 직접 목격했으므로 마을에 걱정이 없음을 확인했다.

《부모님들은 무고하시겠지?》

《예-》

《처와 동생두?》

《예?예-》

왜그런지 좀 헤덤비던 경호가 침착하게 대답하더니 애써 본성대로 우스개소리를 했다.

《절구통같은 촌색신데 잘 있구말구요. 리별의 엄숙한 시각에두 입만 한번 병긋하고말았단니까요. 그런 촌색시니 탓할게 있습니까. 중대장동지, 이젠 빨리 잡시다.》

서둘러 떠나기를 재촉하는 경호의 몸가짐은 어떤지 어색했다. 저 혼자 산으로 올라오던 때의 사색적인 행동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였다.

순간 학철은 집을 뒤에 두고 떠나는 그에게 있어서 이런 때 부리는 익살이 잘 어울리지 않음을 감추었다.

그는 정적이 깃든 마을을 내려다보며 경호의 심정을 가늠해보려고 부지런히 생각을 퍼나갔다.

부모처자가 있다면 왜 바래움을 받지 못했을 가오 그들이 앓는가? 그래서 그가 헛간에서 나무를 들고 들어가 불을 때준게 아닐가? 혹시 요즘에 만연하는 재귀열에 걸린것은 아닌가...

학철에겐 그가 산으로 오르면서 몇번이나 벗어나서 집을 내려다보던 모습이 겹쳐지자 의혹이 앞섰다.

(저 경호가 익살로 무엇인가 감추는게 있다. 그렇다면?)

《경호! 적정도 없는데 집에 다시 들어가자구. 중대장이 왔다가 부모님께 인사라도...》

《일없습니다. 중대장동진 촌색시인 저의 처를 보고 부대에 가서 소문을 퍼뜨리자고 그러지요. 보나 마나 절구통같은걸요-》

한술 더 뜨는 경호의 익살에서 그는 무엇인가 짐

작할수 없는 불안이 숨어있다는것을 직감했다.

학철은 정색해서 물었다.

《집에 무슨 일이 있었지? 상관을 속이지 말라구!》

《어서 잡시다. 전쟁판인데 무슨 일인들 없겠습니까?》

일부러 태연한척하는 경호의 대답은 주의를 주었을 때 그의 표정과너는 너무도 달랐다. 마음의 아픔을 물어버리고있음이 분명했다.

학철은 그의 말을 믿어서는 안된다고 판단했다.

《잠간이라도 들려가지요!》

그가 단호하게 나오자 경호도 더는 만류하지 못했다.

집앞으로 다가갔으나 마중나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불길한 예감에 다물리운 학철은 덮어놓고 문고리를 잡아챘다. 침침한 방안에는 따스한 온기가 밀려나왔으나 사람은 없었다.

(어떻게 된 일인가?)

그는 방안으로 들어갔다.

어두웠던 방안이 차차 익혀지자 학철의 눈에 처음으로 띄인것은 종이우에 놓인 몇개의 군대건빵이었다. 경호가 내놓았겠으나 다친 흔적이 없었다.

아래목에 도두룩하게 돌아난 이불이 세판게 떨리는것이 분명했다.

학철이가 다가서려고 하자 뒤따르던 경호가 앞질러 무릎을 꿇고 앉았다.

《경옥아, 오빠가 다시 왔다. 중대장동지와 함께...》

경호가 더듬거리자 이불속에서 울음을 삼키는 신음소리가 새어나왔다.

이불이 제껴지면서 머리가 형클어진 소녀가 나타났다.

눈물자욱이 력력한 얼굴과 풀린 눈동자가 학철에게 육박하는듯 와 박혔다.

찢기고 색날은 세라복을 걸친 소녀의 눈길에는 한순간 반가움과 의혹이 엇갈렸다.

《아니 오빠- 왜 또 왔어요? 부대로 간다면서...》

일어서지도 않으며 소녀가 부르짖었다. 그의 음성은 몹시 떨렸다.

학철은 모든것을 직감했다.

《경호! 부모님들과 아주머니는 어떻게 됐소?》

그는 노기띤 목소리로 다그쳐 물었다.

고개를 모로 돌리던 경옥의 어깨가 세판게 흔들렸다.

경호의 눈에도 물기가 어려있었다.

《중대장동지- 놈들이...》

학철의 가슴은 빠개지는듯싶었다. 전우의 아픔에

는 의분을 참지 못해 무모하게 날뛰던 경호가, 자기의 아픔은 묵묵히 이겨내는 새로운 인간으로 학철의 눈앞에 나타났을 때 그는 중대장으로서 화선천리 간고한 나날속에 혜성처럼 나타난 또하나의 새로운 전사를 발견한 놀라움에 머리가 숙어졌다.

《그래서 불을 땀었군...》

《아니 중대장이저씨.》

아직 한마디도 없던 경옥이가 돌연히 일어나았으며 오빠대신 변명했다.

《늘 옆집 할아버지가 불을 때주더랬어요. 그런데 오늘은 산에 가서...》

이때 학철은 경옥의 장단지에 감긴 새하얀 봉대를 보았다. 총상이 틀림없었다.

(그렇다면 저 애도 부모들이 잘못될 때?)

경옥이가 이불깃으로 총상자리를 열른 감추었다.

온몸이 무딘 칼날에 찢리우는듯한 아픔을 참아 낸 학철은 경호에게 소리쳤다.

《홀로 남은 동생을 팽개치고 돌아섰단말이요! 업고갈 생각은 못하고 발이 떨어지던가!》

그의 웨침은 경호에 대한 질책이라기보다도 그런 전사의 마음을 보지 못했던 자신을 저주하는 뼈아픈 절규였다.

《중대장이저씨, 우리 오빠를 욱하지 말아요 네? 다신 울지 않을래요-》

앙상한 경옥의 손이 학철의 가슴을 허뻗다.

뜨거운것을 삼킨 학철은 경옥을 덥석 끌어안았다.

《오냐 경옥아 다신...》

그는 몸부림치고싶었다.

《중대장동지, 이제 돌아잡시다. 경찰보고를 기다릴텐데...》

학철은 그제야 제정신으로 돌아갔다.

《경옥일 업으라구!》

《안됩니다! 명령받은 시간이 급합니다.》

경호가 단호하게 거절했다.

《어서-》

이번에는 학철이가 사정하듯 권고했다.

《부대가 인차 전투에 들어가겠는데 어떻게 경옥이를... 옆집 할아버지가 돌봐줄겁니다.》

근경에 빠진 학철은 억이 막혀 말을 할수가 없었다. 강하고 굵직한 학철의 눈에서 굵은 물방울이 슬새어나와 경옥의 머리우에 떨어졌다.

《오빠 어서 떠나세요. 아빠엄마 원썬을 갖고 인차 돌아오마고 하셨지요. 제 걱정은 말고 어서요-》

어쩔수 없게 된 학철은 가슴이 저려왔으나 일어설수밖에 없었다. 그는 허를 깨물며 집을 나섰다.

《오빠- 인민군대아저씨들과 함께 꼭 돌아오세요. 네!》

문을 열고 바래워주던 경옥의 얼굴에 확신에 찬 웃음이 어렸다.

학철은 웃으며 바래우는 경옥을 하염없이 바라 보았다. 그 기대어린 웃음을 남겨두고 떠나자니 발이 떨어지지 않았으나 야속한 마음을 채찍질하는 수밖에 없었다.

(저 귀여운것을 남겨두고... 경옥아, 우리가 꼭 다시 오마!)

학철과 경호는 돌아섰다.

세차게 휘몰아치던 눈보라는 어느덧 축축한 진눈까비로 바뀌어 산을 오르는 그들의 뺨을 습없이 적셔주고있었다...

×

뜻밖에도 좀 늦게 돌아온 경호에게서 적정과 가정에 별일이 없다는 보고를 받은 군단장은 그를 중대로 돌아가게 했다.

전우들속에 휩쓸리자 중대는 흥성거렸다. 아마 집에 갔다온 성화를 받는 모양이었다. 군단장은 대원들의 사기도 료해하고 경호가 받고있을 성화도 불검 중대휴식장소로 내려왔다.

《여, 경호 아름다운 새색시와 감격적인 상봉을 했나?》

한 전사가 말꼭지를 떼자 경호는 평소의 그답게 척척 받았다.

《물론, 날 보자 입을 크게 벌리고 너털웃음을 치더군.》

《예끼, 대포쟁이,너자가 무슨 너털웃음을 쳤겠나?》

《정 못믿겠으면 동무들도 장가를 가보란말이요. 너자들이란 너무도 기쁠 땐 허리에 손을 척 얹고 더러 그런다네-》

그가 제 허리에 손을 얹고 흉내까지 내자 거짓말인줄 뻔히 알면서도 온 중대가 웃음보를 터뜨렸다.

병사들속에 에워싸인 경호를 보며 먼발치에서 있던 군단장도 빙그레 웃었다.

군단장은 그제야 병사들속에 학철이가 없다는것을 알고 사방을 휘둘러봤다.

(보고도 없이 경호의 뒤를 따라갔다왔다더니...)

드디어 학철이가 외마로 떨어진 이깔나무에 몸을 맡긴채 침울한 눈길로 경호를 바라보고있는것이 군단장의 시야에 들어왔다.

휘몰아치는 눈보라도 아랑곳하지 않고 나무에 기대어선 학철은 경호가 너스레를 떨면 떨수록 피로움속에 모대기며 입술을 깨물고있었다.

(늘 병사들속에 휩쓸리던 학철이가 왜 오늘따라 저리도 우울할까? 무엇인가 석연치 못한것이...)

군단장은 이런 생각에 잠겨 학철을 주시했다.

(우울해 서있는 학철이, 지나칠 정도로 과장하며 너스레를 떠는 경호, 이들은 방금전에 경호의 고향을 다녀온 두사람이 아닌가?)

문득 대원들속의 경호를 훑쳐보던 학철은 군단장의 눈길과 마주쳤다. 학철은 얼른 눈길을 떨구었다. 어쩐지 이런 웅색한 자기를 군단장이 집요하게 주시하는듯싶은 예감에서 벗어날수가 없었다.

(오자마자 인차 보고했을걸...)

뒤덜미를 잡힌듯 학철은 드디어 군단장의 호출을 받았다. 그는 승인도 없이 경호의 뒤를 따른 추궁을 받으리라 판단했으나 그런 추궁은 무섭지 않았다.

《난 동무가 경호의 뒤를 명령도 없이 뒤따른걸 묻는게 아니요!》

그의 속심을 알아차렸는지 군단장은 랭철하고 엄격했다.

《사실 전 지휘부의 안전이 걱정...》

《변명을 하지 마요. 동무도 자기를 지휘관으로 인정하고있을테니까... 경호의 중대장인 동무는 뭐가 더 보고할게 있지 않소?》

학철은 급소를 찔린 사람처럼 아찔했다. 한동안 머리를 떨구었던 그는 사실대로 보고했다. 그리고 군단장의 얼굴을 쳐다봤다.

큼직큼직한 룬팍의 농민다운 얼굴이 순간 경련으로 푸들거렸고 술많은 눈섭이 누에처럼 살아 꿈틀거렸다.

《그래 그런 애를 사지에 팽개치고도 발길이 떨어지던가? 내가 전사라면 동무와 같은 중대장을 믿고 싸우지 않겠소!》

퇴성벽력과도 같은 군단장의 목소리에 학철은 어깨가 처졌다.

《부관, 숙영준비를 하라고 명령하오.》

군단장의 명령은 침울했다.

《오늘 밤중으로 전선을 돌파해야...》

부관이 성급하게 되물었다.

《알고있소!》

군단장의 목소리는 엄격했다. 믿었던 부하에게서 배신당한듯한 피로움이 그 역센 장령의 얼굴에 질게 내배였다.

《중대장동무, 전중대를 인솔하고 다시 송학동에 갔다오시오! 경옥이를 담가에 실어와야겠소. 그 사이 적들이 강점했으면 결사전을 벌리더라도 그 애를, 그 애를 꼭 구출해야 하오!》

짧은 명령으로 부하들을 납득시키던 군단장이였으나 이번 명령만은 지나칠 정도로 자세했다.

중대가 출발준비를 갖추고 정렬했다.

《동무들! 중대의 임무는 경호동무의 누이동생을 구출해오는것이요!》

군단장의 명령에 대원들은 깜짝 놀라 잠시 응성했다. 경호의 익살속에 감추었던 그의 아픔을 몰랐던 자신들을 나무랐다.

《홀로 된 그 애를 구출하는것은 적 몇개 중대를 답새겨대는것보다도 더 중요하오! 나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우리를 인민의 군대라고 하신 그 깊은 뜻을 동무들이 명심하기 바라오.》

《알았습니다!》

온 중대가 대답한 목소리는 전우의 동생을 구를 해온다는 고마움으로 하여 젖어있었으나 담력있고 우려했다.

중대는 숨얼른 감정을 안고 떠나갔다.

눈보라가 울부짖었다. 이해의 마지막 발악을 안고 ...

송학동으로 진출한 중대는 경옥의 집을 은밀히 포위하고 매복했다.

중대장과 경호가 집으로 다가갔다.

꼭 닫겨있어야 할 문이 열려진게 바람에 펄럭거렸고 방안으로 눈가루가 휘몰아 들어갔다.

학철은 섬찟한 가슴을 안고 경옥을 불렀다. 대답이 없었다.

그는 무작정 방안으로 뛰어들어 전지불을 비쳤다.

어지러운 군화자욱이 싸늘한 방안에 찍혀있고 경호가 누이동생의 머리맡에 놓고간 건빵이 짓밟힌채 훑어져있었다. 아래목의 이불도 온데간데 없다.

그는 급히 이웃집으로 달려갔다. 로인네집도 수라장으로 변했다.

자동총의 방열통을 틀어잡고 마을쪽으로 몇걸음 달렸을 때 웬 녀인이 나타났다. 적들의 만행에서 겨우 몸을 피한 녀인이었다.

《아주머니, 우린 인민군대입니다. 경옥이와 이 집로인이 어데 갔습니까?》

학철이가 성급하게 물었다.

《아이구 저 원썬놈들이 그 할아버지와 경옥을... 끌려갈 때 할아버지가 경옥을 안고... 저 방쪽에서, 놈들이 글썽...》

녀인은 척척 흐느꼈다.

《경옥아-》

경호가 땅을 쳤다.

학철의 눈에서는 번개가 일었다.

(경옥이가 죽다니. 이 수많은 오빠들이 너를, 너를 ...)

총성이 울렸다. 학철이 총성이.

병사들의 분노가 활화산처럼 터졌다. 돌격명령도 없었으나 중대는 경옥을 빼앗긴 격분을 안고 노한 사자와 같이 두개 중대의 적들을 무자비하게 복수했다. 허나 가슴에 서린 울분은 그 누구도 풀길이 없

었다.

병사들의 원한을 대변하는가. 휘몰아치는 눈보라만이 죽어넘어진 적들의 시체우를 무섭게 맴돌아 쳤다....

×

중대가 돌아온것은 싸락눈이 불을 찌르며 내리 던 한밤중이었다.

보통때같으면 개선장군처럼 의기양양해서 돌아왔을 중대였으나 오늘날은 납덩이같은 침묵을 안고 들어섰다.

중대는 최전방초소에까지 나와 차디찬 칼바람과 싸락눈을 맞받아 암석처럼 서있는 군단장앞에서 명령도 없이 섰다.

전중대가 고개를 떨구었다.

학철은 다가설수가 없었다.

《보고를 해야지! 중대장동무.》

빈 담가를 주시하던 군단장의 목소리는 심히 갈리었다. ...

부대는 군단장의 명령을 접수하기 위해 우등불 앞에 정렬했다.

《부관! 명령서를 가져오라구.》

부관이 이미 작성해놓은 명령서를 전투가방에서 꺼냈다.

《중대장 앞으로 나오시오! 부관, 그 명령서를 읽소!》

무서운 자책감속에 학철은 명령을 전달받았다.

군단장명령 제 003 호. 적후에서 중대장 엄학철을 분대장으로 강직시킬데 대하여.

학철은 고개를 떨구고 군단장앞에 섰다.

《군단장동지! 저 저에겐 이 명령도 너무 관대합니다. 저를 더...》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학철동무! 이 명령은 동무가 경옥이를 구출해 오면 주자고 했던거요. 왜냐면 동무는 자기 전사의 부상당한 누이동생을 홀로 남겨두고 온 의리없는 지휘관이기때문이요! 이제 그 애까지 데리고 오지 못했으니 동무에게 어떤 처벌을 줘야 하겠는가!》

노기뽀 군단장의 얼굴에 피로움을 이겨내려는 모지름이 내배였다.

전대오가 침묵, 침묵속에 잠기었다.

《군단장동지!》

돌연히 웨침소리와 함께 송경호가 대오속에서 달려나와 군단장앞에 섰다.

《우리 중대장동지에겐 잘못이 없습니다. 그 앤, 그 앤 제가 떨겨놓고 왔습니다. 저를 처벌...》

경호의 웨침은 또렷했으나 애원에 차있었다.

경호를 내려다보던 군단장의 눈에 한참나 피로움

과 측은함을 이겨내려는, 아니 보다는 부하들에 대한 믿음과 대견함을 품은 자애로운 빛이 어리었다.

허나 군단장의 표정은 다시 암석과도 같이 딱 뻣쳐졌다.

학철이와 나란히 선 경호 그리고 온 대오를 천천히 휘둘러보던 군단장이 무겁게 입을 열었다.

《혁명동지에 대한 믿음과 의리가 없는 지휘관은 지휘관이 아니란말이요! 이것은 장군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신념이며 진리요!

학철인 언제부터 자기의 전사도 못믿고 뜨거운 의리도 없는 사람으로 되였는가?!》

군단장의 우뢰와 같은 웨침이 학철의 심장속에 불을 지켰다.

(그렇다, 나는 지휘관의 자격을 잃은 군인이다. 나는 군벌에 의해 마땅히 처단돼야 한다. 강직은 나에게 당치도 않다. 과오를 씻으면 처벌은 해소될수도

있을지 모르나 내 이 마음속에 일은 량심의 상처는 영원히 씻을수 없는것이 아닌가! 아- 한생을 두고도 씻을 길 없다...)

부대는 행군길을 다그쳤다.

침울하고 무거울것만 같았던 행군은 뜻밖에도 씩씩하고 기운이 차고넘쳤다.

(경옥이의 복수를 하고 돌아올 땐 중대의 걸음 이 무거웠었다. 그런데 왜 지금 저들의 걸음에 저리도 날개가 돋혔는가. 그것이 무엇때문이란말인가...)

대오의 맨뒤에 서서 따르던 학철은 자기자신에게 끝없이 물어봤다.

그 무슨 새롭고 거대한 진리를 발견이라도 할 듯 ...

×

몇배로 강대해진 중대는 앞으로 나아가고있었다.

희오리치는 눈보라를 뚫고.

열아홉 꽃나이에

윤 기 찬

열아홉 꽃나이 여도
서른나이
그 미래에 살고있는 저녁
내 친딸애 같아도
쉬이 굶어볼수 없구나

직기사이를 돌고도는
순회길은 길지 않아도
천리 만리길을 이으며
세월을 뛰어넘은 너
십년분의 비단필을 늘인
그 년대우에 서있구나

실실이 돌숨실의 날실우에
실실이 돌숨실의 복실을 풀고풀어
이슬맺힌 목란을 수놓으며
백리벌의 금나락을 펼치며
종종걸음으로 달려온
네 마음의 한끝은 어디냐

아름다운 춤가락으로
큰걸음 내디디는 너
가슴은 작아도 마음은 커서
급절로 일해도 성찰줄 몰라
지는해 아쉽다너니

흐르는 분과 초를

열흘 한달로 가늠해보며
나래돌힌 발걸음에
남몰래 채찍질하는 너
삼천리 이 나라 강산을
비단으로 덮어갈 그 마음이 뚫고있구나

그리도 일욕심 많은
너의 마음이 굵더라
일이 고와
너의 얼굴이 돋우보이더라
애송이 처녀여도
시대의 거인인양
조국은 너를 소중히 껴안더라

아 꽃나이
꿈많은 청춘기에
세월을 뛰어넘어 미래에 사는
아름다운 네마음을 닮아
이 땅우에 무늬고운 꽃이 피고
이 강산에 꽃물결이 설레거니

용쿠나 처녀야
아버이수령님 불러주신 한길로
그저 빨리만 달리고싶은 마음
순간도 멈춰설 기슭을 모르며
비단고지 희망봉을 안고
그 찬란한 년대우에서 웃음을 날리고있구나

5 개지구전선에 잇닿은 마음

윤 송 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기계공업부문과 건재공업부문에서는 5 개지구 전선건설과 대자연개조사업에 필요한 건설기계와 대상설비, 시멘트를 비롯한 건설자재를 책임적으로 보장하며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5 개지구 전선건설과 대자연개조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겠 습니다.》

나는 얼마전에 건설기계와 대상설비 기술합의 차로 남포지구전선을 다녀온적이 있었다.

출장임무를 마치고 떠나오던 날 나는 강선제강련 합기업소확장공사장의 건설자들로부터 계획에 예견 되어있지 않았던 한가지의 새로운 자재를 부탁받게 되었다.

나는 그 부탁을 기꺼이 받아들였다.

그것은 제철소확장공사장로동자들이 신년사의 정신을 높이 받들고 쫓기하여 일어나 공사를 앞당겨 완성하려는 불타는 신념을 안고 창안한 새로운 기술 혁신에 절실히 필요한 몇가지의 크지 않은 부속품가 공이었다.

그들로부터 도면을 받아들고 공장으로 돌아온 나는 짬을 보아 그것을 승강기직장 선반공들에게 물리 려고 하였다.

부속품이 크지 않거니와 복잡한것도 아니어서 손 쉽게 깎으리라고 타산하였다.

그러나 일은 생각처럼 쉽게 되지 않았다.

나의 부탁이라면 그 무엇이냐 다 들어주던 선반공 들이지만 이날은 만부하가 걸렸다느니 후에 깎아주 겠다느니 하면서 선뜻 받아물려고 하지 않았다.

하긴 그럴만도 하였다.

새해 첫 전투에서부터 새로운 기적과 혁신을 창조 하면서 제 2차 7 개년계획 마지막해 총돌격전에 들어선것만큼 일정계획이 분초의 여유도 없이 맞물려 돌아가고있었던 것이다.

기대는 기대마다 고속도절삭의 불꽃을 세차게 날 리고있었고 소재운반공들은 바빠 걷다못해 뛰고있 었다.

내가 잠시 난감해서 현장에 서있는데 생산과의 한 일군이 지나가다가 왜 그러느냐고 물었다.

나의 딱한 사연을 들은 그 일군은 히죽이 웃더니 자기를 따라오라고 하였다.

2 층 사무실에 들어선 그는 내가 들고있던 작업

지령서를 훑어보고는 그우에 지금까지 본적없는 삼 각형의 《특별도장》을 큼직하게 찍어주었다.

《5 개지구전선긴급지령》이라고 새긴 어마어마한 명판이었다.

나는 그 작업지령서를 들고 다시 승강기직장으로 내려갔다.

《5 개지구전선긴급지령》이라고 붉은색으로 눈에 두드러지게 새긴 《특별작업지령서》를 보자 선반 공들은 방금 언제 거절했던가싶게 저저마다 자기가 깎아주겠다고 발벗고 나섰다.

그러면서 아가는 왜 그런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느냐고 가볍게 나무람까지 하였다.

《아니 짬이 없다고 하기에...》

《네 참, 못은 어디 짬이 있어 들어갑니까? 그런 일이야 어떤 일이 있어도 해야지요.》

나는 그 도장하나에 이렇게까지 정황이 달라지는 가고 룡답삼아 이야기했더니 한 처녀선반공이 되알 진 목소리로 궁지높이 대답하는것이였다.

《여기도 5 개지구전선이니까요!》

순간 나는 가슴이 뭉클해짐을 느꼈다.

5 개지구전선!

말은 짧아도 여기에는 시대의 요구를 한몸에 안고 전진하려는 선반공처녀의 티없이 깨끗하고 열렬한 마음이 깃들어있는것이 아닌가!

걸음을 옮겨도 5 개지구전선을 먼저 생각하고 자 그마한 부속품 한개를 깎아도 5 개지구전선을 가슴 에 안고 사는 선반공처녀!

5 개지구전선은 여기서 멀리 떨어져있어도 자기들의 일터를 거기에 잇대여놓고 자신도 바로 5 개지구 전선의 주인이라는 자세로 신바람나게 총공격전을 벌려가는 미더운 기대공들...

당이 펼친 웅대한 설제도를 따라 어버이수령님께서 바라시고 의도하시는 문제를 충성의 한길에 수놓 아가려는 선반공처녀들의 그 진정이 느껴져 나의 마음은 끝없이 후터워올랐다.

얼핏 보기에는 5 개지구전선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보이는 여기 수도의 한 평범한 기계공장에서 듣 게 되는 이야기여서 그런지 그 한마디의 말은 나에게 커다란 감동을 불러일으키면서 많은것을 생각해 게 하였다.

《여기도 5 개지구전선이예요!》

이 얼마나 책임적이고 혁명적열정이 끓어넘치는

또 얼마나 거창하고 새힘이 솟게 하는 심장의 웨칭인가!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5개지구전선을 떠밀고나가는 그들의 불타는 마음인듯 방금 조립이 끝난 산악같은 대상설비들에는 주먹같은 글발들이 소리치듯 나붙어있었다.

《안주지구전선으로!》

《순천지구전선으로!》

고개를 들어 바라보니 아름답디 강철기둥들에는 대문짝같은 속보들이 편이여 나붙고있었다.

《남포지구전설장에 떠나보낼 만타기 기대생산을 끝냈다.》

《자동용접 회전지구를 창안도입하여 열난방관 생산에서 220%!》...

어깨를 들먹이게 하는 전투속보들을 바라보느라니 검덕광업종합기업소 제 3 선광장 건설때에 있었던 일이 불현듯 생각키웠다.

그때에도 이 공장 제관공들과 용접공들을 비롯한 로동자들은 검덕땅에 선 건설자의 마음으로 일손을 다그치자고 하면서 특대형 마팡기와 파쇄기 인차계지 등 대상설비들을 제때에 만들어보내주었다.

인차계지부속가공을 맡은 한 기대공은 밤에 낮을 이어 너무 무리하는것 같아서 온 공무직장이 등을 떠밀어 집으로 보내자 《나도 3 선광장건설을 책임진 사람》이라고 하면서 열흘분 작업량을 사흘에 끝내고야 자리를 뜨는것이였다.

청진-무산간 정광수송관 건설때에도 그랬고 은룡광산 장거리벨트콘베아건설때에도 역시 그랬다.

그들에게는 자기의 일터란 따로 없었다.

당이 부르는 혁명초소라면 다 자기의 일터였다.

하기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신년사에서 올해의 중심과업의 하나로 5개지구전선건설을 제시하시자 이곳 로동계급은 스스로 5개지구전선에 자신들을 내세우고 혁신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키고있는것이 아니겠는가.

《여기도 5개지구전선이예요!》

이것은 비단 승강기직장 한 처녀선반공의 심정만이 아니다.

며칠전에 동평양기계공장 조기직장에 갔을 때에도 새형의 채탄설비를 만들던 그곳 조립공들이 자기들의 일터를 그렇게 불렀고 심지어는 5개지구전선과는 아무런 인연도 없어보이는 모자공장 채봉공아주머니들까지 그렇게 말하였다.

그러니 결국 온 나라의 모든 단위, 모든 초소들이 5개지구전선과 하나로 잇닿아져있는것이 아닌가.

어디서 무엇을 하건 당이 부르는 가장 어렵고 보람찬 혁명초소에 어깨를 들이밀줄 아는 그 충성의 마음들이 불타기에 5개지구전선은 그렇듯 진군의 목소리를 높이 울리며 더 높이 더 멀리 나래치고있는것이리라...

나는 감동에 젖은 새로운 눈길로 강선제강련합기업소확장공사장건설자들의 부락을 가슴에 새기고 부속품가공에 여념이 없는 나 어린 선반공처녀의 작업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간편한 작업복차림에 꼭 눌러쓴 작업모, 무지개빛으로 피어오르는 절삭밥과 반짝이는 은빛제품...

늘쌍보던 그모습이건만 이 순간엔 거기서 김철 용해공들의 충성의 구슬땀에 젖은 구리빛 얼굴과 석탄산을 높이 쌓아가는 안주탄광 채탄공들의 궁지높은 미소까지 보는듯싶었다.

그렇다, 오늘 남포지구전선과 순천지구전선, 안주지구전선, 청진지구전선, 함흥지구전선은 온 나라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으며 80년대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를 실현해가며 진격의 폭풍을 세차게 일으키고있다.

전국이 5개지구전선이 되여 주체조국의 영예를 떨치며 큰걸음을 내딛는 나의 조국은 얼마나 궁지높고 빛나는것인가!

그날저녁 나는 이곳 승강기직장과 열난방직장 로동자들이 성의껏 깎아준 여러가지 대상설비 부속품들과 제관품들을 강선제강련합기업소확장공사 건설장으로 떠나보내면서 이렇게 마음속으로 웨쳤다.

5개지구전선건설에 필요한 건설기계와 대상설비생산은 넘려 말라고...

여기도 5개지구전선이라고...

력사주제와 형상적요구

리 유 근

우리 당의 주체적문제이론에 가르친바와 같이 문학은 어떤 시기 어떤 생활을 반영하든지 반드시 오늘의 우리 인민들의 생활과 투쟁에서 절실하고 의의 있는 문제를 제기하고 깊이있게 풀어냄으로써 사람들에게 산 경험과 교훈을 줄수 있게 되어야 하며 거기서 사람들이 신심과 용기를 얻고 역세제 싸워나가도록 되어야 한다.

그 어느 시기 어떤 생활을 반영하든지 시대의 요구와 인민의 지향에 맞는 의의있는 문제를 제기하고 종자를 꽃피워나갈데 대한 주체적문제이론의 이 요구는 력사주제창작에서 우리가 언제나 확고히 틀어쥐고 나가야 할 강령적지침이다.

그것은 력사주제가 지난날의 사실을 통하여 오늘의 요구를 대변하며 그것으로써 사람들에게 신심과 용기를 안겨주어 더 높은 창조의 세계에 이 끌어가는것을 자기의 본성적지향으로 내세우고 있기때문이다.

력사는 민족의 재부이며 녀이다. 거기에는 그 민족이 창조한 귀중한 사상정신적 및 물질문화적 재보가 깃들어있다. 이 우수한 재보가운데서 시대적으로 가장 의의있고 절실한 문제들을 찾아내어 오늘의 시점의 높이에서 훌륭한 예술적해답을 도출해낼 때 그 모든 민족의 재부들은 더 찬란히 빛을 뿌리게 될것이며 새롭게 활짝 꽃피나게 될것이다.

그러면 이 절박한 시대적요구를 놓고 력사주제가 안고있는 본성적특성들을 더 잘 살리기 위해서 나서는 문제들은 어떤것들이겠는가.

이에 대하여 최근시기에 창작된 장편소설들인 《평양성사람들》(리영규)과 《임오풍운》(박춘명)의 몇가지 교훈을 놓고 간단히 살펴보기로 하자.

력사적사건의 선택과 그 리용

력사적사건은 력사소설의 형상구성에서 제 1차적의의를 가지는 필수적요소이다. 작가가 의도한 종자의 요구는 무엇보다먼저 일정한 력사적사건을 전제로 하여 무르익히지며 그 사건속에서 열매를 맺게 된다. 작품의 사상예술적성과는 어떤 력사적사건을 선택하고 그것을 어떻게 주인공들의 성격형상과 밀착시켜 흥미있게 엮어나가는가 하는데 따라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것은 력사주제가 일정한 력사적사실에 기초하여 생활과 인간성격을 보여주는것을 자기의 기본 형상과제로 내세우고있기때문이다.

여기서 력사적사건이란 반침략애국주의정신과 반

봉건적계급투쟁과 관련된 제반 력사적사실들을 말한다. 이는 우리 인민이 이룩한 사상정신적재보 가운데서 기본을 이루는 부분이다. 물론 민족의 재능과 슬기를 보여주는 물질문화적재부의 창조과정도 일정한 력사적사건속에서 형성되고 발전풍부화되어 왔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반침략적 애국주의와 계급투쟁과 같은 거대한 사회정치적변혁속에서만 산생될수 있었고 자기 존재가치를 빛내일수 있었다.

때문에 력사주제작품이 담아야 할 생활내용은 어디까지나 무엇보다먼저 반침략적 및 반봉건적 애국주의투쟁과 관련한 사건물이다. 오늘 반침략 계급투쟁이 그 어느때보다도 치렬하게 벌어지고있는 우리의 현실은 더욱더 이것을 절실한 요구로 제기한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반침략, 반봉건적사실, 사건들이 다 묘사대상으로 될수 있다는것은 아니다. 아무리 그 당시로서는 의의있는 투쟁사실이었다 해도 오늘의 시대감정, 혁명발전의 요구의 견지에서 볼 때 맞지 않는것이라면 아무런 현실적의의도 가지지 못한다. 더우기 우리 인민의 반침략, 반봉건투쟁력은 복잡한 우여곡절속에서 각이한 형태로 전개되어 왔다는것을 고려할 때 이는 더욱 신중한 문제로 제기되지 않을수 없는것이다.

때문에 우리는 반침략, 반봉건적 력사사실들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우리 나라 력사발전의 특수성, 우리 인민의 계급적처지의 복잡성 등을 충분히 고려한 기초우에서 어느것이 가장 현실적으로 의의있고 절박한 초미의 문제인가 하는것을 엄격히 따져보고 그에 맞는것들만 골라서 형상으로 구현해야 한다. 시대적으로나 계급적견지로 보나 가장 뚜렷하고 의의있는 력사적사건, 사실들을 취사선택하고 그에 옹은 예술적해답을 주어야 시대가 요구하는 생활적지향성을 철저히 대변할수 있고 혁명발전을 더욱 힘있게 추동할수 있다.

오늘 현시기 그러한 지향성을 가장 뚜렷이 대변하고있는 력사적사건은 미일침략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발휘한 우리 인민의 슬기로운 투쟁사실이다.

오래전부터 우리 나라에 침략의 마수를 뻗쳐온 미일침략자들은 오늘도 그 더러운 야망을 버리지 않고 호시탐탐 재침의 기회를 노리고있으며 갖은 수단과 방법을 다하여 그것을 실현하려고 미쳐날뛰고있다. 이놈들과의 판가리대결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남아있는 우리 인민의 지상의 투쟁과업이다.

바로 장편소설들인 《평양성사람들》과 《임오풍

운》은 시대의 이러한 절박한 요구를 옹기 반영하고 있는것으로 하여 커다란 인식교양적의의를 가질수 있었다.

상기 작품들은 우리 인민의 반봉건, 반침략투쟁력사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임진조국전쟁과 임오군인폭동의 역사적사변들을 취급함으로써 민족주의식과 높은 계급의식, 그로부터 흘러 나오는 적개심, 열렬한 애국주의감정 등과 같은 사상 정신적 특질들을 진실하게 밝혀내었다. 이는 오늘의 정세의 요구에 역사주체의 사건적지향성을 일치시킨 생동한 모범이며 창작가들의 진지한 생활탐구의 결실이라고 볼수 있다.

역사적사건들을 현실의 요구에 맞게 잘 선택할 뿐만아니라 또한 그것을 어떻게 예술적으로 일반화하는가 하는것도 하나의 중요한 창작실천상문제로 나선다. 비록 선택된 역사적사건이나 사실들이 현실적으로는 아무리 크고 의의있는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예술적으로 잘 가공하여 종자를 꽃피우는데 이바지하지 못할 때에는 아무런 쓸모도 없는 것이다. 때문에 주어진 역사적사실들을 값있는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것을 형상의 매 요소마다에 깊이 심어주어 작품의 내용전개, 성격발전, 종자해명을 제반 예술적형상의 기초로 되게끔 적절히 리용할줄 알아야 한다.

그 방법은 장편소설 《임오풍운》에서처럼 사건의 어느 한 국면에 치우치지 않고 주인공의 운명선과 함께 처음부터 발단, 동기, 결과, 교훈 등 군인폭동의 전과정을 순차적으로 따라가며 본질을 인식시키는 식으로 펼쳐보일수도 있고 《평양성사람들》과 같이 평양성해방전투라는 특징적이고 대표적인 국면만을 선택하여 임진조국전쟁의 전모를 인식시키는 방향에서 역사적사건과 주인공의 운명선을 결부시켜 추구해들어갈수도 있다.

그런데 류의해야 할것은 역사적사건의 순차에 따라 그것을 폭넓게 전개하면서 본질을 인식시키는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지엽적인 사말사속에 사건의 기본선이 파묻히게 해서는 안되며 (그렇게 되면 사건자체의 본질적의의를 악화시킬수 있고 성격의 일관한 론리성을 보장할수 없게 된다.) 반대로 특징적인 어느 한 국면을 통하여 사건의 전모를 인식시킬것을 지향하는 경우 그 하나의 사건에만 심취하여 전반적련관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되면 역사적사실을 폭넓고 깊이있게 보여줄수 없고 성격의 일면성을 초래할수 있다.

한마디로 그 어느 경우를 막론하고 인간성격이 사건을 따라가며 움직이게 할것이 아니라 사건이 주인공을 포함한 성격들의 운명선에 철저히 복종 되도록 하여야 한다는것이다. 그렇지 않을 때에는 사건이 아무런 담보도 없는 단순한 이야기줄거리로 밖에 남

아있지 않게 되며 형상이 메마른 기록주의나 설화체적인 경향에서 멀리 벗어날수 없게 된다. 이는 작품전반의 예술성을 저하시키고 종자가 부어한 제반 협상과제를 원만히 실현할수 없게 만든다.

상기 작품들은 역사적사건의 선택과 리용에서 이런 교훈을 살려 모든 인간적존엄과 삶의 권리는 자신의 힘으로 지켜야 한다. (《임오풍운》) 왜적을 막아나선 성새는 인민대중의 단합된 힘이다. (《평양성사람들》)라는 의의있는 종자를 각각 심고 가꾸어 시대적체취가 실린 열매를 맺게 할수 있었다.

역사적인물들의 전형화

역사적인물은 역사적사건의 직접적담당자들이다. 역사적인물들의 전형화를 잘해야 해당 역사적사건의 본질을 구체적으로 인식시킬수 있고 작품의 사상 예술적성과를 확고히 담보할수 있다.

이는 해당 역사적인물들이 현대적감정을 체현한 생동하고 구체적인 산 개성으로, 형상의 핵으로서의 본질적면모가 전면적으로 감명깊게 살아나는 그 합법칙적요인들을 진실하게 부각시키는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기본으로 되는것은 근로인민출신의 기본 군중들의 형상을 잘 창조하는것이다. 그러자면 역사의 주인이며 창조자로서의 그들의 지위와 역할을 뚜렷이 밝혀내는데 묘사의 초점을 집중시켜야 한다. 그래야 역사발전의 합법칙성을 정확히 밝혀 낼수 있고 개성이 느껴지는 산 인간의 형상을 진실하게 창조할수 있다. 그러므로 작품에서는 그 어느 시기, 어떤 역사적사건을 취급하든 오직 근로인민대중이 그 사건의 기본 담당자 주체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그들이 수행하는 몫이 가지는 의의를 정확히 천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정한 역사적시기 인물들이 오늘에도 생활과 투쟁에서 본보기로 살아움직이고있는것처럼 느끼게 하는 여기에 역사적인물들의 전형화가 가지는 참다운 인식교양적 가치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임오풍운》의 주인공들인 림복석이나 오운성, 김장손, 설이 등 기타 인물들의 형상은 매우 시사적이다.

중심주인공 림복석을 놓고보더라도 그는 영종도 싸움에서 죽은 군정의 아들이다. 이런 계급적처지로 하며 그는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 군정에 몸을 던지며 그러자면 신식무장을 갖추어야 한다는 막연한 생각으로 놈들이 조직하는 별기군으로 까지 들어가려 한다. 그러나 그는 어머니의 간곡한 말림과 서봉호의 억울한 죽음을 통하여 별기군의 내막을 꿰뚫어보고 자기 생각이 잘못되었다는것을 심각히 깨닫는다.

일제의 교활한 침략책동과 민씨일파의 더러운 치부욕, 군정들에게 가해지는 박해에 울분을 품고 마침내 동료들과 인민들을 선포하여 폭동의 주도자로

나섰던 그는 옳은 투쟁의 길을 찾지 못한채 놈들에게 체포되어 억울하게 사형당한다. 그는 사형장으로 나가면서야 김규순이가 믿었고 또 자기도 어렴풋이 기대를 걸고있었던 현 민씨일파만 제거하고 대원군과 같은 강경한 량반들이 정사를 하면 모든것이 다 제대로 될것이라는 그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었던가 하는것을 절절하게 느낀다.

이로써 작품은 인민대중이 참다운 생활에로의 지향과 자주적인 권리는 그 누구에게 의존해서가 아니라 오직 자신의 힘을 믿고 자기 자신들이 주인이 되어 투쟁으로써 쟁취해야 한다는 생활의 진리를 그의 형상속에 체현시킨다.

보는바와 같이 그의 형상은 평범한 인간들이 각성되어가는 과정의 대표적전형이며 옳바른 투쟁의 기수가 없었던 당대현실에서 투쟁에 일떠선 인간들이 건지 않으면 안되었던 그 필연적운명의 합법칙적대변자로서의 귀중한 교훈을 안겨주는것이다.

오운성일가의 비참한 운명이나 설이의 기구한 운명도 다 그들이 투쟁으로 일떠서지 않을수 없게 된 그 필연성과 당대 사회현실의 모순을 밝혀내는 방향에서 옳게 전형화되었기에 그만큼 의의있는 형상으로 되수 있었다.

력사적인물들의 전형화에서 다음으로 중요한것은 량반계급 특히 애국명장들의 형상을 옳게 창조 하는것이다. 여기서 기본은 그들의 계급적제한성만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업적을 다 무시해버리면 력사적인물로서의 긍정적측면은 아무 현실적의의도 없는 허무주의적인것으로 되고말것이다.

요는 그들의 업적과 제한성을 당대 력사적조건, 구체적생활환경과 밀접히 결부시켜 진실하게 그려내는데 있다.

그러자면 우선 그들을 인민적지혜와 감정의 체현자로 되게 하여야 한다. 즉 그들의 투쟁에서 발휘되는 모든 특출한 기질들과 지략이 그 어떤 타고난 천품이나 비범한 현상의 발현이 아니라 인민적지혜의 반영이며 그러한 력사적환경속에서만 가능할수 있는 필연적산물이라는 그 론리적타당성을 생활적으로 깊이있게 밝혀내야 한다는것이다. 그래야 그들의 형상속에 지난날뿐만아니라 오늘에도 사멸하지 않고 적극 작용하는 일련의 사상정신적특질들을 옳게 체현시킬수 있다.

《평양성사람들》에서 김응서의 성격은 이에 옳은 해답을 주는 형상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량반출신무관이지만 나라를 위해 애국적감정이 매우 높은 인간으로 형상되었다. 당시 그들의 도덕규범으로서는 도저히 허용할수 없는 거상중의 몸임에도 그에 구애됨이 없이 용약 출전의 길로 나서는것이라든가 자신에게 가해지는 온갖 박해에도 불구하고 평양성수복을 위한 준비에 모든것을 다바쳐가는 그의 제반 행동들이 이것을 잘 대변해준다. 원쑤 왜놈들에 대한 불타는 적개심과 조국에 대한

그의 이러한 사랑의 감정은 그 당시는 물론 오늘에도 우리 인민의 사상정신적력량을 지배하는 주도적 특질의 하나로서 이에 대한 옳은 예술적전형화는 이 작품에서 력사주체가 시대적감정과 현대적리념을 가장 정확히 반영할수 있게 한 근본조건으로 되었다.

그의 형상에서 또하나 특징적으로 찾아 볼수 있는것은 인민대중의 힘을 믿고 그에 의거하려는 인민적 투쟁정신의 발현이다. 그는 왜적을 몰아내는 투쟁에서 의거하여야 할 힘은 오직 인민대중의 단합된 힘밖에 없다는것을 깊이 인식하고 군중을 모으며 도원수의 명령을 거역하면서까지 평양수복의병대를 자기 수하로 받아들인다. 당시 평양수복의병들로 말하면 대다수가 천한 신분의 계층들로 무어진 사람들이다. 량반출신인 그에게 있어서 그들과 손잡는다는것은 어지간한 용단을 가지지 않고서는 도저히 불가능하였다. 그러나 그는 나라를 지키는 싸움에서 신분의 귀천이 따로 없다는 애초의 자기 신조를 굽히지 않고 함께 싸울것을 요청하는 그들의 의사를 기꺼이 수락한다. 뿐만아니라 삼화현령 조희의 모략으로 병방비장 박억이 뜻하지 않은 화를 입게 되었을 때에도 그는 자신의 한 몸을 돌보지 않고 그를 사정속에서 구원해온다. 평양성해방전투를 앞두고 다른 나라의 군사적지원만 바라는 통치배들의 처사를 못마땅히 여기고 자체로 군사적힘을 키우기 위한 조련을 강하하며 군량을 마련하고 대중의 지혜에 의거하여 평양성안의 동정을 정찰하는 일과 적장 소서비의 목을 잘라오는것과 같은 일련의 행동들은 그의 인민에 대한 이러한 믿음과 신념이 낳은 웅당한 결실이였다. 이렇게 하여 그는 마침내 것처럼 어려운 일로 제기되었던 평양성해방전투를 승리적으로 수행한다.

이는 반침략조국애의 감정과 함께 그의 성격이 가지고있는 본질적특성들을 옳게 포착하고 오늘의 시대정신과 부합되게 력사적인물성격의 전형화를 생활론리에 따라 진실하게 보여주는데서 나타난 좋은 측면의 하나이다.

력사적사료들이 분석종합과 예술적일반화

력사적사료는 력사주체작품에서 성격형상과 생활반영의 기본 바탕이다. 눈으로 볼수 없고 생활로 직접 체험할수 없는 특수한 사정으로 하며 력사주체는 불피고 그때 당시 사료와 유적 유물들에 의거하며 형상을 창조하지 않을수 없다.

때문에 일정한 력사적사건이나 인물들의 활동을 줄거리로 력사주체작품에서는 사료들의 연구와 분석종합을 먼저 진행하게 되며 그에 기초하여 창조적기상을 무르익히게 되는것이다.

여기서 중요한것은 어디까지나 주체의 력사관이 밝혀주는 립장과 관점에서 모든 력사적사료들과 유물들을 대하고 평가하여야 한다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유적을 발굴하고 복구하는데서도 역시 우리는 당성, 로동계급성의 원칙과 역사주의적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주체의 역사관이 밝혀준 당성, 로동계급성, 역사주의원칙을 원만히 구현하기 위해서는 역사적사료나 유적, 유물들을 일면적으로 고립된 상태에서 고찰할것이 아니라 항상 다른것과의 련관속에서 폭넓게 고찰하여야 한다. 그래야 주어진 사료들의 객관적진리성과 과학성을 보장할수 있고 이리저리 한 주관적견지에서 벗어나 가장 옳바른 견해에 기초한 형상체계를 세울수 있다. 그렇지 않을 때에는 사건이나 인물들의 어느 한 측면만을 절대시하여 본질은 놓칠수 있으며 전혀 근거없는 허황한 사실도 모르고 그대로 믿게 되며 역사적사실을 외곡하는 결과들 빚어낼수 있다.

본질을 놓치고 일면은 절대화하여 보는것이나 련관을 보지 않고 진실을 놓치는것이나 다 역사주체창작에 관한 주체적문제이론의 본성적요구와 맞지 않는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예술이라고 하여 생활에 없는것을 아무렇게나 꾸며내서는 안되며 생활의 진실을 떠나서 형상해도 안됩니다.》

련관과 대비속에서 진실로 확증된 사료들과 일화들만이 이러한 편향을 극복케 하고 인물들의 성격을 살리며 형상을 화폭적으로 살찌우게 하여 종자의 예술적창취를 돋구어주는데 효과적으로 이바지될수 있다.

《평양성사람들》에서 김응서와 림강선생과의 관계나 김응서와 계월향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사료들은 이러한 형상적요구에 일정한 만족을 주고있는것들이다.

알려진 사료들에는 김응서와 계월향이 한때 가깝게 지냈다는 극히 단편적인 일화들밖에 주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작품에서는 왜적과의 적대적갈등을 기본으로 놓고 계월향의 향토에 대한 사랑과 그것을 무참히 유린하는 원수들에 대한 설분의 감정을 김응서와의 련련한 애정의 세계에서 심화시켜 보여줌으로써 인간관계의 깊이있는 해명과 현대적미감을 잘 살리였다.

반역이와 조희와의 관계 역시 중형적으로 그들에 대한 사료의 폭을 넓혀 그 대립을 한층 날카롭게 하고 풍부한 생활일화들로 그것을 충만시켜 사료의 단순한 재현이 아니라 문제의 해명과 형상의 제요소들을 계발하고 꽃피우는 기본바탕으로 되게 하였다.

《입오풍운》에서도 이러한 시도들은 많이 찾아볼수 있다. 그중에서도 특히 명성황후와 대원군과의 알뜰을 보여주는 폭탄사건이나 명성황후가 자기 일신의 영화

를 위하여 금강산 1만 2천봉우리마다에 제사를 지내는것과 같은 사료들은 량반통치배들이야 말로 가장 더럽고 추악한 인간쓰레기들이며 나라를 그르치는 장본인이라는것을 여실히 드러나게 하였다. 주체의 역사관에 의해 선택되고 평가된 이러한 생동한 일화들과 사료들이 작가의 풍부한 환상력과 능숙한 형상수법을 통하여 적절히 도입되었기에 작품은 그만큼 흥미있고 임오군인폭동당시 역사적사실들을 폭넓게 인식시킬수 있었다.

역사적인물이나 사료들을 작품에 리용하는데서 나서는 또하나의 중요한 문제는 이에 대한 고증을 정확히 하는것이다.

흔히 문헌사료들에 기재되어있는 인물들의 사적이나 역사기록들은 그것을 수집정리한 필자의 견해에 따라 이리저리하게 운색되어있는것이 보편적 현상으로 되고있다. 지어 어떤것들은 사실과 맞지 않게 심히 외곡되어있는것도 볼수 있다.

가령 임진조국전쟁사를 서술한 류성룡의 《징비록》은 전쟁승리를 직접 조직하고 이끌어간 필자 자신의 체험을 쓴것이기때문에 많은 면에서 객관적 진실에 의거하고있지만 역사적인물이나 사건들은 평가서술하는데서 필자의 주관적견해가 적지 않게 작용한 흔적이 나타나있다.

당파적견지에서 볼 때 동인계렬에 속해있던 그는 대체로 동인의 립장에서 자신의 리해관계에 맞게 사료들을 수집정리하였다.

실례로 도원수 김명원에 대한 사료만 놓고보아도 그를 비겁분자로, 김응서의 공로를 시기하여 평양성 수복을 위한 그의 사업을 음으로 양으로 방해하는 모략적인간으로 만들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과 맞지 않는 지나친 억측이다. 이는 서인의 영향하에 있던 그의 인격을 되도록 깎아내리워 그들의 세력을 약화시키려는 필자의 당파적견해의 반영이라고밖에 볼수 없다. 사실 김명원이 그렇게 비겁하고 무능한 인간이었다면 8 년임진풍전의 어려웠던 국난의 전기간 늙은 몸으로 평안감사와 도원수로부터 나중에는 8 도도원수로, 우상의 직책까지 감당하였겠는가, 이는 단순히 왕의 신임 하나만으로 그렇게 되었다고 볼수없는것이다.

류성룡이와 같이 비교적 사리가 있고 물정에 밝은 사람도 이리하였는데 하물며 다른 사람들이야 더 말해 무엇하랴.

이는 사료고증을 여러 각도에서 신중하게 잘하여야 할 필요성이 얼마나 절박한 문제인가 하는것을 그대로 실증해주는 실례이다.

창작가들이 사료고증을 다양한 방법으로 폭넓고 깊이있게 하지 않고 어느 하나의 사실에만 국한하여 만족할 때에는 본의아니게 역사적진실을 외곡할수 있고 사건이나 인물들의 갈등선을 모호하게 만들수 있다. 그 인물에 대한 여러 사적들을 통해서 그의 사상정신적견해와 성격, 품성, 기질 지어는 초상과 외

형상특징에 이르기까지 충분히 편상하지 않고 어느 한 측면에 나타난 그들의 긍정이나 부정적역할만 보고 형상을 대치해버린다면 량반계급으로서의 그들의 성격적본질을 옳게 밝혀낼수 없다.

물론 그 인물의 전 생애를 그리지 않고 어느 한 시기를 구분하여 보여주려고 하는 경우 이런 시도는 어려울수 있지만 그러나 다양한 묘사수법과 형상의 알맞는 계기들을 탐구하기 위해 진지하게 모색한다면 얼마든지 일반화된 폭넓은 성격을 그려낼수 있다. 량반계급을 아무런 제한성도 없는 완전무결한, 오늘날 시대에서 볼수 있는 그런 인간처럼 그린다거나 침략자와 우리 인민간의 민족적모순을 기본으로 놓아야 할 반침략애국주의 주제작품에 량반통치배들간의 알뜰이나 반목질시 현상을 보여주는데 더 많은 형상과제를 내세우고있는것과 같은 인상을 준다거나 하는 우려들은 다 이러한 탐구를 소홀히 한데서부터 출발하는것이다.

력사적사실을 다루는데서 또하나 주의할 점은 풍속세대, 습관 등을 정확히 알고 쓰는 문제이다.

풍속세대, 습관 등에는 그 민족의 성격적특성들이 매우 선명하게 집약되어있다. 만약 왜놈들의 옛풍습

에 죄인을 고문하는데서 곤장이라든지 없었는데 체포한 우리 사람에게 비밀을 대라고 곤장을 치는것을 보여준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한마디로 력사주제를 다루는데서는 특히 하나의 사실, 사소한 세부적인 풍속세대라도 소홀히 하지 말고 실지 성격형상과 종자해명에 이바지될수 있도록 진지한 탐구를 거듭 한끝에 요긴하게 써먹을줄 알아야 한다는것이다.

그러자면 무엇보다먼저 우리 당의 주체적문예리론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풍부한 력사적사료의 습득과 다방면적인 지식을 소유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 또한 습득된 지식과 사료들을 정확히 분석판단하여 주체적문예리론이 밝혀준 요구에 맞게 자유로이 활용할수 있는 독창적인 형상의 묘리들을 키워나가기 위한 노력을 부단히 진행해야 한다.

그리하여 시대의 요구와 인민의 지향을 담은 훌륭한 력사주제작품들을 더 많이 창작해냄으로써 보람찬 창조와 위훈으로 빛나는 오늘의 현실을 더욱 값높은것으로 되게 하며 주체혁명위업수행을 힘있게 떠밀고나가는 강력한 무기로 되게 하여야 할것이다.

연풍호우에서

동 기 준

너무도 오래 세월
가물에 탕던 탕인가
호반에 둘러선 봉이마다
푸른 물가에 엮이어
시원스레 머리감는 연풍호

해빛이 웃는 물결우에
배몰아 환희로이 달리면
배따라 물이랑은 일고 또 일고
내 가슴에도 물결은 이랑지어
손을 적시니 구슬인가 흐르는 물방울

예가 열두삼천리 강마른 벌을 두르고
높다란 산만이 첩첩하던곳이었더냐
물이 그리워 하늘을 우러렸건만
땅에 떨어진 눈물뿔
그 눈물우에 곡식이 자랐다는곳이

물결은 일어일어 배전을 감돌고
내 마음 파도되어 기슭을 더듬는다
어데냐, 사방 몇십리 어느 기슭에

우리 수령님 물을 주시려 그날에 걸으신
은정의 첫자욱 소중히 간직했느냐

양덕맹산 굽이도는 대동강은
산 넘어 령 넘어 아득하건만
거꾸로 치달은 그 물결
천연계곡에 바다로 출렁이는
아, 연풍호

전설같이 생긴 호수...
뜨거워, 그 사연 뜨거워
흰 물새 훨훨 날으는
사랑의 물결에
어린애처럼 내 다시 손을 적서본다

이 물이 쏟아져내려
문덕이라 속천이라 가없는 벌에
금나락의 파도되어 설레이거니
물이나 쌀이나
한방울 한방울이 아, 손에 무겁구나

로장의 마음

리 기 창

나는 낮이나 밤이나 변함없이 비날론 화학지구의 하늘을 붉게 물들이며 타오르는 카바이드로의 불빛을 바라볼 때면 화학공업의 첫공정을 미덥게 지켜서 있는 한 로장의 뜨거운 심장의 열도를 가슴 후덥게 느끼게 된다.

그 로장으로 말하면 전기로와 함께 잔뼈가 굵었고 오늘은 어느덧 귀밑머리에 흰서리가 내리기 시작한 사람이라고 한다.

내가 그 로장에 대하여 알게 된것은 당중앙위원회 제6기 제8차전원회의에서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강령적교시를 높이 받들고 온 나라가 화학고지와 천고지를 앞당겨 점령하기 위한 충성의 전투에 힘있게 떨쳐나선 때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화학공업부문에서는 화학섬유와 합성수지를 비롯한 경공업원료를 많이 생산하여 경공업공장들에 제때에 보내주어야 합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관철하기 위하여 비날론 공장에서뿐만아니라 전국의 방직공장들과 수지일용품 공장, 그리고 지방산업공장들에 이르기까지 더 많은 화학섬유와 비닐수지를 요구했다. 그것을 원만히 보장하자면 무엇보다도 카바이드전기로의 능력을 높이고 만부하, 만가동을 거는 문제가 급선무로 나섰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하여 낮과 밤을 이어 모색하던 로장 (그는 공장대학졸업반이었다.)은 드디어 새 형의 댕각수관을 창안했던것이다.

그것만 도입되면 카바이드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할수 있을것이였다.

공장참모부에서는 로장이 제기한 기술혁신안을 선뜻 찬성해나서면서 로를 며칠간 세우더라도 댕각수관을 도입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하여 로장을 책임자로 한 댕각수관도입공사를 위한 돌격대가 무어졌다.

도입기일은 늦어도 3일간에 끝내야 하는 어려운 전투였다.

그런데 전투지령을 받아안은 순간 로장의 얼굴에는 어쩐지 짙은 그늘이 덮였다. 로장의 마음 한구석은 로를 세워야 한다는 그 생각으로 하여 저도 모르게 무거워졌던것이였다.

로를 단 한순간이나마 세운다 해도 위대한 수령님께서 그토록 바라시는 화학고지와 천고지 점령이 그만큼 지연될것 이 아닌가!

돌물을 끓이며 봉-봉- 룡트림하듯 거센 숨을 내뿜는 전기로의 불빛을 떨리는 눈길로 지켜보는 로장의 생각은 불현듯 전후의 그날 위대한 수령님을 로앞에서 생각은 불현듯 전후의 그날 위대한 수령님을 로앞에서 만나뵈옵던 감격이 내려쳐갔다.

로앞에 몸소 찾아오신 아버지수령님께서서는 로장의 거칠어진 손을 뜨겁게 잡아주시며 카바이드는 원쑤를 치고 가난을 치는 《폭탄》과 같은것이라고 하시면서 30분류출 첫 정상화의 불길을 지켜주시였다. 그날 위대한 수령님께서 안겨주신 믿음은 로장의 가슴속에 활화산처럼 타오르기 시작한 심장의 뜨거운 불씨였다. 하기에 로장은 그 뜨거운 불씨를 안고 그날부터 로와 함께 살다싶이 하면서 30분류출을 드림없이 보장하기 위해 아글타글 애를 썼으며 심지어 함흥에 있던 집을 내놓고 공장이 가까운 남구마울로 옮겨앉아 잘 때에도 집피창문을 열어놓고 로의 고르로운 숨결소리와 함께 전기로의 불빛을 가늠해보고 서야 눈을 붙이었던것이다.

이처럼 전기로의 불빛과 동음은 로장의 마음의 거울이고 숨결이었기에 한밤중에도 자리를 차고 현장으로 달려나간것이 그 몇번인지 모른다.

한번은 뜻하지 않게 로의 분출로 로상천정우로 지나간 고압선에 불이 달려 전기를 끄지 않으면 안되였던 위기일발의 시각, 로장은 비호처럼 로상우로 날아올라가 위험을 무릅쓰고 뚫어져가는 고압선을 이어놓음으로써 꺼져가던 로의 불길을 억척스럽게 지켜나갔던것이다.

때로 련합기업소 산하 광산과 탄광들에서 석회석과 석탄이 미처 들어오지 못하여 로에 만부하, 만가동을 걸지 못하게 되면 로장은 모처럼 차려진 휴양이 아니라 부래산광산과 고원탄광의 지하막장으로 찾아가 그곳 지하전사들과 함께 착암기를 억세게 틀어쥐고 그들의 심장마다에 련대적혁신의 불씨를 심어줌으로써 차관마다 원료를 가득가득 싣고 돌아오기도 하였다.

이런 뜨거운 마음으로 지펴온 로의 불길이기에 로장은 지금 자기가 창안한 기술혁신안을 받아들이는

것이 유리하지만 로를 세운다는것이 그로록 가슴에 맺혔던것이였다.

이날 로장은 모대기던 끝에 마음속으로 굳게 결심하였다.

(아니다. 내 심장이 고동치는 한 로를 한순간도 멈출수 없다. 로를 세우지 않고 랭각수관을 설치하리라!)

그는 곧 참모부로 찾아가 자기의 결심을 토로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선뜻 응할 용단을 내리지 못하였다. 그것도 그럴것이 수백도의 고열속에서 물이 새여 원료 밀층으로 스며들어간다면 만회할수 없는 후과가 빚어질것이기때문이였다.

이윽고 로장은 무거운 침묵을 깨뜨리며 엄숙히 입을 열었다.

《아버이수령님께서서는 최근에 또다시 우리들을 화학공업과 15억메터 천고지점령을 위한 보람찬 전투의 앞장에 세워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생산일보를 보아주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순간이나마 로를 세울수 있단말입니까? 수령님의 믿음과 기대에 보답하는 그 길에 우리 삶의 영예가 빛난다고 생각합니다!》

열기를 풍기는 로장의 불같은 호소에 사람들은 가슴이 몽클하여 눈을 습벅이였다. 로장의 뜨거운 마음의 혼기가 자기들의 온몸을 후덥게 덥혀주는듯 싶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뜨거운 걱정을 안고 로장의 뒤를 따라 현장으로 달려갔다. 위대한 수령님께 더 큰 기쁨을 드리겠다는 뜨거운 지향으로 심장을 불태울 때 무한한 헌신성과 함께 지혜의 분화구도 터져오르는 법이다. 하기에 그들은 로결에 모여앉아 집체적지혜를 합쳐 로를 세우지 않은 상태에서 랭각수관을 보충설치할수 있는 방도와 안전대책을 찾아내였다. 뒤이어 로장을 따라 불보다 뜨거운 심장들이 온몸이 그대로 불사신이 된듯 열풍을 맞받아 뛰어들어 결사전을 벌림으로써 몇시간 동안에 랭각수관을 설치하는 영웅적위훈을 창조하였던것이다.

전투를 마치고 나온 로장의 얼굴은 검붉게 번뜩이고 온몸은 땀으로 질벅하게 젖어있었다.

하지만 더욱 세차게 타오르기 시작하는 로의 불길을 바라보는 로장의 땀뻘 얼굴에는 흐뭇한 밝은 미소가 잔물결치고있었다. ...

이것이 내가 얼마전에 그곳에 취재를 나갔다가 직장장으로부터 들은 로장에 대한 이야기의 한토막이

다.

그러나 나는 그날 아쉽게도 그 로장을 직접 만나보지 못했다. 한것은 요즘 로장이 새로 달라붙은 기술혁신안도입때문에 어느 제철소를 찾아갔다는것이다.

나는 허전한 마음으로 발길을 돌리는수밖에 없었다.

저녁 어스름이 공장구내길에 깃들고있었다. 붕-붕- 전기로의 우렁찬 동음소리가 걸음을 옮기는 나의 귀전에 들려왔다. 나는 그 소리에 이끌리듯 다시금 걸음을 멈추고 그쪽으로 눈길을 주었다.

온 공장지구를 노을처럼 물들이며 찬란히 빛발치는 전기로의 불빛을 보는 순간, 비록 로장의 얼굴은 보지 못했어도 그 세찬 불길을 언제나 심장속에 안고사는 로장의 불같이 뜨거운 마음의 혼기가 또다시 가슴후덥게 안겨지였다.

지금 이 시각도 그는 멀리 떨어진 어느 제철소의 구내길에서, 아니면 달리는 열차에서 저 로의 불빛을 마음속으로 가늠해보고있으리라!

언제 어디서나 아버지수령님께서 몸소 지퍼주신 뜨거운 불길을 마음속에 안고사는 사람! 하기에 저로의 세찬 불길도 로장의 식을줄 모르는 심장의 열도에 더욱 뜨겁게 덥혀지는것이 아니겠는가! 그렇다, 그의 불보다 뜨거운 마음을 담아 날을 따라 로의 불길은 더욱 세차게 솟구쳐오르는것이며 여기 화학지구만이 아닌 온 나라의 크고작은 공장들의 기대마다에 만가동, 만부하의 거센 숨결 드높이 런대적혁신의 불길 타번지고 갖가지 화학수지일용품들과 철따라 새옷감을 아름답게 받아안고 기쁨의 웃음꽃피는 락원의 창가마다에 행복의 불빛 밝게 빛나는것이 아닌가.

화학지구의 하늘을 불태우는 그 불빛을 바라볼 때마다 것처럼 뜨거운 마음을 지닌 사람들이 화학고지와 15억메터 천고지 점령의 전초선을 믿음직하게 지키고있는 한 당중앙위원회 제6기 제8차전원회의에서 제시한 전투목표는 반드시 빛나게 점령 되리라는 드팀없는 확신이 나의 마음속에도 굳건히 솟아오르는것이다.

그렇다, 그들의 불라는 심장이 고동치는 한 오늘도, 래일도 먼 미래에도 충성의 그 불길은 영원히 꺼질줄 모르며 더 세차게 타오르고 또 타오르리라!

봄우리

석 유 군

봄은 소리없이 찾아왔다. 새옴트는 나무가지를 물어뜯으며 찬바람이 불었다.

대학은 술렁거렸다. 문교부에서 내려보낸 《졸업 정원제》로 하여 술한 학생들이 제적된다는 소문이 떠돈다. 벌써 사대학에서는 많은 학생들이 쫓겨났다고들 한다. 모여서면 말보다도 눈빛부터 날카로워졌다. 그 어떤 불가항력적인 저류를 의식한듯 분화구를 찾아 모대기는 젊은 심장들이었다.

교정을 나서는 현우의 걸음은 무거웠다. 락화처럼 스러진 피의 5월... 그때를 돌이켜보면 지금도 몸서리쳤다, 아니, 이 거리에 뿌려진 무수한 피보다 그 피로 하여 아물지 않은 상처가 더 처참했다.

금남로를 벗어나 뺨스에서 내린 현우는 술을 한병 사들고 길가의 공원에 접어들었다. 초조하게 기다리는 마음을 알아주기라도 하는듯 연두빛봄의투가 언뜻 하더니 수영이가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다.

《언제 오셨어요!》 밝은 목소리로 묻는 그를 이윽히 바라볼뿐 현우는 대답이 없었다. 엊그제 만났었지만 그사이 쌓인 그리움을 가늠해보려는듯...

《왜 그렇게 보세요. 학생회장을 만나보고 오느라고 그만... 늦을가봐 바빠 왔더니...》

깔끔한 성미를 그대로 말해주듯 날이 선 코등에 송골송골 내뿜 땀을 손수건으로 짖으며 수영은 부끄러운듯 고개를 숙였다.

(아직 마음은 어린애 한가지라니까.)

런인앞에서도 맑고 투명한 제 마음이 그대로 내비치는것만 같아 수집음을 타는 수영의 자태는 미풍에도 하느적이는 버들가지처럼 유연하게 여겨졌다. 달콤한 침묵속에 그윽한 눈길을 나누는것만으로도 그들은 즐겁고 행복하였다.

이윽고 수영은 현우가 들고있는 술병에 눈을 주며 서글픈 미소를 지었다.

《<삼학>(술이름)이군요.》

새삼스레 짜릿한 애수가 가슴에 저머드는 현우의 얼굴엔 한줄기 그늘이 비졌다.

그것은 마치 《최형이 이 술을 좋아했소. 고인의 뜻을 따라야지.》 하고 말해주는것 같았다.

그 기분에 감염된듯 수영이도 가벼운 한숨을 내쉬었다.

《이젠 가보자요. 순봉언니가 기다릴텐데요.》

그들은 말없이 거리로 나섰다. 번잡스러운 거리에 나서는 그들의 생각은 한곳으로 쏠리었다. 그것은 이 거리에 나설 때마다 관습처럼 감싸는 몇년전 잊

지 못할 그 봄날의 추억이었다.

×

소요하는 거리, 함성, 총성, 그뒤에 일어나는 날카로운 비명소리, 거리는 학우들의 뜨거운 피로 붉게 물들여졌다.

수학려행에서 돌아와 뒤늦게 항쟁에 나선 현우는 견잡을수 없는 의문에 온몸이 불덩어리처럼 달아올랐다. 민족분렬의 고통과 온갖 재난을 들썩은 미제의 식민지통치와 전두환피괴도당의 악정을 요정내고야말겠다는 불같은 결의가 굳어졌다. 귀청을 켜는 총성이 련발되는 가운데도 《전두환을 찢어죽이라!》, 《미국은 가면을 벗으라!》하고 피타게 절규하는 학우들과 어깨를 결었다. 선지피를 똑똑 흘리면서도 총을 놓지 않으려는 학우들의 장한 모습을 보면서 하루 늦게 도착한 심한 자책감에 이어 피타는 의무를 절감하였다. 운전수도 없이 쓴살같이 내달리던 뺨스 한대가 드디어 얼기설기 엉킨 철조망을 들이받아 돌파구를 열어놓았다.

《와!》 하는 함성과 함께 노도처럼 밀려가는 대오를 막을 힘이 없었다. 학우들에게 더는 뒤지지 않으려고 발걸음을 다그치던 현우는 손에 든 기대우에 의지하여 뺨스우에 올라섰다. 철조망앞에 몰려서서 갈피를 잡지 못하는 학우들에게 기폭을 날리며 현우는 웨쳤다.

《이쪽으로 뺨스를 타고 넘으시오!》

그의 말에 이어 벌써 뺨스를 타고넘어간 4~5명의 학우들이 철조망을 밀어제끼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투쟁에 회열로 돌아오른 현우가 뺨스우에서 내려뛰려던 순간 그만 그는 왼쪽 허벅다리에 강한 타격을 받고 휘청거렸다. 그것도 한순간! 심장이 얼어드는 아픔에 정신이 혼미해진 그는 몸에 균형을 잃고 뺨스우에서 미끄러져 아스팔트길우에 떨어졌다. 그 다음 그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였다. 돌파구가 열려 저지선을 넘어뜨린것도, 수없이 밀려가는 인파속에서 위생가방을 맨채 자기를 지켜보며 달려오던 수영이 경악한것도...

최석훈과 수영의 팔에 떠받들려 담가에 실렸을 때 삶에 대한 그의 호소란 약하게 그것도 불규칙적으로 뛰는 심장의 박동뿐이었다.

그때 일을 돌이켜보면 의식을 잃은 현우보다도 빈사지경에 이른 그를 지켜보는 수영의 가슴이 더 숨막힐듯 안타까웠다. 수영은 죽은듯 눈을 내려깔고있는 그의 피기없는 얼굴을 지켜보며 애타게 불렀다.

《현우씨, 눈을 뜨세요. 예? 저예요.》

《수영씨, 그만하우. 심한 타박을 받았으니 안정해야 한다는걸 나보다 더 잘 알게 아니요.》 역센 손탁으로 상처를 지혈시킨 최석훈이 충혈된 눈길로 쏘아보지 않았더라면 수영은 인츰 주체하지 못하였을것이다. 담가를 멘 수영은 골목길을 질러 자기 집쪽으로 향하였다. 병원이 멀어서만이 아니 었다. 비록 입원실은 한칸밖에 없는 초라한 개업의였지만 아버지가 결코 탓하지 않으리라라는것을 그는 잘 알고있었다.

처치가 끝난후 안치할곳이 없어 그를 자기방으로 옮긴것마저도...

사실 현우는 본의아니게 이 병원신세를 두번째로 지게 되었다. 처음 여기에 온것은 몇년전 고등학교 시절이었다. 호리호리한 몸을 날렵하게 날리며 공을 되받을 때면 동료들의 부러움을 한몸에 받아안군하던 현우는 이름난 피차였다. 운동장이 떠나갈듯한 응원속에 승벽을 다루는 경기가 고조 되었을 때 뜻밖에도 다리를 상한 현우는 《청송외과》에 업혀갔다. 손에 땀을 쥐고 경기를 보던 개업의인 신영제는 직업적인 본능만이 아닌 이름난 선수에 대한 호감때문에 그를 제손으로 완치시켜 주려 했던것이다. 짧은 혈기에 병원신세를 지고싶지 않아 그날저녁으로 동료들의 부축을 받으며 현우는 집으로 돌아갔으나 이틀에 한번씩 붕대와 약을 가지고 찾아오는 수영이 만은 반갑게 맞이하였다. 하기는 붕대처럼 부드럽고 깨끗한 처녀에게 더 마음이 끌렸는지도 몰랐다. 세월의 흐름과 함께 그들의 우정은 신록처럼 짙어갔다. 허나 그들은 우정의 한계에서 한걸음도 넘어서려 하지 않았다. 부끄러운 생각이 앞서 그밖에는 더 깊이 생각조차 해보려 하지 않았었다. 허나 지금 그런듯 누워있는 현우의 얼굴을 지켜보는 수영이의 가슴속에는 여적 느껴본적이 없는 런던의 정이 고여올랐다. 불행을 당하고보니 그가 자기의 마음속에 얼마나 큰 자리를 차지하고있었는가를 새삼스레 느끼며 저도 모르게 놀라왔다. 놀라움뒤에 따르는 부끄러움조차 감수할 마음의 여유가 없었다. 그가 만 일 잘못된다면... 생각만해도 몸서리치고싶도록 안타까운 심정이었다. 그날부터 낮이면 충격전이 벌어지는 거리로 달려나가 부상자들을 처치하느라고 여념이 없다가도 밤이면 현우곁에서 애타는 마음으로 날을 밝히는 수영이었다.

아버지 신영제는 무시로 들이닥치는 부상자들의 수술과 처치로 자정이 넘도록 들볶이우다가도 불이 꺼지지 않는 딸의 방을 이윽히 바라볼 때면 초조감과 함께 마음 한구석이 부드러워져 너그러운 미소를 지었다. 이틀만에 눈물을 담은채 환희에 넘쳐 다가온 딸이 옷자락에 매달렸을 때 그도 함께 기뻐하였다.

《어련하려구. 것처럼 지향이 강한 인간은 죽음도 딛고 일어서는 법이야.》 하면서 그는 잠시 일손을 놓고 딸의 손에 이끌려 그의 방으로 갔다. 방금 의식을 회복한 현우는 무엇때문인지 석훈을 애타게 찾고 있었다.

《최형, 그건 안되우. 차라리 내가 나갈테요. 형은 혼자몸이 아니란말이요.》

조갈든 입술을 가까스레 움직이며 마치 꿈속에서 처럼 중얼거리는 현우의 가슴속에는 누를수 없는 열망이 끓어번지고있었다. 아마도 말못할 사연을 품고 있었던 모양이었다.

《수영아, 내 약장 옷서랍에서 차종을 가져와라... 어서... 그래 어혈진데는 이게 제일이란다.》

아버지가 현우를 위해 응답을 술에 타두었다는것을 수영은 후에야 알았다.

정신이 좀 들자 현우는 수영의 손을 잡고 애원하듯 말하였다.

《수영씨, 내 걱정은 마오. 나를 대신해서라도 거리로 나가주오. 이 시각에도 학우들이 피를 흘리고있는데 자유를 찾게 되는 날 내 무슨 낯으로 사람들을 대하겠소.》 그는 어떤 치료도 거절하듯 수영이가 자기곁에 있는것을 바라지 않았다.

나흘째 되는 날 현우의 상처를 풀어보던 신영제는 무거운 낯빛으로 고개를 저었다. 보기에도 소름이 끼칠만큼 허벅다리 총상부위가 독을 쓰다 못해 푸르죽죽하게 죽어들었다.

《빨리 손을 써야겠다. 준비를 하고 네가 수술 해라.》

《제가요?》 아버지의 혼연한 어조에 수영은 놀랐다. 의학공부를 시작한지 이제 2년남짓하다고는 하지만 유능한 외과의인 아버지덕분으로 뜻하지 않은 일이 제기되면 제법 집도자의 충실한 조수로 되군하였다. 더구나 이번 항쟁때 무수한 부상자들을 처치하고 웬만한 수술정도는 제손으로 능란하게 처리하던 수영이었다. 어렵지 않은 외상수술이 였으나 현우의 상처에 칼을 대자고 생각하니 속부터 떨렸다. 말없는 시선속에 당혹한 딸의 마음을 눈치챈 아버지는 대번에 엄격해졌다.

《꾸물거릴게 있나. 이대루만 며칠 더 있으면 피저 현상이 나타나. 그뎨 다리를 잘라야 한다는걸 알면서두... 지금 저 사람은 시시각각 고통을 의지로 이겨가는데 넌 수수방관할테나... 난 시간이 없어.》

아버지의 말은 언제나 메스처럼 날카로왔다. 수영은 20년을 살아오면서도 이때처럼 아버지가 야속하게 생각된적은 없었다. 사실 아버지의 마지막 말은 거짓이었다. 80년을 외과의로 늙어온 그는 이날 처음 딸의 충실한 조수가 되었다.

《생각을 모질게 먹어라. 마음이 떨리면 손이 떨려.

저 사람의 운명은 너의 메스끝에 달려있다고 생각하고 네 정력을 다 기울여라. 손재간이 아니라 너의 심혼을 다 쏟아부어라.》

수영은 마치 자기 손이 아니라 아버지의 의지대로 메스를 움직이는것 같았다. 모진 아픔을 참느라고 기를 쓰는 현우보다도 수영의 몸이 더 긴장 되었다. 그는 온몸이 땀에 젖어드는것도 미처 의식하지 못하였다. 아버지의 다심한 손길은 그의 얼굴에 땀만이 아닌 숨가쁘게 감싸는 번열까지도 시원히 찢어주곤 하였다. 수술칼처럼 예리하고 엄하다고만 생각해오던 아버지가 것처럼 부드러운줄을 수영은 처음 깨달았다. 봉합을 마치고 제손으로 봉대까지 감아주는 딸을 대견하게 바라보며 그의 등을 다독거리던 아버지는 아무말없이 밖으로 나갔다.

《고맙소. 수영이.》 상기된 그의 얼굴을 지켜보던 현우는 애써 웃음을 지어보이려고 했다. 피기가신 현우의 얼굴을 일별하던 수영은 피가 진 입술을 보자 그만 북받쳐오르는 강렬한련민의 정이 온몸을 휩싸 그만 무너져내리듯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흐느끼었다.

《저를 욕하세요. 현우씨, 매정하게 아픈 상처를 도려냈으니...》

《아니, 난 오늘에야 수영의 손이 이처럼 부드러운줄 처음 알았소. 아마도 다른 사람이 수술했더라면 아픔을 참지 못하고 소리쳤을거요.》

현현한 그의 대답이 수영의 가슴을 더 아프게 했다. 하면서도 처녀의 순정만을 비밀처럼 고이 간직했던 심금을 울리며 메아리처럼 들려오는 그 감미로운 선율이 애정이라는것을 처음 감수하였다. 다감한 그 눈길에서 모든것을 감득한듯 현우가 그의 손을 따듯이 잡아주었을 때 마음속에 일어난 파문은 온몸에 뜨겁게 퍼져갔다. 더우기 후에 아버지가 하던 의미심장한 말을 음미하여볼 때면 수영의 얼굴은 지금도 화끈 달아올랐다.

《의술이란 인술이야. 칼끝에 사랑을 부어보지 않고서는 그 참 뜻을 안다고 할수 없지. 그래서 외과의들은 손이 찬 사람이 심장은 뜨겁다는 말을 즐겨한단다.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의로운 사람들이 흘린 고귀한 피를 씻어줘야 한다. 너두 그 사람을 수술할때 보니 그 철리를 체득한것 같더라만...》

말을 채 끝맺지 않은 채 너그럽게 한눈을 쫓듯해보이는것이 더더욱 즐거운 수수께끼처럼 여겨졌다. 그때를 말미로 하여 청춘의 가슴속에 깃드는 사랑이란 만나면 서로 위하고 헤여지면 그리워지는 연연한 감정만이 아니라는것을 깨달았다. 아니, 한결을 더 나가서 그런 살뜰한 마음에서 흘러 나오는 자기희생정신이라는 단순하고도 천진스러운 생각에서 벗어나 보다 힘있고 열정적인 의미를 담고있음을 수영이

도 현우도 깊이 생각해보게 되었다. 그것으로 하여 그들의 마음의 금선은 더 깊이 엉켜진것인지도 모른다.

수술후에 현우는 식욕이 왕성해져 대뜸 꿀을 반식기나 비웠다. 빨리 완쾌되어 투쟁대오에 서려는 강렬한 욕망이 그를 지향시켰던것이다. 봉대를 갈아떨적마다 새살이 돋아나는것이 눈에 띄우게 알렸다. 닻새째 되는 날 급하게 들렸던 S대학에 다니는 최석훈을 만나본 이후 그의 이러한 지향은 더 강렬해졌다. 석훈이 찾아온것은 무서운 폭풍우를 예고하듯 무덤같은 어둠과 침묵이 숨가쁘게 내려누르던 밤이었다.

수영은 건넌방에서 간간이 들려오는 그들이 주고받는 격렬한 말을 가슴조이며 들었다.

《...뭐라구요?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는 젊은 심장들이 최형밖에 없다구 생각하우. 최형의 희생만으로 자유가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무엇때문에 피를 흘리겠소. 최형, 내 마지막 부탁만은 들어주우. 손봉씨를 생각해서라도말이요. 만일 최형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그것은 일생을 두고 나에게 내려지는 아픈 채찍이 될것이 아니겠소. 이렇게 침상에 누워있으니...》

《김군, 너무 흥분하지 말라구. 겨레가 숙원하는 통일 주추돌이 되는 일이라면 우리가 죽음인들 두려워하겠소. 우리모두 결사의 각오를 가지지 않고서는 이 땅의 민주주의도 자유도 바랄수 없네. 그런 성스러운 투쟁이기에 죽음보다 강한것일세. 승리도 그만큼 귀중하고...》

《그럼 우리의 미래는, 승리의 열매는 누가 지켜준단말이요? 인생의 봄을 죽음으로 맞이할수는 없소.》

《우리의 희생으로 미래가 앞당겨진다면 나는 죽어서도 행복을 영위할걸세.》

수영은 뜨거운 피가 맥박치는 억센 사나이들의 강렬한 심장의 부딪침을, 그 의미의 깊이를 다는 헤아릴수 없었다. 그보다도 가쁜 숨을 몰아쉬며 격한 마음을 다잡지 못하는 현우의 말을 더는 듣고만 있을수 없었다. 심한 타박을 받은 현우에게는 무엇보다도 흥분이 치명적이라는 아버지의 말이 뗏혀 가슴바재이던 수영은 끝내 문을 열고 들어섰다. 그를 맞이한것은 격렬한 감정을 억누르지 못한채 황소숨을 몰아쉬는 두 사나이의 번뜩이는 눈이었다.

그 충혈된 눈빛에서 수영은 겨레를 위해 청춘도 푸른 꿈도 다 바쳐 서로 한몸 막아나서려는 의로운 사나이들의 장한 모습을 보았다. 하여 수영이도 자기의 온 넋을 기울여 민주를 위한 성전에 적은 힘이나마 다 기울여 싸울것을 다짐했다. 간악한 원수들의 피비린내나는 탄압속에서도 그의 연약한 마음은 오히려 정의를 위해 한목숨 바쳐 끝까지 싸워갈 각

오와 투지로 더욱 굳게 다져졌다.

항쟁의 마지막날 도청옥상에서 결사전을 벌리던 최석훈이 장렬하게 최후를 마친후에야 그가 그해 초 봄 부모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동료들의 축복속에 대학생들의 단골인 《행림서점》에서 아련한 눈매로 손님들을 반겨맞던 너점원 순봉이와 결혼하였다는것도 그래서 현우가 사생을 판가리하는 준엄한 시각을 앞에 두고 석훈을 막아나섰다는것도 수영은 비로소 알게 되었다. 최석훈의 최후가 현우에게 치명적이라는것을 잘 알기에 수영은 이 소식을 전하기가 매우 난감하였다. 더우기 모두의 운명이 기탁된 항쟁이 이처럼 랑자한 피바다속에 무참히 진압되었다는 엄청난 현실이 현우를 절망케 한것으로 하여 더욱 그러하였다. 그는 물 한모금 입에 대려고 하지 않았다. 누구든 방에 들어가면 이불에 얼굴을 묻고 꼭꼭 가쁜숨을 몰아쉬며 터져오르는 오열을 참으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은 보는 사람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그래도 희생된 학우들의 장례를 치른다는것을 전해듣고는 지팡이에 의지한채 장지를 찾았다. 눈물한방울 없이 착잡한 생각에 놀려 고개를 푹 숙인채 그린듯 서있던 그였다. 어스름이 깃들무렵 모두 눈물속에 산을 내려왔다. 산자락에서도 그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 이상한 예감에 끌린 수영이가 되돌아올라갔다.

아니나다를가 흰 들꽃속에 묻힌 상돌우에 현우는 《삼학》 한명을 부어놓고 절통하게 몸부림치고 있었다. 《삼학》을 보는 순간 수영은 눈굽이 뜨거워졌다. 언제인가 현우는 취한듯 그 술병을 들떠다보며 들뜬 기분으로 노래처럼 외쳤다. 자기가 대학에 입학하던 날 최석훈이 《삼학》을 부어주며 기쁨에 겨워 이야기했다는것을...

《김군, 우리는 뜻을 같이한 화학도일세. 이 얼마나 장한가! 화학은 인류의 미래이네. 그래서 내가 권한 걸세. 화학이란 부산물이 없는 과학이네, 우리 마음도 부산물이 없이 깨끗이 정제해서 겨레들 위해 온넛을 기울이자구. 이게 사나이지. 그렇지 않나 김군.》

뜻있는 이 말이 신념처럼 마음속에 뿌리내려졌기에 현우는 그를 선배로 존경했고 따랐다. 그들이 형제처럼 극진하게 지내온 나날은 즐겁고도 아름다운 추억속에 새겨진 탐구의 날이었다. 현대 이 술잔이 성공을 기약하는 축배가 아닌 열매도 없이 스러진 꽃처럼 애끓은 설음만 향수처럼 남기고 간 그를 추모하는 고배의 잔이 될줄 그 누가 생각인들 했으랴. 그는 곁에 수영이가 다가온것도 모르고 혼자 가슴을 치고있었다.

《최형! 이 땅의 민주주의가 이다지도 비싸단말이요, 얼마나 많은 피를 뿌려야 최형이 갈망하던 자유

가 깃든단말이요. 내 차라리 이자리에서 쓰러진다 해도 뼈아픈 참상을 더는 눈뜨고 못보겠소. 무슨 낯으로 순봉씨를 대하란말이요.》

뼈를 어이든듯한 사나이의 비통한 절규에 수영은 온몸이 얼어드는것만 같았다. 그는 가까스로 마음을 다잡았다.

《그만하세요. 현우씨, 우리가 그 지향을 이어준다면 그의 삶은 영원히 꽃필거예요.》

수영은 맥없이 주저앉은 그를 가까스로 부축하여 집으로 내려왔다. 회복기에 들어섰던 그의 몸은 말할수 없이 악화되었다. 몸보다도 정신적인 안정을 잃어버렸다. 어찌보면 체념상태에서 헤매이는 그가 언제 이처럼 열렬한 사랑과 분노를 안고 살았던가싶기도 했다. 결국 그는 건강이 허락지 않아 한해 휴학하지 않을수 없었다. 쇠약해진 심신을 추세우려 다도해가 바라보이는 남해바다가 어촌에 있는 외가에 내려갔다.

해산후에 몸을 추세우지 못한채 본가에 눌러있는 순봉을 돌봐주려 방학에 목포까지 내려갔던 수영은 현우를 찾아갔다. 시간과 자연은 망각의 연무속에 과거사를 덮어버리고 현우를 새롭게 소생시킨듯싶었다. 바다바람에 그슬린 싱싱한 혈기가 그의 건강만이 아닌 정신적인 의욕까지 복돋아준것 같았다. 호방한 웃음속에 즐거운 톱담으로 자기를 반갑게 맞이한 그의 일변한 태도가 수영을 기쁘게 했다. 그보다도 수영을 더 놀라게 한것은 오래전부터 파제로만 남겨놓았던 외국기술문헌조사에 열중하면서 생활전체를 새로운 궤도우에 올려세우려고 애쓴것이였다. 역시 젊음은 마를줄 모르는 정력과 새로운 가능성을 부어준듯싶었다.

소슬바람마저 잠풍해지고 뒤척이던 바다도 겨울처럼 류다르게 빛나던 어느날저녁 가없는 바다를 붉게 물들이는 저녁노을을 담아실고 부두로 돌아가는 돛배에 몸을 실은 그들의 마음은 동심처럼 부풀어올랐다. 락조 비낀 다도해의 아름다운 자태가 점점이 펼쳐진 바다 저 멀리 눈을 준채 명상에 잠겨있던 현우는 조용히 물었다.

《요즘 순봉씨는 어떻게 지냅니까?》

《생활이 말이 아니예요... 참 현우씨가 전번에 들려주어서 고맙다구 인사를 전해요. 하지만 다시는 돈을 보내지 말렸어요. 혼자힘으로 영이를 아버지 뜻대로 키우겠다고요.》

《뜻이야 좋지. 하지만 세상은 날이 갈수록 험악해지는데 연약한 너자의 힘으로는 너무도 아름답고 고통일거요.》

현우의 목소리는 저으기 가라앉았다.

《아니, 순봉언니는 꼭 이겨나갈거예요. 이번에 저와 함께 서울로 올라가기로 했어요.》

《그거 잘됐소, 가까이 있으면 나도 돕고… 이번에 외국기술문헌들을 보면서 생각을 달리했소. 대학을 졸업하면 새로운 염색법을 연구하겠소. 아버지가 운영하는 공장에서 그걸 도입하면 타올의 질이 훨씬 높아질거요, 그럼 막혔던 판로도 열리고 잘만 하면 외국시장에도 나갈수 있을것 같소.》

《아이 어쩔 그런 생각을 해요?》

수영은 놀라운 눈으로 그를 지켜보았다.

《나를 여기로 보내면서 아버지가 걱정하더라말이요. 외국상품에 놀려 공장이 문을 닫게 됐는데 자식이 또 저 꼴이 됐대구요. …사실 나야 아들구실을 어디 했소. 집만 더 실려주었지. 그래 자식된 도리를 하자고 시작한것인데 소득이 있을것 같소.》

그의 말을 듣는 수영의 낯빛은 흐려졌다. 어쩐지 열정에 불타던 현우의 눈빛이 초점을 잃고 방황하는 것만 같았다.

《그게 자식된 도리를 다한것이겠어요? 언제인가 현우씨는 사회를 거쳐 자기를 볼 줄 아는것이 참된 지성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누구나 제 혼자 생각만 한다면… 전 현우씨가 사회를 위해 보다 유익하고 보람있는 일을 할 그 열정과 가능성을 잃어버릴가봐 걱정이예요.》

그들은 생각에 잠겨 한동안 말이 없었다.

《인생에 대해 나도 깊이 생각해보았소. 최형의 말도 되새겨보고… 허지만 겨레를 위해 우리 젊음에게 차례진것이 어찌 투쟁으로 지향된 그 한길뿐 이겠소. 화학도로서의 본분을 지켜 민족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때 우리 젊음이 빛나는것이라고 생각하오.》

《그보다 민족을 위한 절박한 지상의 과업이 우리의 숙원으로 나서지 않아요, 그걸 위해 피도 많이 흘렸구요.》

《피는 나도 흘렸소. 허지만 우리에게 차례진것이 무엇이요. 뼈아픈 희생밖에 더 있소? 이곳 사람들이 말하대십이 가난이 싸움이요. 숙명처럼 차례진 저 국민소득의 너울속에서 벗어나야 하오. 그래야 우리도 세상에 떳떳이 머리를 들고 나설것이 아니겠소.》

그와 이지러진 사고를 간파한 수영은 자기 음성도 점차 높아진다는것마저 미처 깨닫지 못했다.

《우리의 불행이 결코 민족의 후진성때문이 아니예요. 한강토안에서도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이북과의 격차는 우리에게 새 길을 시사해주지 않아요. 이것이야말로 우리 민족의 자랑이고 미래가 아니겠어요.》

그 말에 놀라움을 금치 못한 현우는 새삼스러운 눈으로 수영을 지켜보았다.

《수영이, 민족이 겪는 수난을 우리가 다 걸머지기에 너무도 아름답것이요. 원썬들은 날이 갈수록

더 포악해지고있소. 우리가 또 들고일어난다면 처참한 참극이 되풀이될뿐이요.》

《전 석훈씨의 말이 생각나요. 우리모두 죽음을 각오하지 않고서는 이 땅에 민주주의 새봄이 오지 않을거라구요.》

수영의 눈은 초볼처럼 따뜻이 빛났다.

《민주의 새봄, …그것은 언제 올지 기약할수 없소. 수영이, 꽃도 피는 계절이 있소. 그러지 않아도 우리는 너무도 많은 피를 흘렸소. 젊음이란 인생의 황금과도 같소. 인생의 봄은 한번밖에 없단 말이요. 수영이와 함께라면 난 모든 아픔도 잊고 노을비긴 저 세계로 가고 또 가겠소. 거기서 행복이 우릴 기다릴거요.》

수영은 그의 마지막말이 더 놀라왔다. 아니 그의 눈길 역시 어머니의 부드러운 가슴을 파고드는 어린애처럼 녀성의 애무를 고대하고있었다.

그를 따뜻이 위로하고싶은 충동에 끌려 수영은 그의 손을 살며시 쥐었다.

어쩐지 그의 손이 선뜻 하리만큼 차거움에 전를 하면서도 부디 심장만은 식어지지 않기를 굳이 바랬다. 몸이 회복되고 마음의 상처가 아물게 되면 예전처럼 심장이 뜨겁게 고동치기를 믿었던것이다.

날이 감에 따라 그들의 견해가 더욱 버그려진다는 것을 의식하면서도 한가닥 애정으로 따뜻이 덤혀진 마음을 흐리게 하고싶지 않아 서로 다른 말을 피하곤하였다.

×

그때 일로 숙연해진 마음을 안은채 묵묵히 걸음을 옮기던 그들은 어느 사이에 무등산언귀에 다달은것도, 자기들만이 아닌 수많은 사람들이 산에 오르고 있다는것도 뒤늦게 깨달았다.

약정된 시간전에 도착했던만 묘지에는 순봉이만이 아닌 고인의 몇몇 동료들까지 이미 와있었다. 해맑던 녀인의 얼굴에 얹게 내비친 검버섯이 현우의 눈을 아프게 찔렀다. 언제 보아도 그윽한 미소로 빛나던 잔잔한 눈길에 눈물과 함께 고통에 찌든 수심이 짙게 어린 순봉의 애절한 모습을 차마 마주할수 없어 현우는 고개를 숙였다. 사악이 창궐하는 험악한 세상에서 오뉴월에도 등이 시리다는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혼자몸으로 안고 사느라니 생활의 자옥마다에 얼마나 많은 피눈물이 고였으랴. 아니 그보다도 녀인의 등에 업혀 세상모르고 새근새근 잠자는 어린 유복자 영이의 정상이 그의 마음을 허비였다. 세상에 태어나 아버지의 얼굴조차 보지 못하고 그 정다운 이름조차 불러보지 못한채 상주의 불우한 운명을 진 어린 영이의 천진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현우는 속으로 울었다. 그 어린것마저 제 운명을 자각한듯 제물을 차려놓을 때 스스로 깨어나 봉분위로

기여오르는 눈물겨운 정상을 보고만있을수 없어 그를 안아 애무 해주었다.

수영은 화분에서 고이 자래운 백합꽃 한송이를 흰 종이에 정히 감싸 떨리는 손으로 봉분앞에 놓고 고개를 숙였다. 삶을 영원한것으로 믿고바라던 그 열렬한이 민주와 자유의 꽃을 미처 피우지도 못한채 차거운 땅속에 묻히었으니... 죽어서도 그는 눈을 감지 못할것이다. 이 땅에 피여날 민주와 화원을 보지 않고서는 눈을 감을수가 없어서... 봉분우에 수줍은듯 고개를 숙이고 피여난 진보라색 할미꽃송이를 지켜보며 그것이 죽어서도 이 땅에 붉게 피여날 민주와 화원에 자기의 지향을 보태려는 그의 녀이라고 생각하니 수영의 눈앞이 흐려졌다. 하지만 그는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고 입술을 깨물었다. 한것은 추모의 감정으로 무겁게 추연해진 여기에서조차 살기 어린 눈초리를 번뜩이는 사복밀정들의 눈이 두려워서가 아니었다. 보다는 고인이 뿌린 피를 눈물로 위로하기에는 너무나도 고귀한것이였기때문이다. 죽어서도 피보다 진한 빛을 뿌려주고있다고 생각하니 고인에 대한 추모의 정이 더더욱 절절해졌다.

피를 토하는 조사 한마디 없었다. 허나 누구나 비통한 울분으로 가슴을 쥐어뜯었다. 울분이 분노로 솟구치고 분노가 새로운 각오로 다져지는 비분이 무겁게 드리웠다. 봉분을 안고 목메여 우는 순봉에게 위로할 말을 찾지 못했다. 모두의 가슴속에 부각부각 피여오르는 통절한 생각이 아물줄 모르는 상처를 쓰리고 아프게 허비였던것이다.

순봉을 일으켜세운 수영은 가슴터지는 오열을 가까스로 삼키며 그를 진정시켰다.

《언니... 그만하세요. 석훈씨는 죽음으로 우리에게 삶의 가치를 깨우쳐준 교사예요. 그 녀이 우리의 심장속에 고동치는 한 그의 아름다운 지향은 이 땅에 빛날거예요.

우리 서로 의지하구 영이를 잘 키우자요...》

수영의 말은 순봉이만이 아닌 듣는 사람들의 가슴을 뜨겁게 흔들었다.

떨리는 가슴에 영이를 안은 현우는 위로의 말 한마디 없었다. 입을 벌리면 자기 역시 마음속에 차고넘치는 설움을 그대로 토설할것만 같았다. 동료친구들도 옆에서 너인을 따뜻한 위안의 말로 진정시켰다.

이윽고 그들은 묵묵히 산을 내려왔다.

순봉이와 함께 내려오면서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수영의 얼굴은 사뭇 심각해졌다.

갈림길에서 석훈의 동료들과 헤어지면서 현우는 심심한 애도의 정을 금할수 없었다. 수영이도 그들의 손을 잡고 한동안 놓지 못하였다. 깊은 사연이 담긴 긴 속눈썹아래 물기가 고여올랐다. 그것도 한순간 그 무슨 결심이 새로와졌는지 그는 고개를 들었

다.

《놈들이 우릴 더는 뭉락할수 없어. 언제까지나 참고만 있을수 없지 않아요.》

《그렇소, 참는데도 한도가 있는거지요. 우리 대학에서도 준비하고있습니다. 2~3일안으로 연락이 있을겁니다.》

현우는 그들이 하는 말의 뜻을 다는 깨닫지 못하였다.

순봉을 뺄스길까지 바래우고 난 현우는 말없이 수영이와 나란히 걸었다.

말없이 아끼고 위하는 마음으로 서로 의지하면서 따뜻한 정을 나누는 이런 순간이 그들에게는 행복한 때이련만 지금은 무겁게 내려누르는 생각때문에 가슴만 답답해졌다.

수영은 무엇인가 긴한 말을 할 눈치였으나 현우의 무거운 생각때문에 삼가하는듯 끝내 입을 열지 못하였다.

현우의 마음은 자연히 순봉의 생각으로 측은히 젖어들었다. 생각끝에 이번 공휴일에 시간을 내여 함께 영이를 찾아가 보자고 수영이와, 약속하고나니 마음이 한결 열리는듯싶었다.

어스름이 깃들무렵에야 그들은 큰길에 나섰다. 갈림길에서 수영은 주춤거렸다.

《저의 집에 좀들렀다 가요. 부탁이 있어요.》 그의 눈빛은 간절하였다.

현우는 말없이 그의 뒤를 따라 낮익은 골목길로 꺾어들었다.

처녀의 방은 주인의 손길처럼 아늑하였다. 하지만 수영의 부탁이 현우에게는 너무나도 뜻밖이었다. 수영은 가방에서 흰천을 꺼내놓았다.

《구호를 써주세요. 이번 시위에...》

현우에게는 수영의 말이 더 들리지 않았다.

거칠게 허버진 상처에서 아직 피가 흐르는데 새로운 참극을 빚어내려 하다니... 더는 생각하고싶지도 않았다.

《뭘 보고만 계세요. 현우씨의 붓글씨가 힘있다는걸 제가 모를줄 알아요. 어서요.》

수영의 말은 천진스러워보였지만 그의 행동은 엄청난것이였다. 그의 부탁이 간절할수록 현우에게는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험속에 몰아넣는 다는 죄의식이 몸서리치게 엄습하였다.

《수영이, 이건 안되요. 순봉씨를 보우.》

걸잡을수 없는 흥분으로 하여 떨리는 그의 말은 듣기에도 피로왔다. 했으나 수영의 태도는 단호하였다.

《그것이 저를 위하는 진정인가요? 현우선 변했어요. 사선을 앞장서 헤쳐가던 그 기백이 어데 갔어요? 전 그때의 모습이 다시 보고싶어요.》

《나도 때가 되면 기치를 들고 나설 사람ियो. 하지만 지금은… 놈들이 칼을 물고 날뛰는데 무슨 참상이 또…》

《그만두세요. 항쟁의 거리에선 누구나 다 영웅이였어요. 우리가 머리를 숙일수록 오만해지는건 놈들이에요. 어려운 때 남먼저 일어서는 사람이 참다운 영웅이 아니겠어요.》

답답하게 울리는 수영의 말은 현우의 폐부를 찔렀다. 그럴수록 그는 위험한 길에서 수영을 돌려 세워야 한다는 생각뿐이였다.

《다 때가 있는법ियो. 큰 뿔뿔둥이를 휘두르는데 놈들이 또 무슨 만행을 저지를지 누가 알겠소. 그런 교훈을 찾는데 우리가 흘린 피가 아직 적단말ियो?》

두사람의 눈빛은 날카로와졌다. 제 생각을 굽히지 않으려고 어성을 높였다. 잠시 감정을 녹잡히느라고 가볍게 숨을 몰아쉬던 수영은 고개를 저으며 조용히 그러면서도 침착하게 입을 열었다.

《잘못 생각했어요. 그런 교훈이나 찾자고 피를 흘린게 아니에요. 광주에 뿌려진 피는 이 땅에 자유와 민주를 안아오는 지레대가 될거예요.》

그 놀라운 말에 놀란 현우는 한동안 수영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 말에 담긴 큰 뜻을 너무도 잘 아는 현우였다. 섬약하게만 여겨오던 수영이가 그 좁은 가슴에 것처럼 아름찬 지향을 안은것이 놀라왔다. 아무리 의로운 싸움이라 하더라도 수영이가 앞장선다는것은 생각조차하기 무서웠다. 술진 눈섭아래 온건히 빛나던 현우의 눈이 번뜩이였다.

《왜 내 마음을 그리도 몰라주오? 수영인 나에게 너무도 귀중한 존재요.》 그는 목소리마저 격해졌다. 함치르하게 물결쳐내린 수영의 머리칼을 어루어듬던 현우의 손은 그의 가냘픈 어깨를 감쌌다.

《저를 위한다면 뜻을 같이해주세요.》

수영의 소원은 절절하였다. 그럴수록 현우는 랭담해지려 애썼다.

《아니 수영인 절대루 안되오. 차라리 내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어두…》

《그만하세요. 저에게도 현우씨가 누구보다 귀중해요.》

물기어린 눈길로 현우를 지켜보던 수영은 그의 넓은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수영이, 우리 조금만 더 참읍시다. 우리가 졸업하면 모든것이 달라질거요.》

그 말에 수영은 고개를 숙인채 살며시 몸을 빼려했다. 그럴수록 현우는 마치 귀중한것을 놓치기라도 할듯 두 어깨를 꼭 껴안았다.

《아니에요. 석훈씨의 동료들을 보셨지요. 그들은 졸업을 앞두고 대학에서 쫓겨났어요.》

《그게 무슨 소리요? 사대학에 그들만한 인재가 있을라구?》

현우의 손은 저도 모르게 미끄러져내렸다.

《<불량>학생 이라는거지요. 파쑈적인 <졸업정원제>라는것이 결국은 항쟁에 나섰던 학생들에 대한 보복조치예요.》

그제야 현우는 순봉의 말을 들으며 점점 심각해지던 수영의 모습이, 헤어지면서 석훈의 동료들이 하던 말의 뜻이 무엇이었던지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 너무도 가혹한 현실이였다. 현우는 오래동안 키워오던 그 모든 희망이 줄지에 무너져내리는 좌절감에 사로잡혔다.

실사 나에게야… 하는 생각으로 자신을 위안해 보려고 하였으나 그것 역시 자기기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실사 내가 아니라 하더라도 술한 학우들의 래일이 무참히 짓밟힐것이다. 아니 자유와 민주를 바라는 우리모두의 념원이 이렇게 생매장 당할수야 없지 않는가!)

그는 자기를 지켜보는 수영의 눈길앞에 시선을 떨구었다. 수영이가 바라는 그 투쟁의 길에 자신이 점차 끌려들고있음을 깨닫고 스스로 놀라왔다.

《현우씨, 날이 갈수록 놈들은 남조선사회를 흑심한 암흑천지로 만들지 않아요. 동족을 피바다속에 참살한 전두환역도도 그놈을 부추긴 미제도 <남침위협>이라고 하면서 전쟁준비에 광분하고있어요. 우리가 싸우지 않으면 놈들은 분렬의 장벽을 더 높이 쌓을거예요. 그걸 용납할수 없기에 모두 일떠서려는거예요.》

수영의 말은 그 어떤 계시처럼 가슴에 새겨졌다. 현우는 그가 내미는 붓을 들며 깊은 생각에 잠기였다.

수영은 입가에 부드러운 미소를 지은채 두손으로 천을 팽팽히 행구어주었다. 흰천우에 새겨지는 글발은 붉은 도료로가 아니라 사랑하는 련인의 피로 씌여지는것만 같아 현우의 손은 저으기 떨리였다.

수영에 대한 생각은 도저히 털어버릴수 없었다. 생각을 멀리하려고 할수록 이름할수 없는 불안이 겹싸이였다.

만일 그에게 어떤 불행이라도 생긴다면 그것이 자신의 불찰로 인한것으로만 생각되어 가슴조이게 되었다. 초조한 마음으로 산기슭을 에돌아 등성이에 올라서니 하얀 들꽃이 구름처럼 피어났다. 사나운 바람이 몰아칠 때엔 이처럼 화려한 화원이 펼쳐지리라 생각인들 했으랴. 모진 수난을 이겨내고 피어난 꽃이기에 더 향기롭고 아름답게 여겨 지는것이다.

《현우씨!》 언제나 유정하던 수영의 목소리가 숨가쁘게 들렸다. 들꽃 핀 저 언덕우에서 반달음치며

달려오는 그의 모습이 보이였다. 반가움보다 놀라움이 앞섰다.

《무슨 일이지?》

《시위대오가 대학앞거리에서 저지당했어요. 어서 가요. 가면서 이야기해요.》

《가다니, 놈들이 저지선을 쳤으면 거긴 위험하오.》 숨을 돌릴새도 없이 급히 대학쪽으로 가려는 수영을 무작정 멈춰세웠다.

《모두 거리으로 펼쳐나섰는데 무엇을 주저하겠어요.》

《수영이, 조금만 더 기다려봅시다. 내 사랑을 희생시키고 싶지 않소. 차라리 내가...》

《전 그런 사랑을 바라지 않아요. 희생된 학우들이 땅속에 묻혔어도 우릴 지켜보고있어요.》

언제나 잔잔해보이던 수영의 얼굴이 대뜸 날카로와졌다. 두사람의 숨소리는 높아졌다.

숨막히는 침묵...

순간 나무등결이 뒤에서 거뒀한 그림자가 서늘이 어물거렸다. 뛰쳐나오는걸 보니 공수병놈들이 었다. 모두 어깨우에 철갑모를 올려놓은것 같은 양바탕하고 우악스럽게 생긴놈들이었다. 미처 피할사이도 없이 벼락같이 달려들었다.

《이년, 옥상에서 뼈라를 뿌리는걸 봤다.》

얼굴에 칼자리가 난 험상궂게 생긴놈이 수영의 가방을 나꾸졌다. 그속에서 뼈라가 쏟아져나왔다. 놀라움보다 공포가 앞섰다.

벌써,두놈이 수영에게 달려들었다. 입을 옥문 수영은 노기가 서린 눈길로 자기를 쏘아보았다. 그것은 마치 《현우씨가 바라던 사랑이 어떤 결과를 빚어냈는가보세요.》 하고 지탄하는것 같았다. 더 생각할새 없이 팔을 벌리고 막아나섰다.

《그 새끼도 없애치워. 짧은놈들은 다 죽여치우라는 명령이야.》

놈들의 본색이 그대로 드러났다.

한놈이 대검을 내댔다.

시퍼런 칼끝이 눈앞에 번뜩이는 순간 내 사랑도 내 몸도 저 칼끝에 피투성이가 될것이다 죽음에 대한 공포보다도 수치스러운 치욕을 안고 죽을수 없다는 생각이 번개처럼 뇌리를 쳤다. 더는 주저할수 없었다. 앞에 놈이 대검을 쳐들고 내려치려 하였다. 그 순간 몸을 날리며 놈의 배허벅을 힘껏 걷어찼다. 놈은 대검을 떨어뜨린채 뒤로 벌렁 자빠졌다. 그는 대검을 들고 수영이쪽으로 달려갔다. (그렇다. 앉아서 죽느니보다 일어나 싸워야 한다. 싸워서 내 사랑도 내 삶도 지켜야 한다.) 수영이가 재촉할 때 선뜻 따라서지 못한것이 후회되였다. 그랬으면 이런 일도 없었으련만... 무서운 자책감이 쫓기듯 달리고 또 달려갔다.

《수영이!》 소리쳤으나 그들사이 거리는 점점 더 멀어졌다. 안타까움만 더 해갈뿐이다. 뜻밖에 낭떠러지가 막아나서 정신없이 건너뛰었다. 《앗!》 천길나락으로 빠져드는 놀라움에 저도 모르게 소리쳤다.

그 소리에 놀라 눈을 뜨니 꿈이였다. 현우의 온 몸은 땀에 화락하게 젖어있었다.

어제 현우는 최석훈의 집을 찾아갔었다.

오래동안 기다렸으나 수영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무슨 피치 못할 일이라도 있는지... 돌아오던 길에 수영의 집을 찾아가보았으나 그는 없었다. 불안한 생각이 갈마들었다.

밤새 자리에서 뒤척이던 현우는 새벽녘에야 풀깃잠이 들었으나 이처럼 무서운 악몽이 그를 괴롭혔던 것이다.

검은 구름을 몰아온 바람이 아침녘에야 잠잠해졌다. 한소나기 쏟아져내릴듯한 저기압이 었다.

불길한 예감에 싸여 방황하던 현우는 중낮이 가까와서야 대학으로 나갔다. 교정은 폭풍이 지난뒤처럼 한산하였다. 교내에서 통성투쟁을 벌리던 학우들이 모두 거리로 펼쳐나섰던것이다.

마음이 어수선해진 현우는 《행림서점》을 찾았다.

순봉은 하루사이에 또 나타난 그를 보고 놀랐다.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아니요. 수영이가 오지 않았댔소?》

《어제밤에 집으로 왔었어요. 그래 저도 지금 기다리는중이에요.》

《어제밤에요?》

현우는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어제밤 자정이 가까왔는데 누군가 다급히 문을 두드리는데 아니겠어요. 나가보니 수영이가 누구에게 쫓기는듯 몹시 초조한 기색이였어요.》

순봉은 차분한 성미 그대로 자초지종 어제밤 일을 이야기했다.

뜻밖에 모임이 앞당겨져 그만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고 미안해하면서 수영은 방안에 들어서서야 긴숨을 내쉬었다. 누군가 자기를 미행하고있다는것을 감촉했다는것이다. 얼마후에야 마음을 가라 앉힌 그는 술곳이 잠든 영이를 애무하더니 파라핀지에 싼 장난감을 꺼내놓고는 일어서려 하였다. 순봉은 밤도 깊었는데 (사실 미행이 달렸다는게 더 걱정이었다)자고 가라고 그를 놀려댔었다. 하지만 바깥동정을 살피고 난 수영은 급히 차려주는 저녁을 한술 들고는 일어섰다. 래일아침 시위때문에 가야 한다고... 불안해하는 순봉을 보고 잠시 생각에 잠겼던 수영은 품속에서 뼈라몽치를 꺼내 주면서 래일아침 《행림서점》으로 가져다달라는 부탁을 남기고 종시 집을 나

섰다는 것이다.

순봉의 이야기를 묻는 순간 현우는 심장이 목을 치미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꿈은 생시와 반대라고 하였는데 불행하게도 그 믿음마저 부서졌다.

《앙-》 그의 착잡한 생각을 깨트리며 경찰백차가 달려갔다. 기동경찰의 움직임이 거리를 어지럽혔다.

《저놈들이 벌써 세차레나 대학쪽으로 밀려갔어요. 저놈들때문에 수영이가 오지 못하는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순봉의 눈빛에는 근심보다 분노가 번뜩 있었다.

이 시각에도 경찰들과 맞서 싸울 학우들을 생각하니 현우는 마음이 초조해졌다. 환각처럼 떠오른 수영의 부르짖음이 귀전에 들리는것만 같았다.

《우리가 죽음을 각오하지 않고서는 자유도 민주주의도 바랄수 없어요. 현우씨와 한전호숙에서라면 전더없이 기쁘겠어요.》 절절한 그 목소리가 피맺힌 호소처럼 현우를 이끌었다.

현우는 학우들과 떨어져있는 이때처럼 고독을 느껴보기는 처음이 었다.

투쟁의 가치를 먼저 추켜든 영웅은 못될지언정 그것을 외면한다면 푸른 하늘을 깨끗한 마음으로 바라볼수 없는 락오자, 배신자의 운명을 면치 못할것이다.

여기까지 생각이 미친 현우는 온몸의 피가 땅밑으로 새어나가는 허탈감을 느꼈다. 창백해진 그의 얼굴을 지켜보던 순봉의 눈이 커졌다.

《어디 편찮으세요?》

《아니요. 그 뼈라를 어서 주시오.》

모든것을 알아차린 순봉이도 서둘렀다.

《저도 거리에 나가겠어요.》

《뒤따라 오십시오. 제 먼저 급히 가야 하겠기에...》

급한 마음이 앞서 말도 채 마무리지 못한채 현우는 뼈라를 안고 거리로 나섰다. 거리의 소요도 그를 지체시키지 못하였다. 경찰들이 사라진쪽으로 무작정 달려갔다. 그것이 제일 빠른 길이기에 ...

달려가는 그의 눈앞에는 항쟁의 그날, 학우들의 피로 물들여졌던 거리가 방불히 떠올랐다. 저지선을 뚫다가 쓰러진곳도 최형이 최후를 마친곳도 바로 이 거리였다.

(그렇다. 학우들이 흘린 피가 모독당할수 없다. 그 붉은피는 반드시 자유와 민주를 안아오는 지레대가 되어야 한다.)

현우의 몸엔 잠자던 피가 끓기 시작했다. 바로 항쟁의 그날처럼... 뛰여갈수록 현우의 마음은 다 급해졌다.

수영이와 함께 투쟁대오에 나서지 못한 후회가 막심하였다.

어쩐지 자기의 락오로 하여 수영이가 몸부림치고 학우들이 피를 흘리고있는것만 같았다.

그가 멈춰선곳은 기동경찰이 겹겹이 늘어선 네 거리였다. 놈들이 저지선을 친 저쪽에는 시위대오가 맞서고있었다. 정황을 일별한 현우는 거리를 막아나선놈들의 저지선을 뚫고 시위대오로 갈수 없다는것을 직감했다. 순간 그는 제 한몸이 부서져도 거리에 집중된놈들의 주의를 분산시켜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것은 물론 어렵고 위험한 일이었지만 순간도 지체할수 없었다. 그것이 놈들의 저지선을 뚫는 돌파구가 된다는것을 안 이상에야...

현우는 뒤꽂목을 돌아서 네거리에 선 4층집 옥상으로 단숨에 올라갔다.

투석전이 벌어지는 거리가 손에 잡힐듯 뻗히 내려다보이였다. 한순간 그 소요속에서도 그는 프랑카드를 들고있을 수영을 찾으려 하였다. 그것은 허사였다. 허나 수영이와 한대오에 나섰다는 생각으로 하여 현우는 그가 몸가까이 있는것처럼 느껴졌다.

현우의 온몸엔 투쟁의 열망이 불타올랐다.

그는 품속에서 뼈라를 한웅큼 쥐여내어 힘껏 뿌렸다. 흰 나래를 편 새처럼 뼈라가 나뭇기였다. 시위대오는 더욱더 기세를 올리였다.

뚝뚝의 정황에 놀란놈들의 한무리가 옥상으로 쏠렸다. 야무진 총성이 들렸다. 현우는 그것이 자기에게 향해진 총탄임을 알았으나 몸을 피하려 하지 않았다.

《미국은 가면을 벗으라!》

《전두환을 찢어죽이라!》

《쓰러진 학우들의 피를 헹되이 말라!》

목청껏 웨치며 그는 뼈라를 뿌리고 또 뿌렸다. 총성이 더 자지러졌다.

자지러지는 총성에 끌려 사위를 살펴보던 수영은 저도 모르게 외마디 소리를 쳤다. 옥상에서 뼈라를 뿌리는 현우를 알아보았던것이다. 비발치는 총탄속에서도 몸을 내대고 뼈라를 뿌리는 그 모습이 거인상처럼 안겨왔다.

수영은 가치를 더 높이 들고 걸음을 다그쳤다.

시위대오앞에 몰려있던놈들의 한무리가 밀려나와 집을 둘러싸는것이 보이였다.

놈들의 저지선이 약해진 틈을 타서 시위대오는 노한 파도처럼 더 힘차게 밀려들었다.

무겁게 드리운 검은 구름을 찢어발기며 번개가 번뜩이였다. 이어 《파르릉》 천지를 진감하는 소리가 힘차게 들렸다.

봄우리는 멀리 메아리쳐갔다.

자연의 물조는 어길수 없는가싶다.

늦추위가 아무리 기승을 부려도...

군민일치의 아름다운 노래

강 영 일

총을 멘 병사, 나는 지금 노을이 불타는 농장벌을 지나며 한편의 시를 외워본다.

하루 훈련 마친 보람찬 저녁
석양에 타는 노을빛 안고
포차들이 농장의 고개길을 내리는데
전해왔다 다급한 구령소리 -
《포차를 조심히 몰것》

읽으면 읽을수록 외우면 외울수록 인민의 행복을 지켜가는 병사들의 마음이 가슴뜨겁도록 안겨오는 시.

그 시가 바로 시초 《병사시절의 나날에》의 《포차를 조심히 몰것》(조선문학 1983년 1호 최준경)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실생활을 생동하게, 심도있게 그려낸 사실주의적 문예작품만이 사람들의 심금을 울릴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 시는 총잡은 병사들이 인민을 위해바쳐가는 아름다운 미풍과 거기서 울려나오는 사상감정을 그리도 잘 표현했는가.

시를 한련한련 읽어내려가노라니 눈앞에는 어느덧 하루훈련을 마치고 기세높이 달려오던 포차들이 농장의 고개길에 들어서자 서서히 속도를 늦추는 모습이 안겨온다.

육중한 포를 드다루는 담대하고 성미급한 포차운전사들이 차를 조심히 몰라는 구령소리를 그 어떤 전투명령처럼 엄숙히 받아들이며 요람을 지켜선 어머니처럼 발동소리 자장가처럼 울리고 포신처럼 투박한 장탄수의 손들이 처녀의 살뜰한 손길이 된듯 길가에 늘어진 과수나무가지를 애지중지 들어올리는 모습도 한쪽의 그림처럼 안겨온다.

아 어찌하여 하루 훈련 마친 기쁨과 광만을 싣고 질풍같이 달려오던 포차들이 과원의 고개길에선 조

심히 령을 내리고 포병들의 장알박힌 손들이 어린애기를 돌보는 어머니의 손처럼 살뜰해지는것인가.

.....

애틀해라 티없는 그 심장
농장의 행복에 금이 갈세라
마음의 기둥으로 받들어고이며
조심히 령을 내리는 포차들의 대오여

진정 중대로 가는 길은 늦어져도 인민의 행복에 금을 낼수 없어 병사들의 심장과 심장속으로는 아름다운 군민일치의 노래 《포차를 조심히 몰것》라는 구령이 메아리치는것이 아닌가.

참으로 시 《포차를 조심히 몰것》은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중앙의 품속에서 포차들의 차창가에 비껴오는 과원의 저녁노을처럼 아름다운 군민일치의 꽃을 활짝 꽃피워가는 병사들의 사상감정을 진실하고 심도있게 노래한 작품이다.

훈련을 마치고 돌아오는 농장의 고개길에서 울린 하나의 구령소리를 놓고 쓴 폐지수로는 반폐지, 런수로는 7련밖에 안되는 이 짧은 시속에 군민일치의 아름다운 노래가 장엄한 메아리로 울리기에 우리 병사들은 이 시를 수첩에 적어가지고 다니는것마저도 성차지 않아 밤이나 낮이나 외우는것이며 거기에 자신들의 생활을 비추어보는 거울로 삼는것이 아니라.

원췌앞에서는 회성벽력이 되고 인민들앞에서는 끝없이 친근하고 다정한 병사들,

우리 병사들은 이 아름다운 군민일치의 노래를 부르며 인민의 행복을 위한 준엄한 싸움길로 달리고 또 달릴것이다. 그렇다!

.....

인민이 가꾼 아름다운 창조물들을
가장 소중히 아낄줄 아는 심장들에서
래일은 조국애의 포성이
원췌의 숨통을 향해 더 높이 울리리라

(필자는 조선인민군 군인임)

잊지 않으리 고향이여 외 1 편

리 성 철

전호가 눈속에서 밤새울 때면
따스한 온돌방이 나를 유혹할가봐
진창길 배밀이할 때면
고향의 뛰놀던 잔디밭이
나의 발목을 붙잡을가봐

힘겨워도 어려워도
뒤를 돌아보지 않으리다
초소로 떠날 때 그 짧은 생각
어디로 갔는가?

고향이여
네 그리도 내 가슴속에
떨수없이 소중한 자리잡았던가

빨간 령장시절엔
집생각 많은 나를 꾸짖으며
때로 얼굴을 붉히였던만
어쩔수 없구나
자꾸자꾸 고향에 달리는 마음

별빛에 그냥 누운 숙영의 밤이면
아들걱정 각별히도 많으신 어머니
마음속에 조용히 찾아오더라
씩살았다 두툼한 이 손
대견히 쏘아보며 만져보며
그러안은 총가목 닦고 또 닦고...

훈련장 언땅에 엎드릴 때면
훈훈히 이 가슴 덥혀주던
고향의 동구길 아지랑이여
봄별속에 부풀던 앞내벌이여

다는 몰랐구나 고향이여
먼곳에 있는 정다운 그 눈빛들이
언제나 따라오며 나를 지켜보는줄
못있을 유년기의 소중한 추억들이
조국애의 이 심장 불타게 하는줄...

낮선 마을의 유정한 박우물
야전물통에 채워넣을 때면
내 가슴에 먼저 차오르더라
고향집 뜰안의 맑은 웅달샘

먼먼 행군길에 출렁이며 출렁이며
빨리 더 빨리 걸음을 재촉하던
내 고향 정가론 웅달샘이여

진정 잊지 못해라 고향이여
은혜론 어버이사랑속에
내 받아안은 꿈같은 행복
위대한 향도의 해발아래
나날이 꽃피는 산촌의 기쁨을

이 아들이 조국앞에 뗏뗏이 살 때
눈물겹도록 기뻐하실 어머니
간절한 당부속에 바래주고
크나큰 믿음속에 기다리는
소중한 마음들을 나는 못잊어...

언제나 고향을 생각하며
조국의 숨결을 사무치게 느끼나니
고향이여 너는 진정
깨끗한 삶의 훈향만 안겨주는
살뜰한 속삭임이던가
위훈의 날개를 펼치여주는
조국애의 티없는 샘이던가

아, 진격의 불길속에도
안고 달려갈 그 이름
통일의 축포속을 행진해갈 때도
병사와 함께 빛나오를 땅
내 쓰러져도 참되게 쓰러지면
그만큼 빛나게 솟구칠 품이여

내 휘둘러 번쩍이는 총창은
고향하늘 별빛을 더 밝게 하리라
내 흘리는 충성의 땀방울은
고향의 들길에 아름다운 꽃들을
더 살찌고 풍만하게 하리라

아 내 고향 정다운곳이여
친우처럼 어머니처럼
병사, 나의 심장에 자리잡은...
한목숨 다바쳐 지켜야 할
은혜로운 사랑의 품이여

앵 두

탐스럽게 익었구나
 녹이 쓴 분계선 철조망에 갇히워
 제 홀로
 옛집터 마당가에 주렁진 빨간 앵두

총천 이 가슴 못견디게 설레어
 아, 이런 순간
 달려가 한아름 안고싶구나

긴긴세월
 떠나간 주인을 기다리며
 속절없이 떨어진 앵두알
 천이던가 만이던가

허나 기다리는 주인은 오지를 앓고
 분계선 가시철조망우엔
 민족의 설음이 어려
 누런 녹이 쓸고 또 쓸고

단물올라 살찐 앵두
 이렇게 오는 초여름이면
 웃으며 온 가정의
 한알 두알 너를 따며 기뻐했으련만
 마당가엔 잡초만 키를 넘고
 샘터엔 수북이 락엽이 쌓이고

어이하여 어이하여
 긴긴 세월 네 홀로
 슬피 떨어져 썩어야 하는가
 이 땅에 뿌리내려
 내 조국의 물줄기로 익었건만
 어이하여 아픈 상처로
 이 가슴에 새겨져야 하는가

계절도 따스한 계절
 우리 사는 북쪽땅엔

사시절 봄노래가 울리고
 내 고향 울밑에도
 빨가니 앵두가 익어
 기쁨이 피어나련만

날강도 미제의 구두발밑에
 순결한 인민을 무참히 살육하고
 조국을 동강낸 야수의 그 총칼아래
 긴긴 세월
 너는 익어도 울며 익고
 떨어져도 짓밟혀 몸서리치거니

내 눈에는 내 눈에는
 분렬의 비극을 참을길없어
 끝끝내 대지에 떨어지는
 피방울로 보이는구나 빨간 앵두

아, 이 가슴에
 증오의 불덩이
 복수의 불덩이로 재워진다 앵두
 침략자 미제
 전두환악당을 발밑에 짓몽개고

아버이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품에서
 온 나라가 한가정으로
 행복의 한뜨락에 살아갈 그날을 재촉하며
 내 가슴에 활활 불이 되어 타번진다
 빨간 앵두 빨간 앵두

아아 초여름 한철에
 앵두는 무르익어도
 병사의 마음속엔 사철 불게 익어
 원쑤에게로 향한
 복수와 증오의 불길로 타고있어라
 앵두 아 앵두